

2009

3/4
vol.7

낙농산업동향



목차 | Contents

요약 05

I. 국내외 경제동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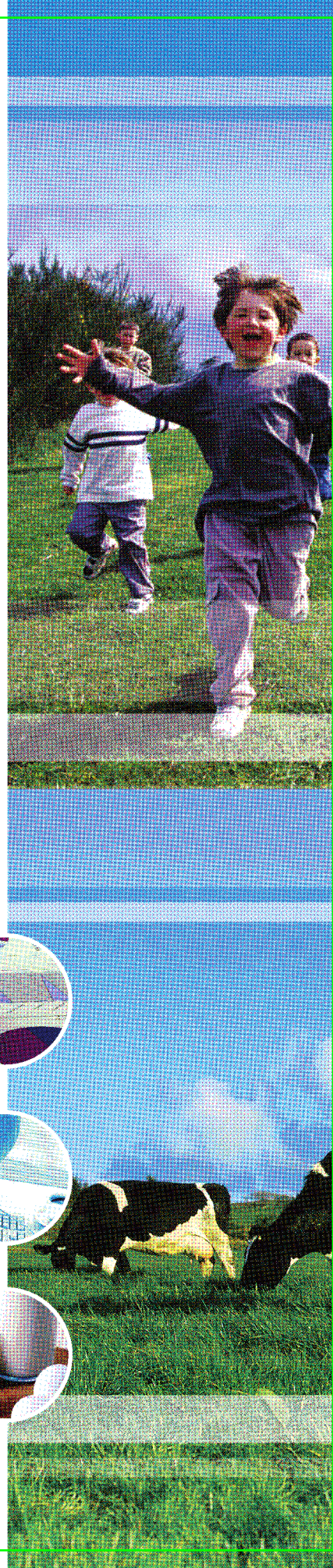
1. 국내 경제동향 10
2. 해외 경제동향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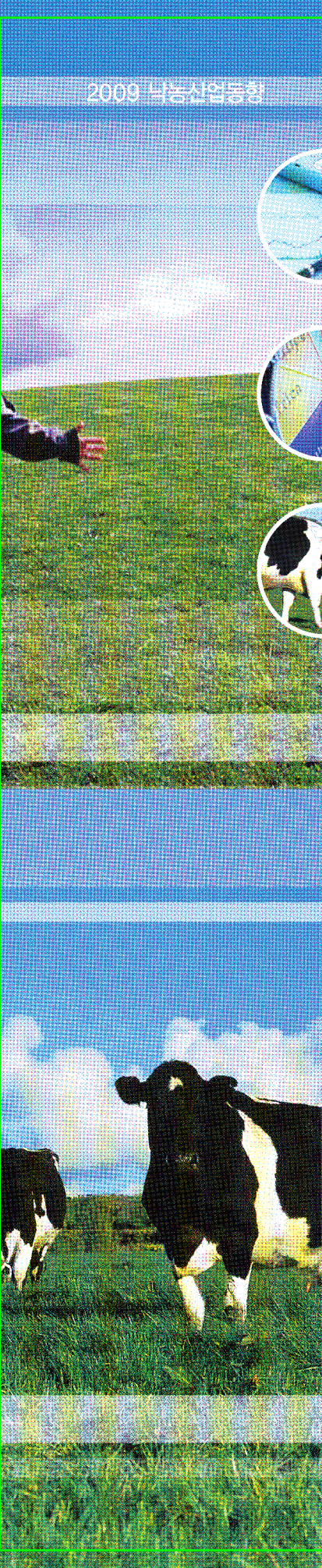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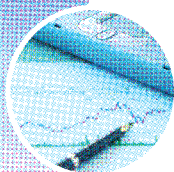
II. 국내 낙농산업 동향 13

1. 가축사육두수 및 낙농가 수 14
2. 젖소산지가격 15
3. 분기별 원유생산량 16
4. 월별 원유 생산자 가격 17
5. 원유유질 현황 18
6. 체세포 등급분포 현황 19
7. 분기별 원유수급동향 20
8. 분유재고동향 21
9. 주요 유제품 수출입동향 22
10. 주요 유제품 생산동향 23
11. 주요 유제품 유통가격 24
12. 소득별 유제품 소비동향 25
13. 유가공업계 가동률 26
14. 유음료 및 음료 생산동향 27
15. 사료 수입 및 배합사료 생산동향 28

III. 해외 낙농산업 동향 29

1. 국제 낙농산업 및 가격동향
 - 가. 국제 유제품 수출가격 동향 30
 - 나. 주요국 유제품 유통시세(월간) 31
2. 주요국 낙농 동향
 - 가. 미국 32
 - 나. EU 33
 - 다. 일본 34
 - 라. 중국 35
 - 마. 호주 36
3. 국제 곡물 작황 및 가격동향
 - 가. 국제 곡물 선물(CBOT) 시세 37
 - 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축산물 선물시세 38
 - 다. 국제기상 및 곡물 작황 39





IV. 국내외 낙농 산업정보

41

1. 낙농핫이슈 42
2. 국내외 낙농 정보 46
3.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 50
4. IDF 동향 53

V. 부록 /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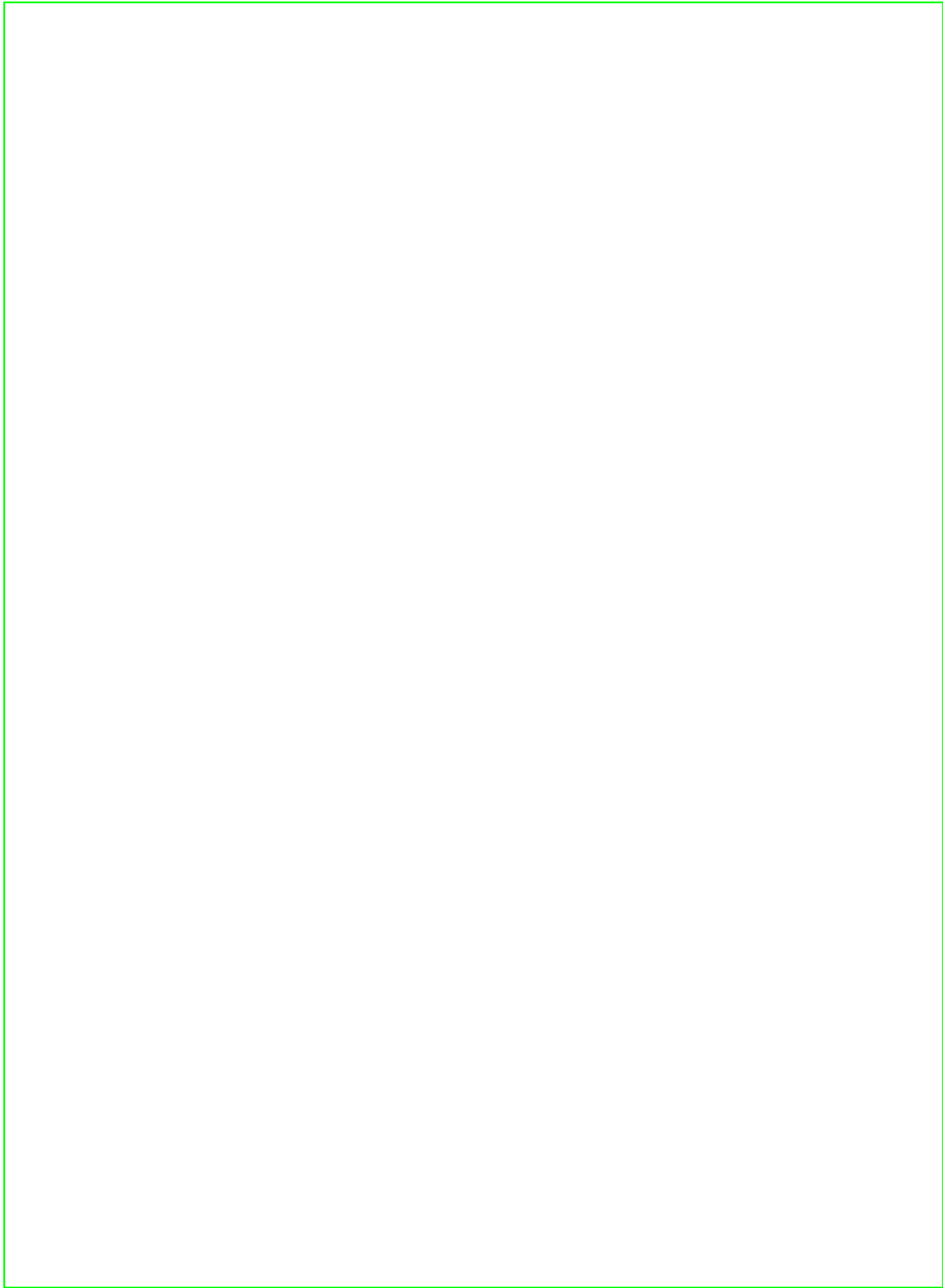
57

■ 국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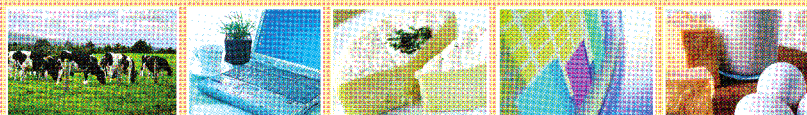
1. 젖소 사육현황 58
2.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58
3. 젖소 산지가격 59
4. 원유생산 및 생산자 가격 59
5. 유질현황 60
6. 원유수급현황 60
7. 분유재고현황 61
8. 유제품 수입현황 61
9. 유제품별 생산현황 62
10. 유제품 유통가격 62
11. 가구소득대비 낙농품 소비액 63
12. 가구소득별 낙농품 소비 비중 63
13. 제조업 가동률 지수 64
14. 유가공 및 연관산업 출하 동향 64
15. 배합사료 생산현황 65
16. 주요 사료 수입현황 65

■ 해외통계

1. 주요국 젖소사육현황 66
2. 세계 우유생산현황 66
 - 가. 대륙별 우유생산량 나. 국가별 우유생산량
3. 주요국 유제품 생산현황 67
 - 가. 시유 나. 치즈 다. 전지분유 라. 탈지분유
4. 국제 유제품 수출입동향 68
 - 가. 수출 나. 수입
5. 주요국 원유 생산자 가격(평균) 69
6. 국제 유제품 가격 70
 - 가. 수출가격
 - 나. 주요국 유제품 도매가격
 - 탈지분유 - 전지분유 - 치즈 - 버터
 - 다. 곡류 및 축산물 선물시세
7. 미국 낙농산업 통계 73
8. EU 낙농산업 통계 73
9. 일본 낙농산업 통계 74
10. 호주 낙농산업 통계 74



[요약]



낙농산업동향 | Korea Dairy Committee

-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 낙농산업 동향
- 해외 낙농산업 동향



1. 국내외 경제동향

최근 EU 정상회의에서는 “경기회복 징후가 있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할 때”라는 공식 발언이 있었다. 실제 OECD는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2%로 다소 상향하여 발표했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중국과 인도도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4분기 GDP가 전기 대비 2.3% 증가하는 등 경기하강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물 및 심리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경기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커 하반기 세계 경기회복과 수출호전여부가 향후 경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

- ▶ **경제전반** :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되는 모습
 - OECD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분기보다 다소 상향된 $\Delta 2.2\%$ 로 수정 전망
- ▶ **주요국 경제동향**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속도가 둔화
 - 미국, 소매판매가 3개월만에 증가등 침체속도가 점차 둔화
 - EU, 경기회복징후가 있어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
 - 日,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상승, 수출은 여전히 부진
 - 中, 투자·생산·소비 지표들이 소폭 개선되는등 저점을 벗어나 긍정적 변화
- ▶ **원자재 가격** : 원유와 대두는 상승, 옥수수, 소맥등은 하락세
 - 국제유가, 세계 수요전망 상향조정과 미국의 재고감소등으로 상승
 - 옥수수 및 소맥,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하락 (5월대비 옥수수 $\Delta 1.3\%$, 밀 $\Delta 1.0$)
 - 대두, 아르헨티나의 가뭄에 따른 생산감소로 상승 (5월대비 5.4%)

● 국내 경제

- ▶ **국내총생산** : 2/4분기 GDP, 전기 대비 2.3% 증가
 -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 경기하강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
 - 원자재가격 하락과 재정확대에 기인, 하반기 수출이 향후 경기호전여부 결정
- ▶ **경기종합**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09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0.7% ↑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2.5% ↑
- ▶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 유지
 - 소비자 판매도 자동차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
- ▶ **소비자 물가동향** : '09. 2/4분기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2.8% 상승
 - 6월 수출입물가는 전월대비 1.9% 상승



2. 국내 낙농산업 동향

금년 2/4분기까지의 원유생산은 착유우 감소와 생산억육 저하등으로 전년대비 3.7% 낮아진 1,066천톤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2/4분기 소비는 유업계적 적극적 마케팅과 소비심리 회복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2%의 반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6월 분유재고도 전년대비 34.5% 줄어든 7,637천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분유성수기와 생산감소세가 동반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유등 주요 유제품 가격은 지난해 9월 인상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생산관련 지표의 약세속에서 업계 마케팅에 의해 주도되는 소비진작효과가 경기회복과 맞물릴 경우 3/4분기이후 일시적인 원유수급불안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 낙농 생산기반

- ▶ **사육두수** : 439.2천두로 전년동기대비 1.4% ↓
 - 저능력우 도태, 송아지 생산감소등이 주요인, 착유두수는 같은기간 2.8% ↓
- ▶ **산지가격** : 초임만삭 2,364천원, 전분기대비 1.4% ↑
 - 지난해말까지의 하락이후 상향 포함세 유지
- ▶ **원유생산** : 2/4분기까지 누적생산, 1,06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7% ↓
 - 착유두수 감소 및 저급사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일평균으로 3.2% 감소한 5,888톤

● 낙농수급

- ▶ **공급** : 총공급(국내생산 및 수입), 780.5천톤으로 전년대비 1.2% ↓
 - 국내생산 3.7% ↓, 수입 4.8% ↑
- ▶ **소비** : 총소비(국내소비 및 수출), 809.4천톤으로 전년대비 1.2% ↑
 - 경기회복, 마케팅에 따른 판매호조등으로 소폭 상승, 국내소비 796천톤, 수출 13천톤
- ▶ **분유재고** : 기말재고 7,63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4.5% ↓
 - 분유성수기에 힘입어 재고폭 감소
- ▶ **유제품수입** : 전반적인 증가세 속 전지분유와 혼합분유는 감소
 - 특히, 탈지분유(133% ↑), 버터(40.4% ↑)의 증가가 두드러져

● 유제품 생산 및 가격동향

- ▶ **유제품 생산** : 시유 소폭증가, 분유 대폭 감소
 - 시유는 전년동기대비 0.5% 증가, 분유는 36.1% 감소
- ▶ **유제품 가격** : 대부분 품목에서 안정세
 - 흰 우유 1리터 2,132원, 원료용 전·탈지분유 등 30%대 하락

3. 해외 낙농산업 동향

2009년 2/4분기 세계 우유 및 유제품시장은 세계경제 침체와 낮은 유대, 높아진 생산비등으로 전반적인 위축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생산추세는 미국과 EU등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오세아니아지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제품가격은 여전한 수요약세로 탈지분유가 톤당 2천불대 초반에 머무는등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년 2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현 시점은 2008년부터 시작된 순환적 하강기와 세계적 경기불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제품가격이 5년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수급은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소진과 생산감소에 따라 수급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약세기조가 하반기이후에 회복될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 생산동향

▶ 세계 우유생산 : 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의 여파로 전반적인 감소, 오세아니아는 회복세

▶ 금년도 생산전망 : 미, EU등은 감소세, 오세아니아 및 중국등은 회복세

- 미국, 금년 생산량 85.5백만톤으로 7년만의 감소 전망
- EU, 쿼터증량에도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150.9백만톤 전망
- 중국, 멜라민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6% 증가
- 뉴질랜드, 전년대비 6% 증가한 16.2백만톤 전망
- 호주, 전년대비 1.9% 증가한 9.4백만톤 전망

● 수급 및 가격동향

▶ 낙농수급 : 국제수요 위축 여파로 주요국 위주로 생산 약세 지속

- 유럽과 미국의 수출보조금 재개로 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 EU, 미국 등의 낙농가는 경영 한계에 직면

▶ 6월 탈지분유가격, 톤당 1,900~2,200불 내외의 약보합세

- 2월이후 다소 회복세, 2007년 11월 고점대비 절반이하수준
- 성수기와 경제회복세가 맞물리는 하반기이후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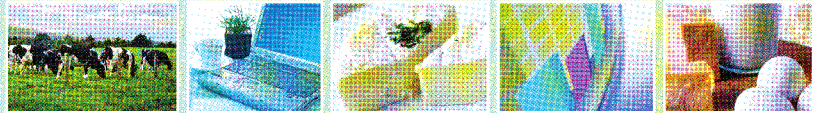
▶ 생산, 전년대비 1.7% 증가한 699백만톤 수준으로 추정

-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2.0%대보다 다소 낮은 수준
- 북미, 유럽등은 생산비 인상으로 위축세 지속전망

▶ 국제교역, 전년대비 0.3백만톤 감소한 39.4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미국과 EU의 생산감소 공백을 오세아니아가 상쇄시키는 형국
- 가격, 금년 2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듯

I 국내외 경제동향



낙농산업동향 | Korea Dairy Committee

1. 국내 경제동향

2. 해외 경제동향



1. 국내 경제동향



● 국내총생산

▶ '09.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기대비 2.3% 증가

- 제조업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확대
- 설비투자는 4/4분기 이후 큰 폭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기대비 8.4%증가하였으며, 재화수출도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4.7% 증가

➡ 국내총생산 및 성장률

(천억원, %)		2007		2008p				2009p	2009p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2,408	2,439	2,465	2,476	2,482	2,356	2,359	2,413
국민총소득		2,368	2,394	2,355	2,377	2,300	2,248	2,251	2,367
성 장 률	GDP	1.3	1.3	1.1	0.4	0.2	-5.1	0.1	2.3
	GDI	1.4	1.1	-1.7	1.0	-3.3	-2.2	0.1	5.1
	농림어업	0.8	-2.9	5.8	0.8	0.6	-0.1	-0.1	-1.5
	제조업	2.5	2.4	1.2	1.7	0.1	-11.9	-3.4	8.2

주) 2005년 연쇄가격, 계절조정계열 적용

● 경기종합지수

▶ '09.5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 건설기성액 등 2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내수출하지수 등 5개 지표가 증가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3개월 연속 상승 중)

▶ '09.5월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2.1% 상승

- 소비자기대지수, 종합주가지수, 재고순환지표, 자본재 수입액 등 모든 지표가 증가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전년동월대비 2.5%p 상승(5개월 연속 상승 중)

● 산업활동동향

▶ '09.5월중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 유지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

▶ 소비자재 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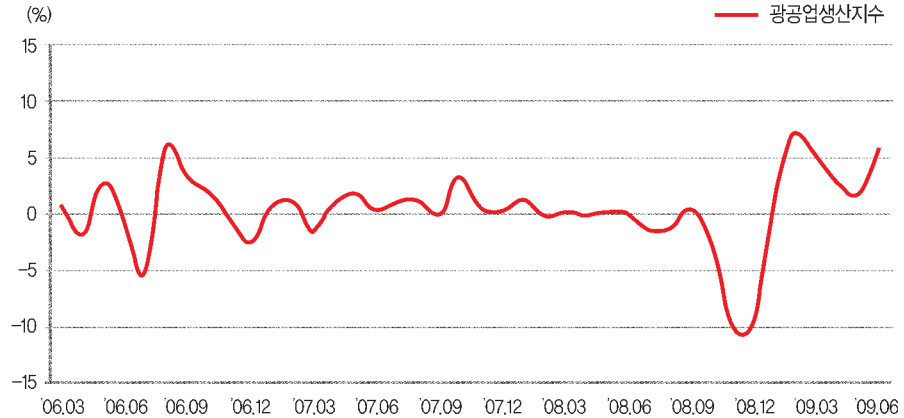
- 전년대비로는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 확대

▶ 5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가동률지수는 10.4%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9%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전월비)



● 소비자물가 동향

- ▶ '09.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2.8% 상승
- ▶ '09.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09%,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소비자물가

(2005=100, %)	2008				2009			
	6월	2/4	3/4	4/4	1/4	2/4	5월	6월
소비자물가	110.4	109.6	111.1	110.8	111.6	112.7	112.7	112.6
[전년동기대비]	3.8	4.8	5.5	4.5	3.9	2.8	2.7	2.0
상 농수축산물	100.1	100.8	103.6	102.8	109.2	110.8	112.1	106.7
품 공업제품	114.8	112.5	114.9	113.0	112.7	114.4	114.1	115.2

● 수출입물가 동향

- ▶ '09.6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9% 상승
 -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컴퓨터 영상장비 및 통신장비 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유가 오름세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제품은 크게 오름
 - 농림수산물은 배가 공급물량 부족으로 크게 오르고, 참치, 조개 등도 어획량 감소로 상승
- ▶ 수입물가 전월대비 5.1% 상승
 - 원유 및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고, 석유제품과 비철금속 등 1차제품을 중심으로 중간재도 상승
 - 농림수산물은 수요부진으로 돼지고기, 천연고기가 내렸으나, 대두, 옥수수, 쇠고기가 생산지의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

2. 해외 경제동향



● 해외 경제

▶ 세계경제는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물 지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되는 모습

- 미국은 1/4분기 성장율이 상향조정($\Delta 5.7 \rightarrow \Delta 5.5\%$)되고, 소매판매가 3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 되는 등 침체속도가 둔화
- 일본은 1/4분기 성장율이 상향조정($\Delta 4.0 \rightarrow \Delta 3.8\%$)되고,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수출은 여전히 부진
- 중국은 투자, 생산, 소비 지표들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수출감소폭은 확대되는 모습
- EU는 소매판매가 전기대비 상승하고, 경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구매자 관리지수(PMI)가 작년 9월이후 최고치(44.4) 기록

● 원자재 가격

▶ 6월중 원자재가격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달러화 약세등의 영향으로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국제곡물은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하락(로이터 상품가격지수 기준)

- 비철금속은 재고량 감소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전략 비축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동, 니켈 등 전 품목에 걸쳐 상승
- 국제곡물은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옥수수, 밀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대두는 아르헨티나의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상승
- 전월비 품목별 동향 : 옥수수 1.3%↓, 밀 1.0%↓, 대두 5.4%↑, 동 9.8%↑, 니켈 18.3%↑, 알루미늄 7.2%↑, 아연 5.2%↑, 납 16.8%↑, 주석 9.7%↑

➡ 로이터 지수(17개 주요 원자재 가중평균 지수, 평균치)

(전기말대비, %) (로이터 상품가격지수)	'07년	'08년	12월	'09.1	'09.2	'09.3	'09.4	'09.5	'09.6
Reuter상품가격지수	2,400	2,536	1,767	1,890	1,893	1,870	1,942	2,099	2,117

자료 : Bloomberg, Reuters

● 국제 유가

▶ 6월중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요 전망 상향조정, 미국 원유재고 감소,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상승

➡ 국제 유가

(달러/배럴, 기말기준)	'06	'07	'08	'09. 05	'09. 06	증감
Brent	60.13	93.89	41.76	64.98	68.34	5.2
WTI	61.05	96.00	44.60	66.31	69.89	5.4
Dubai	56.71	89.06	37.02	64.09	71.93	12.2

자료 : Bloomberg

Ⅱ

국내 낙농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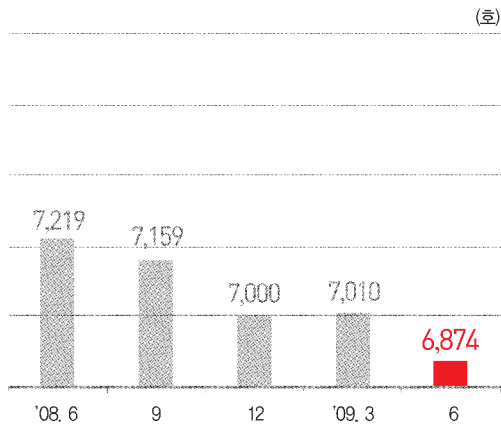
낙농산업동향 Korea Dairy Committee

1. 가축사육두수 및 낙농가 수
2. 젖소산지가격
3. 분기별 원유생산량
4. 월별 원유 생산자 가격
5. 원유유질 현황
6. 체세포 등급분포 현황
7. 분기별 원유수급동향
8. 분유재고동향
9. 주요 유제품 수출입동향
10. 주요 유제품 생산동향
11. 주요 유제품 유통가격
12. 소득별 유제품 소비동향
13. 유가공업계 가동률
14. 유음료 및 음료 생산동향
15. 사료 수입 및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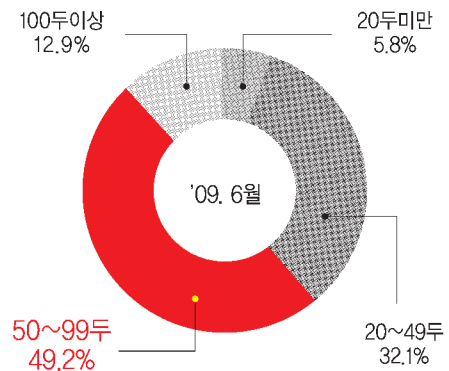
1. 가축사육두수 및 낙농가 수

- ▶ '09.6월, 낙농가수 6,874호로 전분기대비 1.9% 감소
 -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4.8% 감소
 - 농가간 켜터인수도로 100두이상 사육 전업농가 비율 증가추세
- ▶ 사육두수, 439.2천두로 전분기대비 1.9% 감소
 - 지능력우 도태, 송아지 생산감소 등이 주요인
- ▶ 호당 사육두수, 63.9두
 - 규모화 추세 지속, 전년동기 61.7두 대비 3.6% 증가

▶ 낙농가수



▶ 사육규모별 낙농가비율



▶ 낙농가수 및 사육두수

(호, 두)	'08. 6	'08. 9	'08. 12	'09. 3	'09. 6	증감(%)	
						전년동기	전분기
낙농가수	7,219	7,159	7,000	7,010	6,874	-4.8	-1.9
50두이상	4,237	4,229	4,278	4,364	4,266	0.7	-2.2
사육두수	445,213	444,748	445,754	447,793	439,191	-1.4	-1.9
착유우	214,338	210,355	209,124	216,263	210,112	-2.0	-2.8
호당사육두수	61.7	62.1	63.7	63.9	63.9	3.6	0.0

출처 : 통계청

2. 젖소산지가격

▶ '09.6월 젖소 초임만삭 가격, 236만원선으로 전분기대비 1.4% 상승

- '09.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30만원선 유지중
-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7.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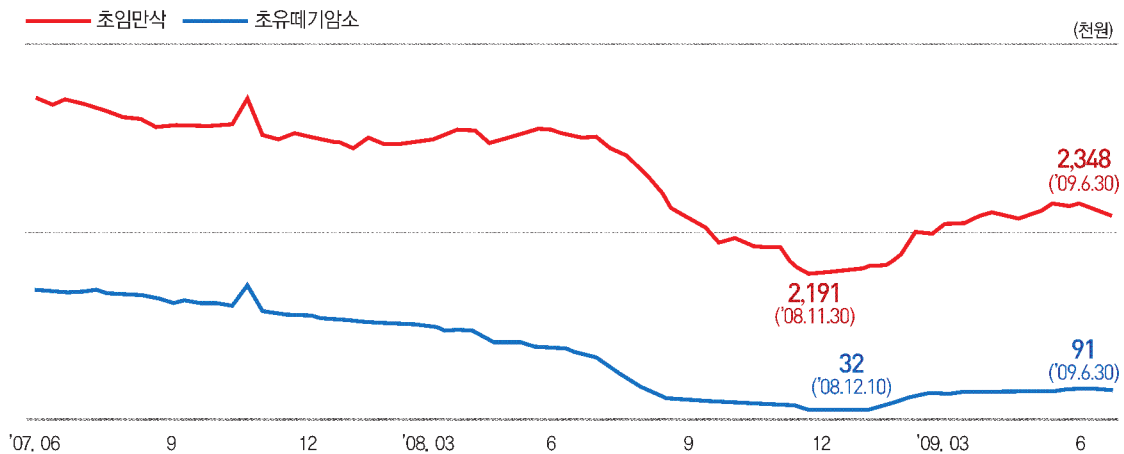
▶ 초유폐기 암송아지, 송아지수매사업 이후 급상승

- '09.6월 가격, 92천원으로 전분기대비 10.8% 상승

▶ '09.6월 수정단계, 전분기 대비 2.8% 상승한 96만원

-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

순별 젖소산지가격



월별 젖소산지가격

(천원)	'08. 6	'08. 9	'08. 12	'09. 3	'09. 6	증감(%)	
						전년동기	전분기
초유폐기(암)	195	57	33	83	92	-52.8	10.8
분유폐기(암)	396	213	156	218	219	-44.7	0.5
수정단계	1,154	990	889	934	960	-16.8	2.8
초임만삭	2,562	2,313	2,203	2,332	2,364	-7.7	1.4
초산우	2,301	2,154	2,037	2,117	2,157	-6.3	1.9
다산우(4산)	1,381	1,241	1,208	1,380	1,425	3.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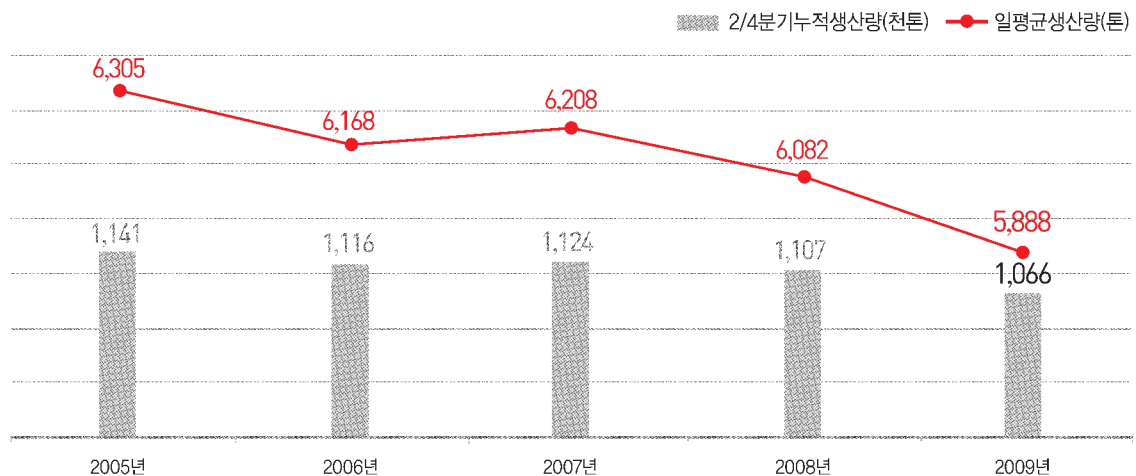
주) 월별가격은 해당순별 가격의 산술평균임

출처 : 농협중앙회

3. 분기별 원유생산량

- ▶ 2/4분기 일평균생산량,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5,931톤
- 착유두수 감소, 사료가격 부담에 따른 저급사료급여 등이 원인
- ▶ 2/4분기까지 누적 일평균 생산량,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5,888톤
- 분기 누적생산량은 1,06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
- ▶ 6월기준 호당생산량,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822kg

● 연도별 2/4분기 누적 원유생산량



● 분기별 원유생산량 및 일평균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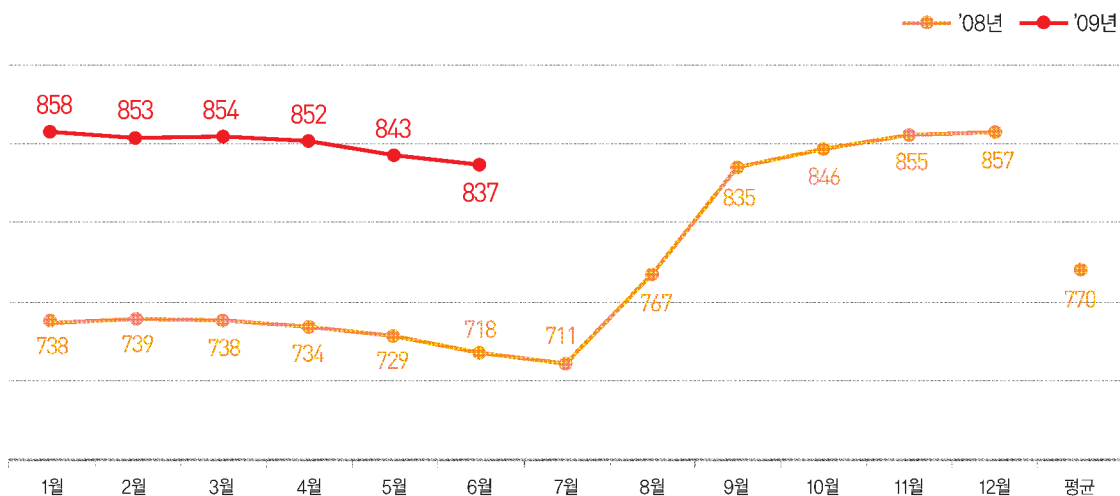
(톤)	1/4	2/4	3/4	4/4	당기누적 생산량	전년동기 증감율(%)	비고 (년도말 누계)
'09년 생산량	526,081	539,725			1,065,806	-3.7	
일평균	5,845	5,931			5,888	-3.2	
'08년 생산량	546,608	560,326	516,496	515,372	1,106,934	-1.5	2,138,802
일평균	6,007	6,157	5,614	5,602	6,082	-2.0	5,844
'07년 생산량	554,547	569,094	531,094	533,089	1,123,641		2,187,824
일평균	6,162	6,254	5,773	5,794	6,208		5,994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4. 월별 원유 생산자 가격

- ▶ 6월생산자가격, L당 837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원(16.6%) 상승
 - 기본가격 인상분(120원/L) 제외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
 - 가격요소별 단가는 유지방 45.4원, 체세포 39.4원, 세균 48.2원
- ▶ 전년 동월대비 유지방은 하락, 체세포는 상승, 세균수는 비슷한 수준임
 - 유지방 2.2원 하락, 체세포는 1.7원 상승, 세균수는 0.1원 하락

① 월별 원유 생산자 가격



② 년도별 원유 생산자 가격

(원/L)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06년	728.0	727.2	727.1	726.7	721.3	715.7	710.9	704.4	712.9	723.8	732.2	736.6	722.4
'07년	735.9	734.8	733.9	734.2	726.5	721.4	717.6	711.8	716.8	729.2	738.7	739.5	728.5
'08년	737.8	738.7	737.9	734.0	728.9	717.6	710.5	767.3	834.9	846.5	854.9	856.9	770.1
'09년	857.5	853.2	854.0	852.0	843.0	8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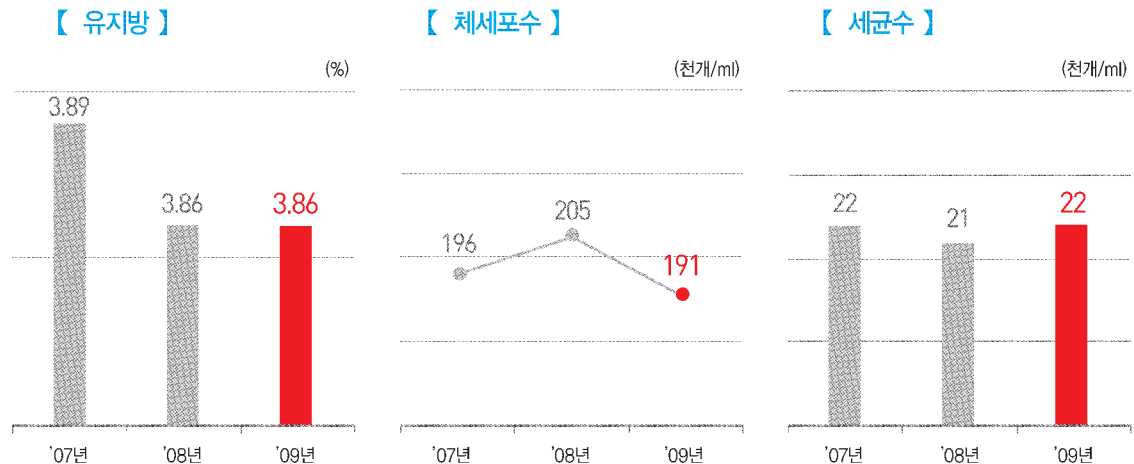
주)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정상유대 수취가격

출처 : 낙농진흥회

5. 원유유질 현황

- ▶ '09. 6월기준 유질성적, 유지방 3.8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08년 소폭 하락하였던 유지방 성적은 '09년 들어 전년수준으로 회복
- ▶ 6월 세균수, 전년동기대비 1천개 증가한 ml당 22천개
- 4월, 5월은 전년수준보다 낮았으나, 6월들어 전년 수준보다 증가
- ▶ 6월 체세포수, 전년동월보다 14천개 감소한 ml당 191천개
- '09.5월 이후부터 예전의 개선기조로 회복

● 년평균 원유 유질 현황



● 월별 원유 유질 현황

(%, 천개/ml)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지방	'07년	4.15	4.10	4.05	4.03	3.94	3.89	3.89	3.87	3.93	4.02	4.13	4.18
	'08년	4.16	4.16	4.09	4.01	3.93	3.86	3.84	3.81	3.89	3.96	4.09	4.15
	'09년	4.19	4.12	4.09	4.02	3.90	3.86						
체세포수	'07년	217	213	208	197	193	196	212	230	237	218	204	202
	'08년	206	210	195	189	189	205	230	240	222	210	199	202
	'09년	208	215	204	190	183	191						
세균수	'07년	24	22	19	19	21	22	27	29	26	20	19	21
	'08년	24	21	16	20	18	21	28	21	21	19	20	20
	'09년	20	20	20	16	19	22						

주) 유지방은 전국 평균성적. 체세포수, 세균수는 낙농진흥회 소속낙농가 평균성적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회

6. 체세포 등급분포 현황

▶ '09.6월 체세포 1등급 비율, 전년 동기 대비 3.5p 증가한 61.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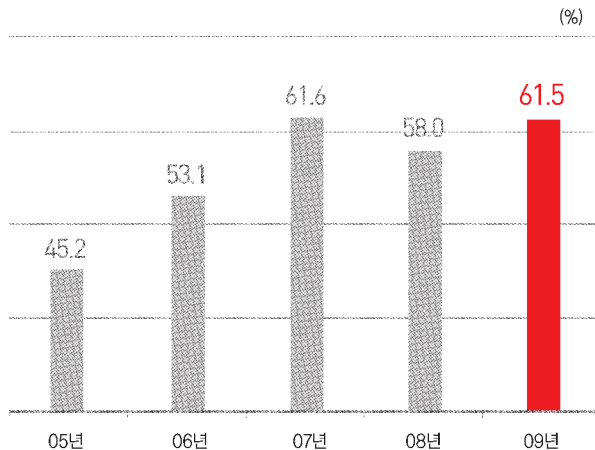
– 다소 이례적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완전히 회복

▶ '09.6월 체세포수 35만미만(1·2등급)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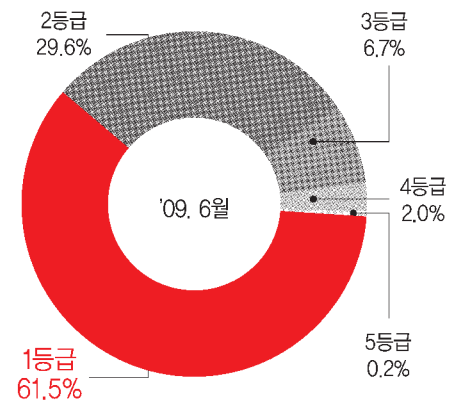
– 1등급 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

– 지난해 3월 이후 전년대비 지속 떨어졌던 1등급 비율이 6월들어부터 개선

▶ 년도별 평균 체세포수 1등급



▶ 체세포수 등급비율



▶ 년도별 체세포수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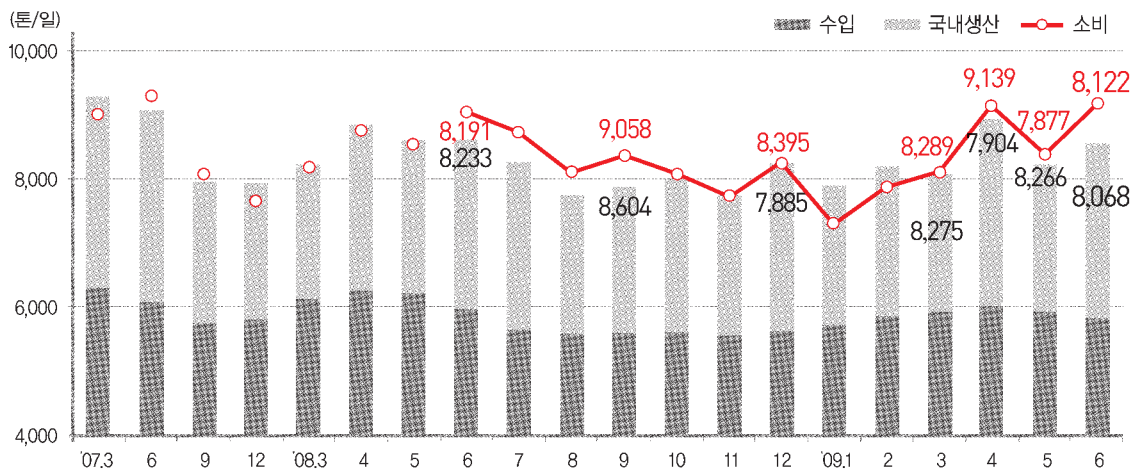
(천개/ml)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42.6	41.5	43.1	45.8	46.9	45.2	38.7	32.6	37.6	43.2	48.5	49.0
'06년	45.6	47.6	50.2	53.2	55.4	53.1	48.0	41.9	46.9	51.9	53.9	54.5
'07년	55.6	56.2	57.7	62.9	64.0	61.6	57.5	51.6	51.6	56.8	60.1	59.6
'08년	59.0	56.9	60.6	62.2	63.7	58.0	51.4	46.5	53.2	57.1	60.7	60.9
1등급	57.3	54.6	57.7	61.5	63.4	61.5						
2등급	30.3	31.7	30.2	28.9	27.9	29.6						
'09년 3등급	9.0	9.6	8.7	7.2	6.6	6.7						
4등급	3.0	3.6	3.1	2.2	2.0	2.0						
5등급	0.4	0.5	0.3	0.2	0.1	0.2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7. 분기별 원유수급동향

- ▶ '09. 2/4분기 총 원유공급, 전년대비 1.2% 감소한 780.5천톤
 - 국내생산은 3.7% 감소, 수입은 4.8% 증가
 - 생산의욕 저하에 따른 착유두수 감소 등에 기인
- ▶ 총 소비(국내소비 및 수출)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809.4천톤
 - 국내소비는 1.2% 증가, 수출은 0.6% 증가
 - 유업계 마케팅,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소폭 개선
- ▶ 기말재고량, 전년동기대비 33.4% 감소한 94천톤

월별 원유수급



분기별 원유수급

(톤)		'08.2/4	'08.3/4	'08.4/4	'09.1/4	'09.2/4	증감	
							전년동기	전분기
이 월		150,413	141,008	100,488	96,342	122,900	-18.3	27.6
공급	국내생산	560,326	516,496	515,372	526,081	539,725	-3.7	2.6
	수입	229,796	217,442	220,656	199,371	240,724	4.8	20.7
	계	790,122	733,938	736,028	821,794	780,449	-1.2	-5.0
소비	국내소비	786,551	762,486	725,193	678,405	796,337	1.2	17.4
	수출	12,976	11,972	14,981	20,489	13,049	0.6	-36.3
	계	799,527	774,458	740,174	698,894	809,386	1.2	15.8
재고		141,008	100,488	96,342	122,900	93,963	-33.4	-23.5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회

8. 분유재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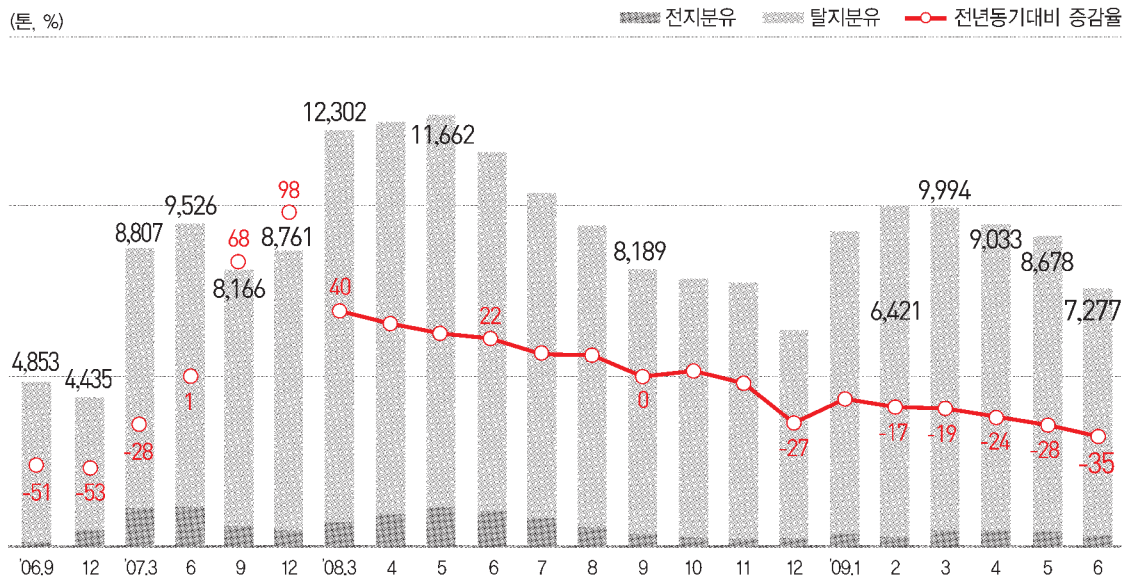
▶ '09. 6월 분유재고 7,63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4.5% 감소

- 성수기 분유사용량 확대와 원유생산 감소세의 영향
-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16.5% 감소

▶ 원유환산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33.4% 감소한 94천톤

- 탈지분유는 전년대비 31% 감소, 전지분유는 68.5% 감소

🔴 월별 분유재고



🔴 분기별 분유재고

(톤)	'08. 6	'08. 9	'08. 12	'09. 1	'09. 2	'09. 3	'09. 6	증감	
								전년동기	전월
전지분유	1,144	450	259	365	407	486	360	-68.5	-25.9
탈지분유	10,518	7,739	6,162	8,941	9,694	9,508	7,277	-30.8	-23.5
계	11,662	8,189	6,421	9,306	10,101	9,994	7,637	-34.5	-23.6
원유환산량	141,008	100,488	79,183	114,805	124,567	122,900	93,963	-33.4	-23.5

출처 : 한국유가공협회

9. 주요 유제품 수출입동향

▶ 2/4분기 탈지분유, 버터, 치즈 수입량 증가세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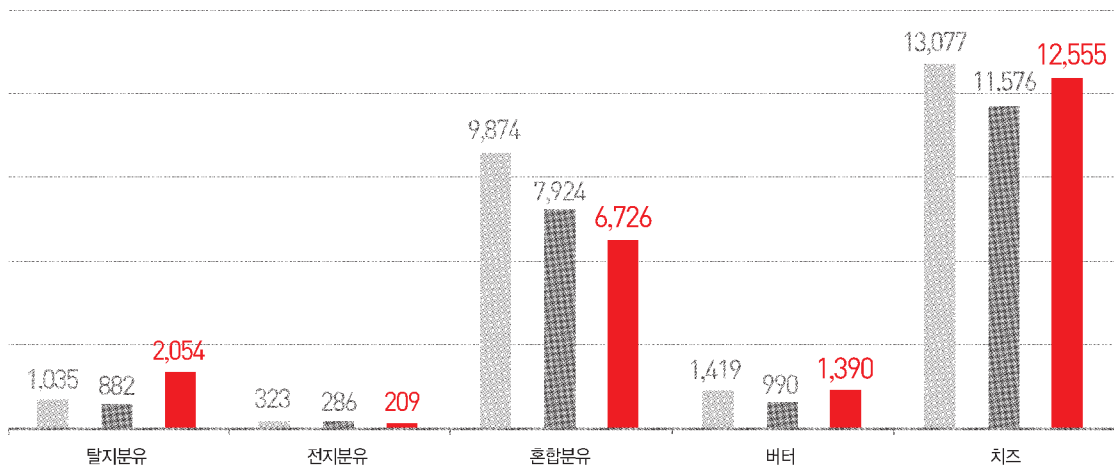
- 전년동기대비 탈지분유(133%↑)와 버터(40.4%↑)는 크게 증가, 치즈(8.4%↑)도 소폭 증가
- 수출호조에 따른 수출 원료용 수입량 증가

▶ 반면, 전지분유(27%↓)와 혼합분유(15.1%↓)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④ 연도별 주요 유제품 수입량

■ 07년 ■ 08년 ■ 09년

(톤, 2/4분기 누적기준)



④ 분기별 주요 유제품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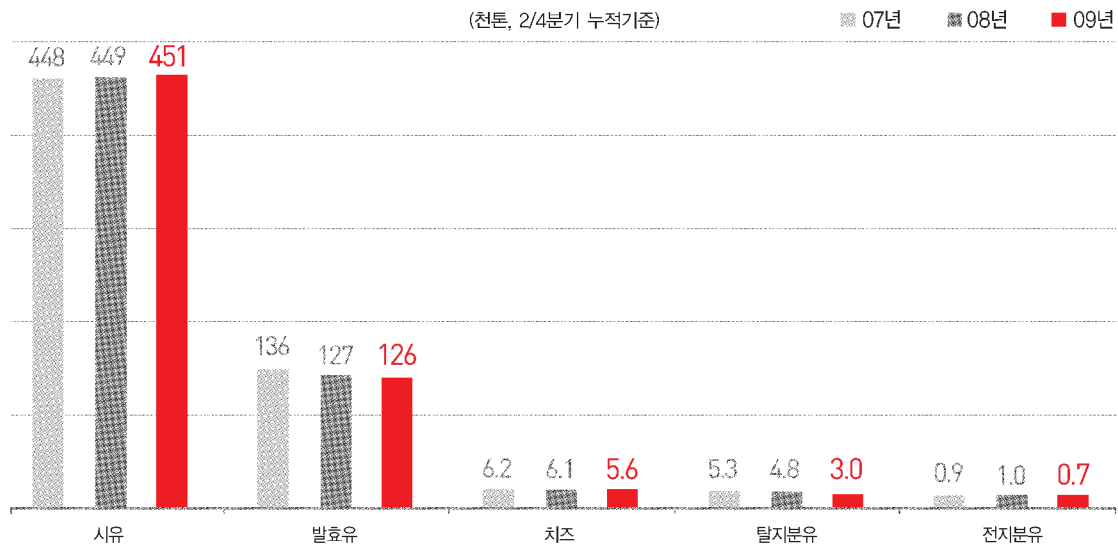
(톤)	'08.2/4	'08.3/4	'08.4/4	'09.1/4	'09.4월	'09.5월	'09.6월	'09.2/4	증감	
									전년동기	전분기
탈지분유	882	1,409	1,985	2,218	570	664	820	2,054	132.9	-7.4
전지분유	286	268	304	354	67	51	91	209	-27.0	-41.0
혼합분유	7,923	7,699	5,144	4,510	2,548	1,735	2,443	6,726	-15.1	49.1
버터	990	638	560	866	360	192	838	1,390	40.4	60.5
치즈	11,581	10,260	12,360	10,745	4,679	3,893	3,983	12,555	8.4	16.8
유장	8,105	8,195	6,843	7,373	2,196	2,689	2,801	7,686	-5.2	4.2

출처 : 관세청

10. 주요 유제품 생산동향

- ▶ 2/4분기 시유생산,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0.5% 증가한 451천톤
 - 지난해 침체에 대한 회복세가 소폭증가의 원인
- ▶ 같은 기간중 발효유 생산,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4% 감소
 - 호상 발효유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5.1% 증가
- ▶ 분유 생산,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6.1% 감소
 - 원유생산 감소에 따른 잉여량 감소가 주원인
- ▶ 치즈생산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8.7% 감소
 - 환율하락으로 수입은 8.4% 증가, 국내생산은 감소

▶ 연도별 주요 유제품 생산량



▶ 분기별 주요 유제품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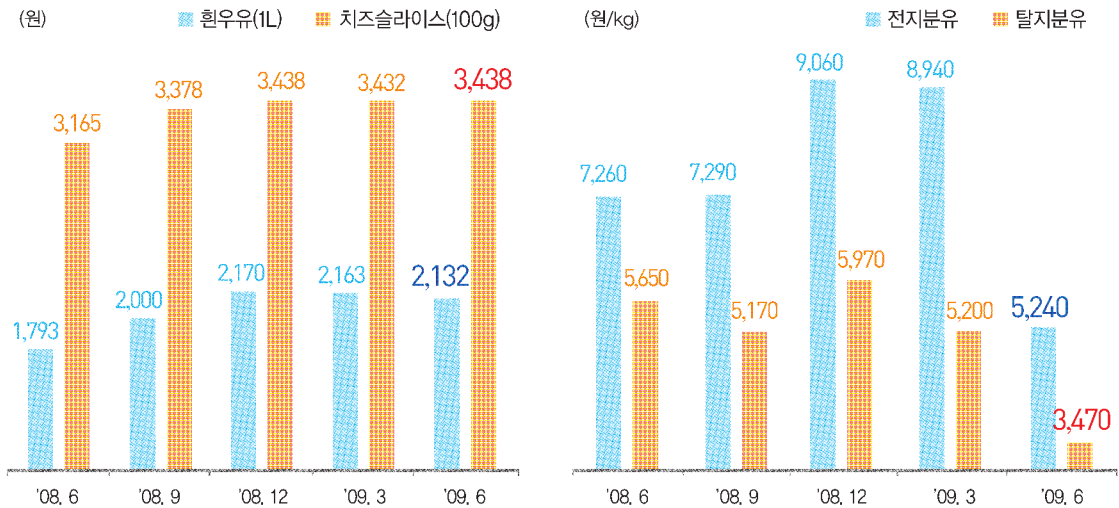
(톤)	'08,2/4	'08,3/4	'08,4/4	'09,1/4	'09,4월	'09,5월	'09,6월	'09,2/4	증감	
									전년동기	전월
시유	448,522	446,885	417,695	382,640	147,556	150,136	152,969	450,661	0.5	1.9
발효유	127,347	116,889	103,131	105,717	42,528	41,699	41,314	125,541	-1.4	-0.9
치즈	6,147	5,950	6,692	6,485	1,903	1,834	1,875	5,612	-8.7	2.2
탈지분유	4,767	3,068	4,558	5,756	1,574	967	498	3,039	-36.2	-48.5
전지분유	1,044	364	674	1,276	319	313	40	672	-35.6	-87.2
버터	581	617	786	1,385	273	202	180	655	12.7	-10.9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11. 주요 유제품 유통가격

- ▶ 6월 유제품 소비자가격은 전분기 수준 유지
 - '08. 9월 가격인상 이후 변동 폭 미미
- ▶ 분유 소매가격, 전분기 대비 3.3% 상승
- ▶ 흰우유 1L, 2,132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하락
- ▶ 원료용 전·탈지분유 가격, 대폭 하락
 - 전분기 대비 전지분유 41.4% 하락, 탈지분유 33.3% 하락
 - 국제가격 및 환율하락에 기인

◉ 월별 주요 유제품 유통가격



◉ 분기별 주요 유제품 유통가격

(원)			'08. 6	'08. 9	'08. 12	'09. 3	'09. 6	증감	
								전년동기	전분기
소매용	시판우유	200ml	464	624	628	599	597	28.7	-0.3
	분유	800g	21,452	21,307	21,767	21,076	21,775	1.5	3.3
	치즈슬라이스	200g	3,165	3,378	3,438	3,432	3,438	8.6	0.2
	흰우유	1L	1,793	2,000	2,170	2,163	2,132	18.9	-1.4
원료용	전지분유	kg	7,260	7,290	9,060	8,940	5,240	-27.8	-41.4
	탈지분유	kg	5,650	5,170	5,970	5,200	3,470	-38.6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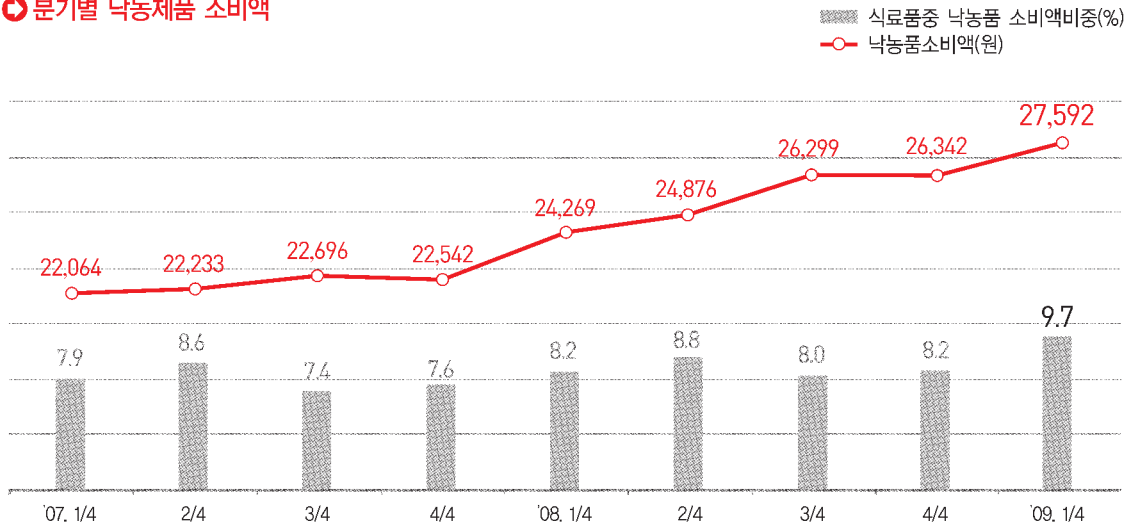
주) 원료용 유제품 가격은 수입유제품을 관세 및 제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 판매가격임

출처 : 통계청, 낙농진흥회

12. 소득별 유제품 소비동향

- ▶ '09.1/4분기 소비지출중 식품 소비액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3.5% 하락
 -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지출 위축세 반영
- ▶ 낙농품 소비액,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27,592원
 - 유제품 가격인상이 주요인이며 인상액 제외시 실질적 감소세
- ▶ 식품중 낙농품 소비액 비중 9.7%
 - 전년동기 8.2% 대비 1.5p 상승
 - 소득별로는 3분위가 가장 큰 폭 상승(전년동기대비 21.4%)

❶ 분기별 낙농제품 소비액



❷ 분기별 낙농품 소비액 및 소득별 낙농품 비중

(원, %)		'08. 1/4	'08. 2/4	'08. 3/4	'08. 4/4	'09. 1/4	전년동기 증감
식품 소비액		295,814	281,268	328,663	320,672	285,595	-3.5
낙농품 소비액		24,269	24,876	26,299	26,342	27,592	13.7
소득별 식품중 낙농품 비중	1분위	7.4	8.0	7.0	6.7	8.3	12.2
	2분위	8.4	8.9	8.0	8.4	9.7	15.5
	3분위	8.4	9.3	8.5	8.8	10.2	21.4
	4분위	8.5	9.1	8.4	8.5	10.2	20.0
	5분위	8.1	8.8	7.9	8.3	9.5	17.3
평균		8.2	8.8	8.0	8.2	9.7	18.3

주) 소득이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분위임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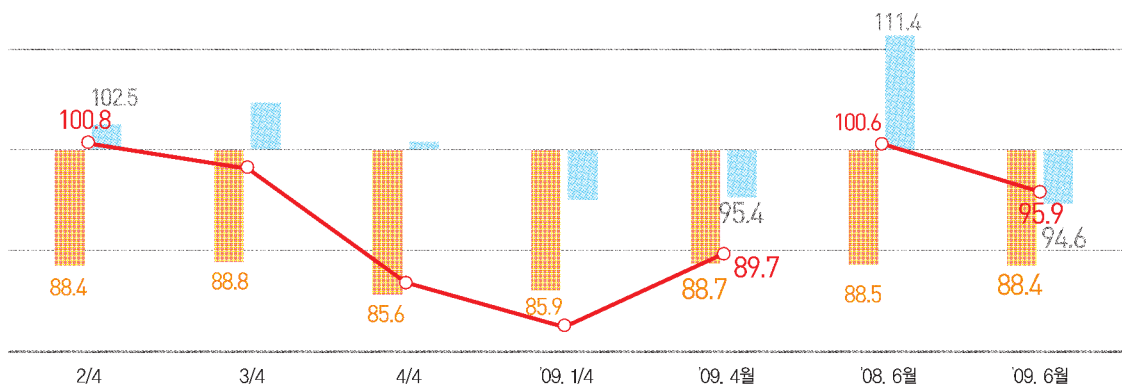
13. 유가공업계 가동률

- ▶ '09.1/4분기 낙농제품 제조업 가동률지수 85.9로 전년동기대비 5.3% 하락
 -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큰폭 하락(18.5% ↓)
 - 식료품 제조업(8.6% ↓), 곡물가공제조업(6.1% ↓), 음료제조업(7.5% ↓) 또한 동반하락
- ▶ '09.6월 낙농제품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전년수준 유지
 - 제조업 6월 가동률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67% 감소한 95.9 기록
 - 음료제조업 6월 가동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한 94.6 기록

❖ 분기별 낙농품 및 제조업 가동률(지수)

(2005=100)

■ 낙농제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제조업



❖ 분기별 제조업 가동률지수

(2005=100)	2008					1/4	2009				증감	
	1/4	6월	2/4	3/4	4/4		4월	5월	6월	전년동기	전년동월	
제조업	101.4	100.6	100.8	98.2	86.9	82.6	89.7	91.4	95.9	-18.54	-4.67	
식료품제조업	102.7	100.0	99.9	97.9	94.5	93.9	97.4	95.0	100.5	-8.6	0.5	
낙농제품등제조업	90.7	88.5	88.4	88.8	85.6	85.9	88.7	86.2	88.4	-5.3	-0.1	
곡물가공등제조업	96.9	88.3	89.7	81.9	84.8	91.0	96.4	93.1	98.3	-6.1	11.3	
음료제조업	102.7	111.4	102.5	104.7	100.7	95.0	95.4	91.7	94.6	-7.5	-15.1	

주) 가동률은 계절조정지수임

출처 : 통계청

14. 유음료 및 음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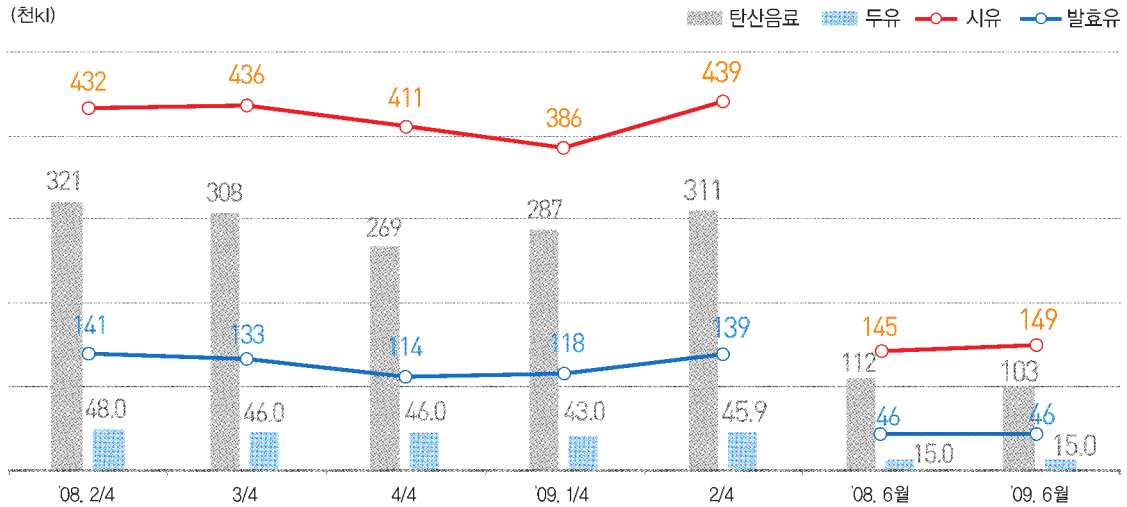
▶ '09.1/4분기 시유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2.5%↑), 발효유 출하량은 감소(2.7↓)

- 탄산음료 출하량 3.1% 증가, 커피음료는 5.3% 증가
- 반면, 두유는 10.6% 감소

▶ '09.6월 시유 출하량은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발효유 출하량 0.2% 감소

- 탄산음료 출하량 8.8% 감소, 커피음료는 9.7% 증가, 두유는 2.1% 감소

❶ 분기별 음료 및 유음료 출하량



❷ 낙농제품 및 음료 출하량

(kl)		2008					1/4	2009				증감	
		6월	1/4	2/4	3/4	4/4		4월	5월	6월	전년동기	전년동월	
유제품	시유	144,705	376,343	431,541	436,237	411,119	385,902	143,882	146,340	148,938	2.5	2.9	
	유산균발효유	46,173	121,064	140,863	133,029	114,380	117,821	47,311	45,810	46,063	-2.7	-0.2	
기타	탄산음료	112,415	278,826	321,113	308,282	269,461	287,481	102,032	106,542	102,502	3.1	-8.8	
	커피음료	15,477	36,003	40,331	53,940	44,884	37,908	14,441	15,218	16,971	5.3	9.7	
	두유	15,250	47,852	47,884	46,297	45,878	42,778	15,942	15,071	14,931	-10.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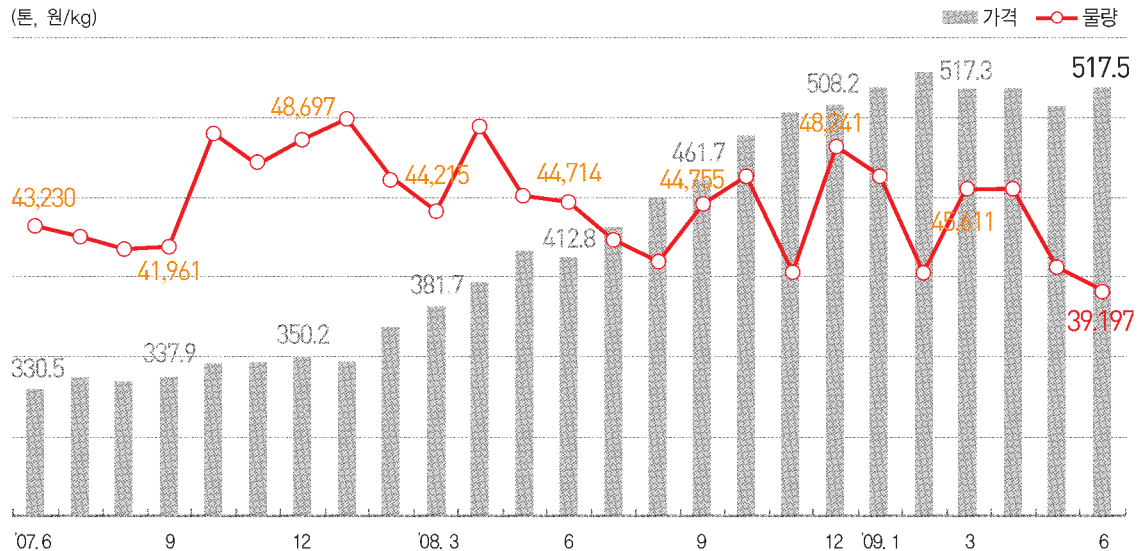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15. 사료 수입 및 배합사료 생산동향

- ▶ '09.2/4분기 낙농용 배합사료, 전년동기대비 4.2% 감소 33만톤 생산
 - 배합사료 전체는 2.5% 증가한 413만톤 생산
 - 착유두수 감소 등 낙농분야 위축세 반영
- ▶ 낙농 비유초기 사료,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한 125천톤 생산
 - kg당 가격은 6월기준 517.5원으로 전분기 수준
- ▶ 2/4분기 옥수수 수입, 전년동기대비 13.9% 감소한 1,846천톤

월별 비유초기 사료 생산량 및 가격

(톤, 원/kg)



분기별 사료 수급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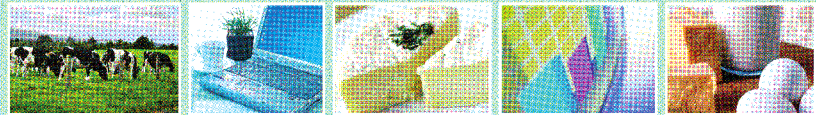
(톤, 원/kg)	'08. 2/4	'08. 3/4	'08. 4/4	'09. 1/4	'09. 2/4	증감	
						전년동기	전분기
배합사료총량	4,025,952	3,859,850	4,119,469	3,841,920	4,127,106	2.5	7.4
- 낙농용사료	341,525	323,535	341,460	325,506	327,157	-4.2	0.5
(비유초기사료)	139,323	128,091	134,953	132,389	125,487	-9.9	-5.2
(비유초기 가격)	412.8	461.7	508.2	517.3	517.5	25.4	0.0
옥수수	2,144,269	1,834,110	1,419,081	986,986	1,846,224	-13.9	87.1
대두박	470,647	437,301	547,505	376,010	617,292	31.2	64.2

주) 가격은 3, 6, 9, 12월 가격임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Ⅲ

해외 낙농산업 동향



낙농산업동향 | Korea Dair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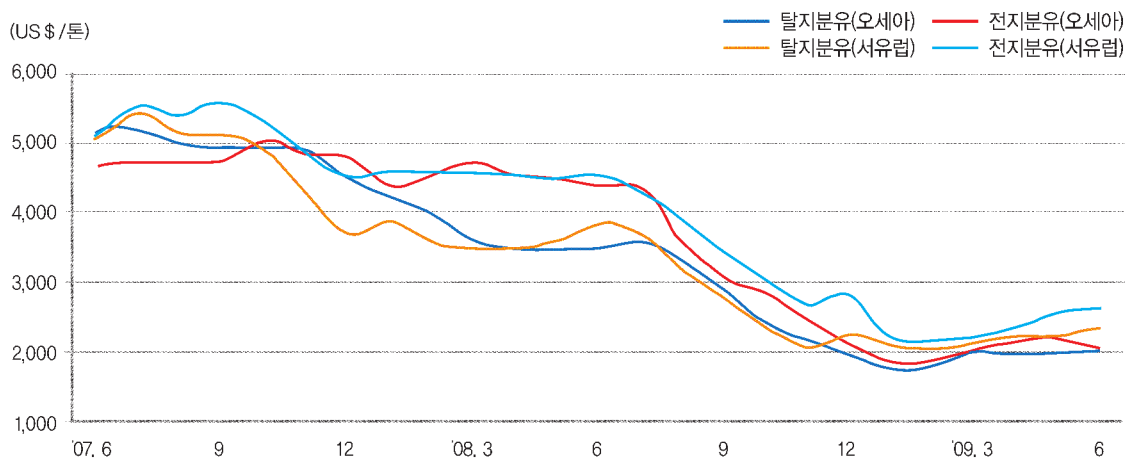
1. 국제 낙농산업 및 가격동향
 - 가. 국제 유제품 수출가격 동향
 - 나. 주요국 유제품 유통시세(월간)
2. 주요국 낙농 동향
 - 가. 미국
 - 나. EU
 - 다. 일본
 - 라. 중국
 - 마. 호주
3. 국제 곡물 작황 및 가격동향
 - 가. 국제 곡물 선물(CBOT) 시세
 - 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축산물 선물시세
 - 다. 국제기상 및 곡물 작황

1. 국제 낙농산업 및 가격동향

가. 국제 유제품 수출가격 동향

- ▶ '09.2/4분기에 소폭 상승
 - 서유럽산은 다소 상승, 오세아니아산은 강보합세
- ▶ 분유 가격, 최저점 찍은듯
 - 서유럽산, 오세아니아산 분유 모두 2천불선에서 최저 지지선 형성
- ▶ 체다치즈 소폭 상승
 - 전분기대비 7.3% 상승, 톤당 2,575\$

① 월별 유제품 수출가격



② 분기별 유제품 수출가격

(US\$/톤)		2007		2008				2009		증감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전년동기	전분기
서유럽	탈지분유	5,150	3,700	3,500	3,850	2,763	2,250	2,138	2,344	-39.1	9.6
	전지분유	5,600	4,525	4,613	4,550	3,400	2,838	2,225	2,638	-42.0	18.6
오세아 니아	탈지분유	4,950	4,500	3,600	3,500	2,850	1,950	2,000	2,013	-42.5	0.7
	전지분유	4,750	4,800	4,750	4,400	3,050	2,100	2,050	2,050	-53.4	-
체다치즈		4,950	5,500	5,075	5,050	4,250	3,150	2,400	2,575	-49.0	7.3

주) 가격은 해당월의 저,고점가격의 평균가격임

출처 :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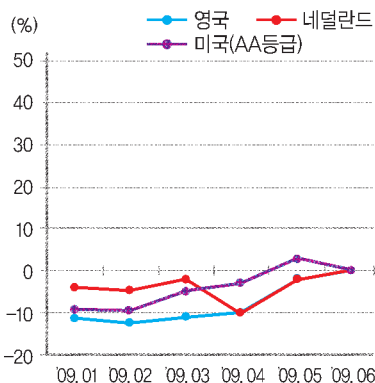


나. 주요국 유제품 유통시세(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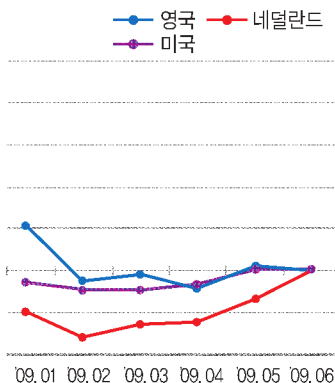
- ▶ '09.2/4분기 대부분 유제품 강보합세 유지
 - 특히, 버터와 탈지분유의 상승폭 크게 나타나
- ▶ 전·탈지분유 하락세 접고 상승세로 전환한 듯
 - 대부분의 시장에서 상승세로 전환, 추가 상승여지 보여
- ▶ 치즈 가격은 국가별로 소폭의 변동만 있을뿐
 - 영국, 독일 치즈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미국은 소폭 하락

주별 유제품 유통시세 등락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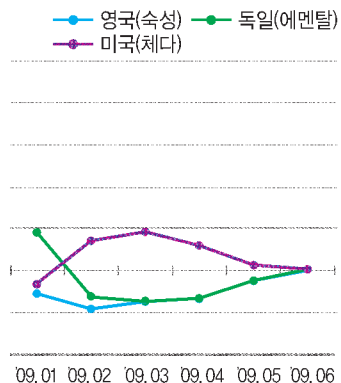
【 버터 】



【 탈지분유 】



【 치즈 】



주별 유제품 유통시세

(US\$/톤)		2008	2009						증감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	전월
버터	영국	3,579	2,533	2,497	2,544	2,563	2,773	2,837	-20.7	2.3
	네덜란드	4,295	2,733	2,714	2,791	2,865	2,986	3,124	-27.3	4.6
	미국(AA등급)	3,321	2,465	2,459	2,584	2,636	2,790	2,701	-18.7	-3.2
전지	뉴질랜드	4,463	2,017	1,851	2,158	2,235	2,144	1,886	-57.7	-12.0
탈지분유	영국	3,297	2,255	1,982	2,020	1,971	2,054	2,032	-38.4	-1.1
	네덜란드	3,579	1,867	1,741	1,800	1,814	1,931	2,060	-42.4	6.7
	미국	3,156	1,791	1,758	1,756	1,781	1,837	1,834	-41.9	-0.2
치즈	영국(숙성)	5,135	3,933	3,777	3,848	3,877	4,040	4,133	-19.5	2.3
	독일(에멘탈)	5,914	5,067	4,353	4,305	4,337	4,520	4,624	-21.8	2.3
	미국(체다)	4,471	2,433	2,695	2,751	2,665	2,545	2,505	-44.0	-1.6

주) 가격은 해당주의 저,고점가격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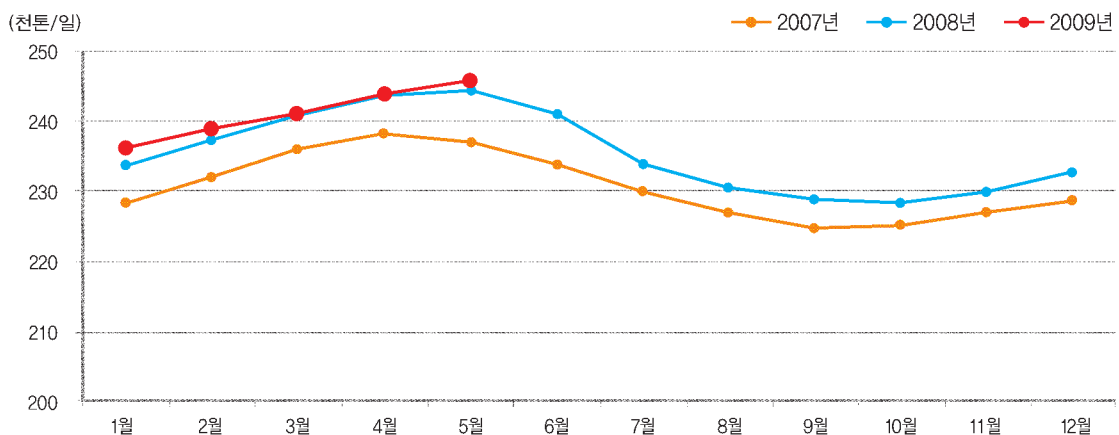
출처 : ZMP

2. 주요국 낙농 동향

가. 미국

- ▶ '09.5월까지 우유 생산량, 전년과 같은 수준인 36,412천톤
 - 사육두수, 927만두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유제품 생산량,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반적인 감소세
 - 전지분유는 전년대비 8.3% 감소
- ▶ 유제품 가격, 국제가격 하락과 맞물려 하락세 지속
 - 5월 체다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14\$, 탈지분유는 0.84\$로 30%대 하락

● 월별 우유생산량



● 분기별 낙농산업 동향

(천두, 천톤, \$/pound)		2008				2009		증감	
		년간	1/4	4월	5월	1/4	4월	5월	전년동기간
착유두수		9,254	9,250	9,270	9,318	9,295	9,281	9,269	0.5
우유생산량		86,179	21,563	7,309	7,578	21,483	7,317	7,612	-0.4
유제품 생산	치즈	4,463	1,104	367	377	1,118	383	390	1.3
	버터	749	213	68	65	212	65	63	-0.5
	탈지분유	857	221	77	79	217	74	80	-1.7
	전지분유	22.7	4.8	1.9	2.2	4.4	0.9	2.1	-8.3
유제품 가격	체다치즈	1.65	5.63	1.85	2.07	3.56	1.25	1.14	-36.8
	버터	1.15	3.72	1.37	1.48	3.33	1.16	1.25	-10.5
	탈지분유	0.83	3.97	1.26	1.34	2.47	0.82	0.84	-37.8

주) 1. 체다치즈는 40파운드 블록 체다치즈기준임

2. 연간 유제품 가격은 12월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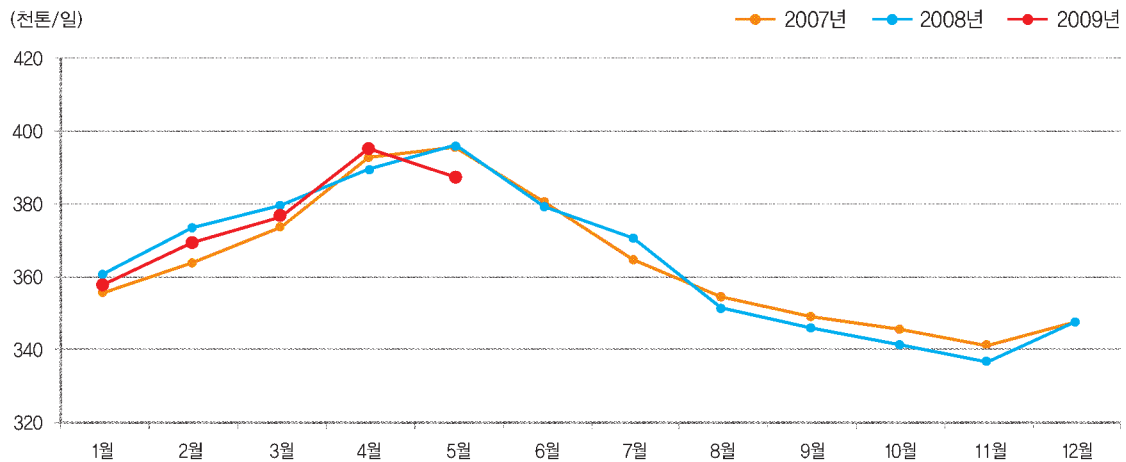
출처 : NASS, USDA



나. EU

- ▶ 5월까지 우유 생산량, 57,019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
 - 쿼터 증량에도 수익성 악화로 원유생산 감소폭 증가
- ▶ 같은기간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생산량 전년동기대비 큰폭 감소
 - 음용유 생산은 12,728천톤으로 7.9%대 감소
- ▶ '09.5월 유제품생산 탈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제품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지분유 생산, 전년동월비 64.6% 감소

월별 우유생산량



분기별 낙농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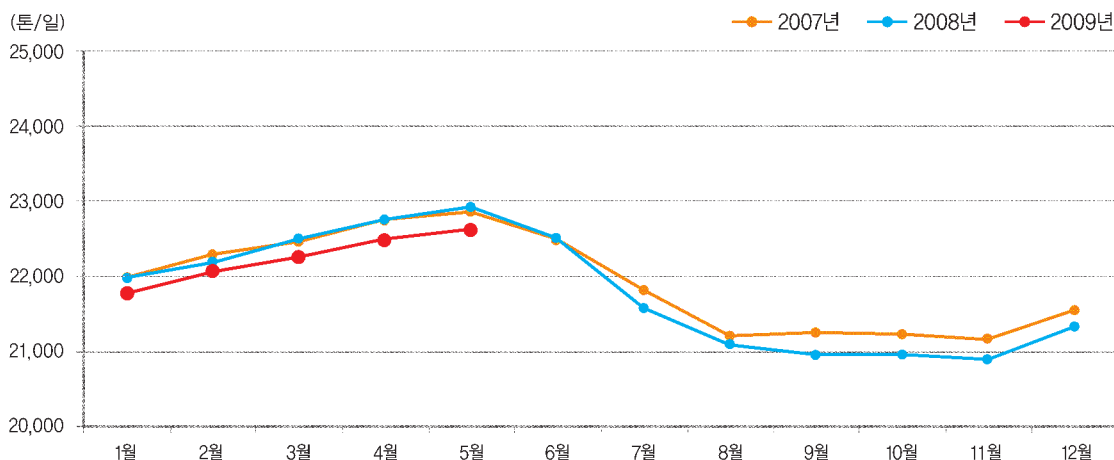
(EU27, 천톤)		2008				1/4	2009		증감	
		년간	1/4	4월	5월		4월	5월	전년동기간	전년동월
우유생산량		144,141	33,754	11,691	12,278	33,133	11,866	12,020	-1.8	-2.1
유제품 생산	음용유	31,835	8,406	2,695	2,718	7,701	2,582	2,445	-8.4	-10.0
	치즈	8,216	2,038	702	716	1,976	687	655	-3.0	-8.5
	버터	1,935	500	179	174	519	172	159	3.8	-8.8
	탈지분유	851	259	67	71	228	92	97	-11.6	36.6
	전지분유	676	219	82	90	106	39	32	-51.4	-64.6

출처 : EUROSTAT

다. 일본

- ▶ 5월까지 원유생산량, 336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
 - 낙농경영수지 악화로 소비침체 등이 요인
- ▶ '09.5월 우유생산자 가격, kg당 89.4엔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상승
- ▶ 유제품 생산,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
 - 1/4분기 탈지분유생산,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42천톤
 - 1/4분기 음용류생산,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917천톤

월별 우유생산량



분기별 낙농산업 동향

(톤, yen/10kg)	2008					2009		증감	
	년간	1/4	4월	5월	1/4	4월	5월	전년동기간	전년동월
우유생산량	7,981,942	2,021,790	683,515	710,339	1,983,939	675,069	701,772	-1.9	-1.2
음용유	3,952,875	949,986	321,669	338,960	916,794	311,284	327,730	-3.5	-3.3
전지분유	13,543	4,364	1,501	1,496	4,395	1,363	1,223	0.7	-18.2
탈지분유	158,085	48,056	15,149	15,030	42,285	15,213	15,321	-12.0	1.9
치즈	71,696	29,192	11,220	9,576	27,727	11,317	9,345	-5.0	-2.4
버터	118,349	22,216	7,091	7,207	22,274	7,626	7,604	0.3	5.5
우유생산자 가격	822	780	771	822	834	878	894	6.9	8.8

주) 우유생산량은 천톤, 음용유는 천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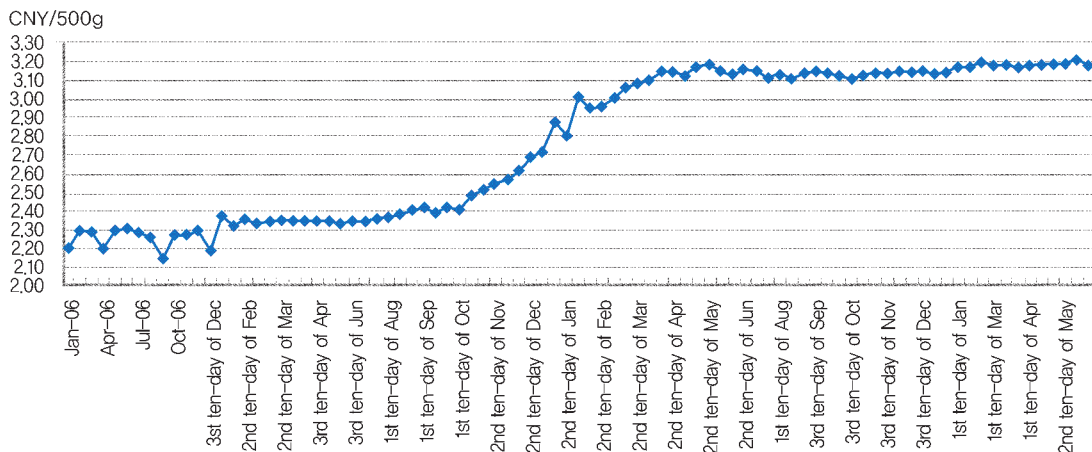
출처 : 농림수산성



라. 중국

- ▶ 금년 5월까지 유제품 생산량, 7,530천톤으로 전년수준 유지
 - 시유는 6,298천톤으로 전년대비 7% 증가, 분유제품은 1,232천톤으로 19% 감소
 - 멜라민사태의 여파로 중국산 분유의 신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 원유평균가격(5월), 2.41위안(주요 10개지역)
 - 전년대비 14.07% 낮은 수준
 - 낙농경영수익 악화, 특히 소규모 낙농가들이 더욱 어려움 겪어
- ▶ 유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70.83% 급증, 자국유제품 기피 여전
 - 주로 분유와 유청분말 수입 급증이 원인
 - 수출은 2008년 5월이후 감소세 지속

시유 소매가격 동향 (2006~2009)



2009. 2/4분기 주요 유제품 수입 현황

(톤)	2009(1~5월)	전년동기(%)
시유 및 크림	5,575	112.40
분유류	107,638	154.94
(탈지분유)	(26,011)	3.25
(전지분유-설탕첨가)	(80,717)	415.38
(전지분유-설탕미첨가)	(469)	-49.34
요구르트	608	139.92
유청분말	113,627	34.61
버터 및 버터오일	8,764	50.29
치즈	5,523	-10.40
합계	241,735	70.83

마. 호주

▶ 5월까지 원유생산량,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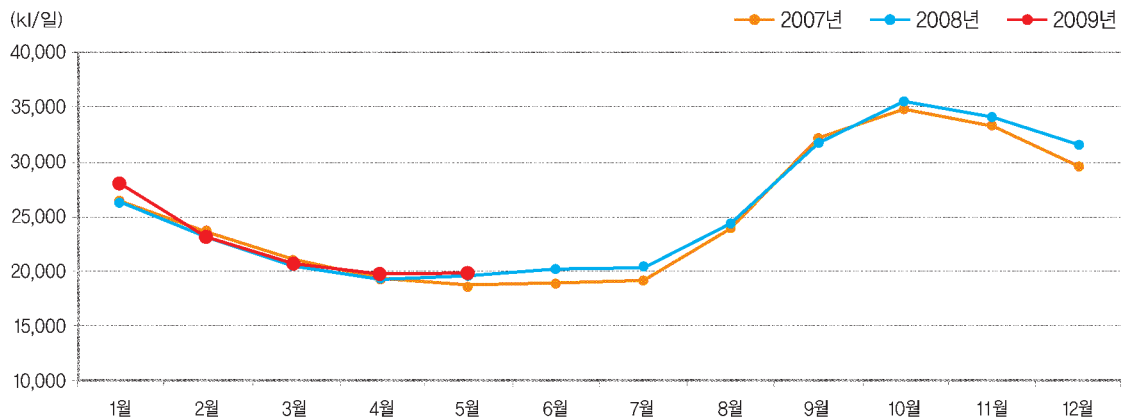
- 기상여건 호조에 따라 연간 생산량은 1.9% 증가한 9.4백만톤 전망

▶ 같은기간 유제품 생산, 치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증가

- 특히, 탈지분유는 전년동기간 대비 54.6% 증가

- 치즈는 계절적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전년대비 생산량 6.8% 감소

④ 월별 우유생산량



④ 분기별 낙농산업 동향

(백만리터, 톤)		2008				2009		증감	
		년간	1/4	4월	5월	1/4	4월	전년동기간	전년동월
원유생산량		9,355	2,114	577	610	2,153	593	1.8	0.7
유제품 생산	버터	91,677	18,838	4,779	4,696	20,475	6,110	8.7	13.5
	탈지분유	188,709	24,608	7,505	6,161	38,042	9,786	54.6	68.9
	치즈	343,037	90,707	23,062	23,057	84,495	18,089	-6.8	-16.4
	전지분유	135,839	25,452	5,047	6,856	28,643	9,736	12.5	83.4

출처 : Dairy Australia

3. 국제 곡물 작황 및 가격동향

가. 국제 곡물 선물(CBOT) 시세

▶ 주요 국제 곡물가격, 대두를 제외하고 6월들어 하락세

- 대두는 전분기 대비 28.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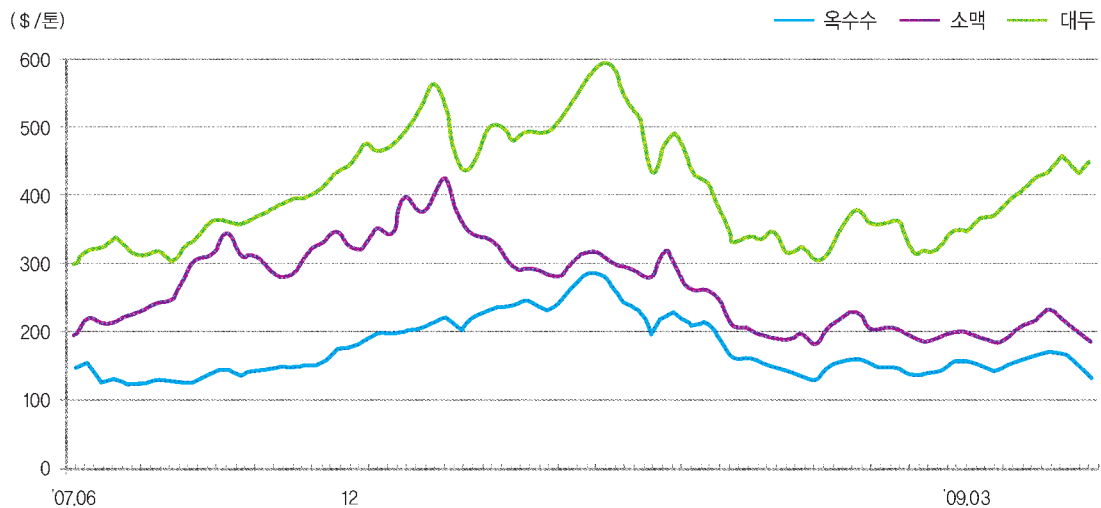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하락안정세 유지

- 옥수수는 52.9% 하락한 톤당 137달러

- 소맥은 40.5% 하락한 톤당 188달러

- 대두는 23.6% 하락한 톤당 451달러

🔴 국제 곡물 선물시세



🔴 분기별 국제 곡물 선물시세

(\$/톤)	2007	2008					2009	증감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5월		전년동기	전분기
옥수수	179.3	223.3	290.4	191.9	160.2	159.3	171.7	136.9	-52.9	-14.1
소맥	325.2	341.3	315.5	249.9	224.4	195.7	234.1	187.8	-40.5	-4.0
대두	446.1	439.9	589.7	384.0	357.2	349.8	435.0	450.5	-23.6	28.8

주) 1. 시세는 매월 마지막주 종가기준임

2. 1bushels - 옥수수 : 25.401kg, 대두,소맥 : 27.216kg

출처 : CBOT

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축산물 선물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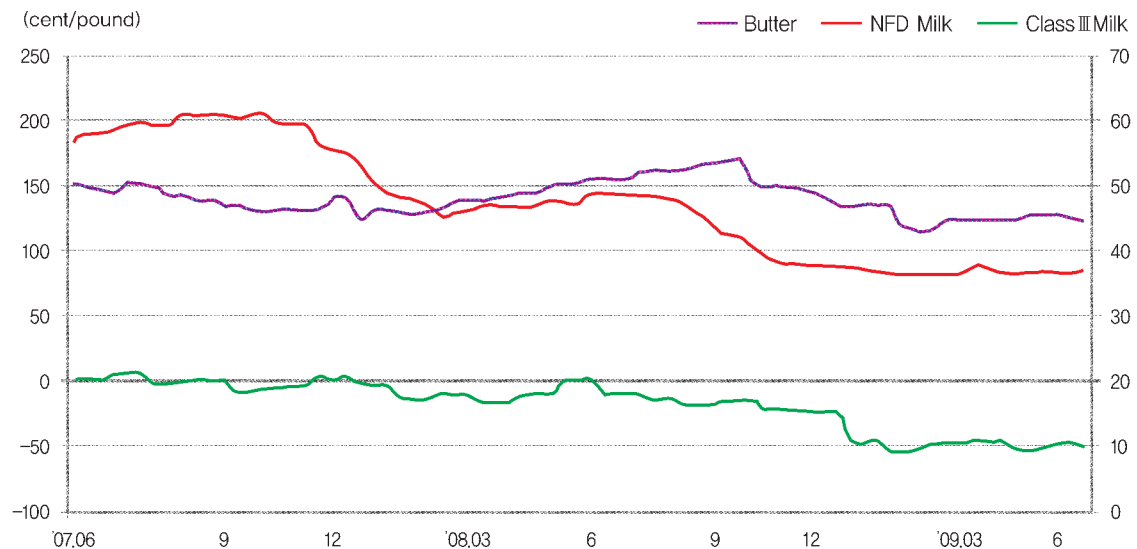
▶ '09. 6월 우유 유제품 선물가격, 약 보합세 보여

- 버터 가격, 전월 대비 0.8% 하락하여 파운드당 122센트 기록
- 탈지분유, 3% 상승한 파운드당 84.5센트 기록
- 가공유 가격, 전분기 대비 5.1% 하락한 파운드당 9.9센트로 마감

▶ 6월 축산물 시세, 보합세 나타내

- 생우, 전분기대비 1.6% 상승한 파운드당 85.3센트 기록
- 돼지고기, 전분기 대비 2.8% 하락한 파운드당 58.7센트에서 거래

➡ 축산물 선물시세



➡ 분기별 축산물 선물시세

(cent/pound)		2008				2009		증감	
		3월	6월	9월	12월	1월	3월	6월	전년동기
우유 유제품	Class III milk	18.0	20.3	16.2	15.1	10.8	10.5	9.9	-51.1
	버터	138.5	155.8	168.0	135.0	134.0	123.0	122.0	-21.7
	NFD milk	130.0	144.5	118.0	87.0	84.0	82.0	84.5	-41.5
축산물	생우	87.6	103.4	98.9	86.1	82.0	83.9	85.3	-17.6
	돼지고기	66.3	70.9	68.6	60.9	58.6	60.4	58.7	-17.2

주) 매월 마지막주 기준

출처 : CME



다. 국제기상 및 곡물 작황

▶ 구소련 서부지역

– 평균 기온 상승, 전체적으로 건조

우크라이나동부와 러시아남부지역에 온건한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 밀과 봄 곡물 재배에는 이득이 되었다.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4~8℃ 높아져 최대 온도가 39℃ 까지 올랐다. 그 외 지역은 잦은 소나기(10~25mm 이상)로 증발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작물 생장에 충분한 습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러시아 불가남동지방에 온건한 날씨가 계속되어 봄 곡물 생장이 어렵게 되었다. 가벼운 소나기(10mm가량)는 벨라루스 지방의 봄 작물 파생에 도움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서부의 건조한 날씨는 겨울 곡물 재배에 도움이 되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소보다 2~4℃가량 높았다. 6월 우크라이나남동부 지방과 러시아 불가 지역은 평소보다 하얀 강우량을 보였으며 이는 겨울작물과 봄 파생 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건조한 날씨는 러시아 월말 겨울곡물 재배에 이롭게 작용했다. 남북부 지방과 불가 남동 지역은 35℃를 웃돌며 최대기온을 기록했고 비(25mm가량)는 거의 오지 않는 등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기후 조건은 더 취약한 조건을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서부의 봄 가뭄에 습한 여름이 잇따라 겨울 곡물 및 여름작물 상태를 호전시켰다.

▶ 유럽

– 중북부 유럽, 많은 비로 여름작물 호조, 이베리아 반도는 건조한 날씨
이베리아 반도와 발칸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북유럽에 한랭 전선이 생기며 영국, 프랑스, 폴란드 동부 지방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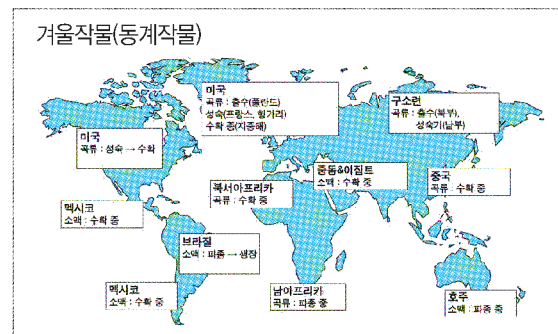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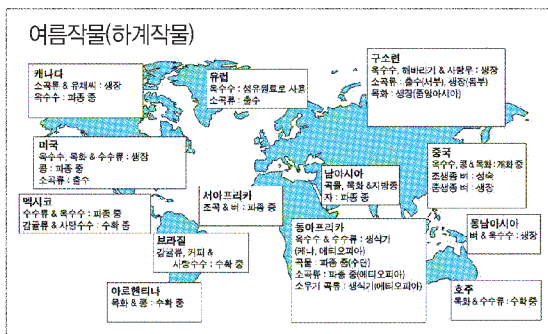
칸지역에 천둥폭풍과 비(10~90mm)가 내렸다. 평소보다 습한 기후 조건이 여름작물의 번식과 생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 때문인지 겨울작물의 재배가 조금 늦어졌다. 비는 헝가리 남부 지방과 시베리아 북부 지방, 루마니아 서북지역을 피해 갔다. 이로 6월말 소나기이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계속된 비로 이탈리아 지역 작물의 생식에 충분한 토양수분이 공급되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역시 우세였다. 이베리아 반도의 평소보다 온건한 날씨로 높은 옥수수요가 유지되었다. 최근 스페인 남북, 중부 지방의 농작물이 곤경에 처했다. 6월, 유럽 중부와 동부 지역의 평소보다 습한 날씨로 인해 겨울작물의 번식에 충분한 토양습도가 공급되었다. 반면 때 늦은 비는 봄 가뭄으로 이미 메마른 발칸지방의 곡물과 지방종자 생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부 지방에도 많은 소나기가 왔으나, 독일 서북 일부 지방은 가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온습한 날씨가 계속되어 겨울작물 재배에 대한 기대가 늘었다.

▶ 동아시아

– 태풍으로 중국의 토양에 수분 충전, 한국은 장마

남부의 온습한 공기와 북부의 냉건한 공기가 합류해 장마 전선이 중국 양쯔강 유역과 한반도에 걸쳐 형성되었다. 중국 북부 평원에는 주기적으로 소나기가 와 주간 25~10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산동과 허베이 지방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반면 허난, 안후이와 장쑤 지방은 지난 폭우에 이어 비교적 온건한 날씨가 계속 되었다. 북부 평원 지방은 온건한 날씨에 이은 장마철이 발달 후기에 다다른 여름작물의 빠른 생장을 도왔다. 이와 같이 건조한 날씨가 남부 쌀 재배 지역에 계속되어 재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자라고

<6월 곡물 작황표>



있는 생장에는 피해를 입혔다. 몰라베 태풍에 50~100mm가량의 비와 65노트의 바람이 불었다. 내륙 지방은 소량의 비로 사탕수수 생장에 도움을 주었다. 반면 만주리아에는 25~100mm가량, 리아오닝에는 10~25mm가량의 비가 왔다. 중국 기상청은 북동 지방의 높은 습도에 옥수수 해충과 질병발생이 잦아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홍수(400mm)에 시달렸다. 6월에는 중국 전체에 많은 비가 내려 토양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월말에는 소나기가 양초강 유역으로 옮겨가 여름 작물 생장에 도움을 주었다. 중국 북부는 계속된 온건한 날씨로 용수 수요가 늘었으며 7월 초, 비가 남부 초원지역으로 확산되어 5월에 가뭄에 이어 옥수수, 콩, 쌀 등의 생장을 도왔다.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열대성 폭풍우가 남부 해안 지역을 스쳐가며 사탕수수 재배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렸다.

▶ 동남아시아

– 계속된 폭풍우로 필리핀 지역 피해 확산

태국은 우기 철의 적당한 비(10~100mm)로 쌀과 옥수수 재배에 이득이 되었다. 반면 필리핀은 열대성 폭풍 몰라베가 루손 지역 전체로 확산되면서 최대 400mm의 비가 오는 등, 비가 줄은 후 옥수수와 쌀의 파종 재작업이 필요케 되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돌아오면서 수마트라 홍수가 물려가 재배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우기가 진정되어 태국과 베트남의 쌀 생장에 알맞은 토양습도가 마련되었다. 유월 말 열대성 태풍우 린파와 남카로 인해 필리핀중부와 북부 옥수수와 쌀 생장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팜유 재배 지방은 평소보다 건조한 날씨를 이어 충분한 비가 왔다.

▶ 호주

– 맑은 날씨, 알맞은 비로 재배 기대치 증가

호주 북부 지방과 뉴사우스웨일 주에 비(2~25mm)가 확산되어 겨울 작물과 지방 종자의 생장에 우호적인 조건이 계속 되었다. 호주 동남 지방의 강우량의 증가로 작물 생장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었으며 이로 오랜 가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 퀸스랜드 남부는 야외 작업에 유리한 건조한 성향을 보였으나 토양수분은 밀 생장에 충분했다. 호주 밀 지배지역의 기온은 무난한 계절성향을 보이며 평소치의 1°C내외를 웃돌았다. 6월에는 평소치를 웃도는 강우량으로 겨울 밀과 지방 종자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 비는 곡물 발아와 밀, 보리, 카놀라의 생장에 도움을 주었다.

▶ 멕시코

– 낮은 우기철, 전체적으로 온건한 날씨

두 주 동안 몇 차례에 나눠 가벼운 비가 내렸다. 25mm이상의 강우량이 보도된 지역은 몇 없으며 태평양 해안 남부 강우량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지역은 우기를 맞아 흩어진 소나기(25mm)가 계속되었다. 친화화 남부에는 내륙 지방보다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북동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온건(40°C)한 날씨로 여름작물과 목축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유월에는 서부 지방이 우기를 맞아 작물 생장과 목축에 필요한 수분이 확보되었으나 겨울 밀 재배를 늦추었다. 남부 고원 지대에 비가 확산되며 옥수수 재배지역과 남부 농장 지역이 낮은 우기 철을 맞았다. 리오그란데밸리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어 높은 용수 수요가 유지 되고 있으며 이에 겨울 수수의 재배가 앞당겨 질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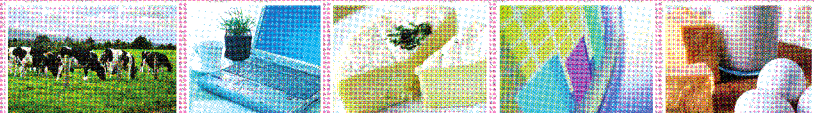
▶ 남미

– 브라질은 서늘하고 습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온건한 날씨

브라질남부 밀 재배 지역에 조금 낮은 양의 비가 계속되고 있다. 최대 강우량은 평균 25~50mm, 100mm를 넘는 지역도 있었으며 산타카타리나와 리오그란데도술, 파라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밀 생장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기온은 평소 수치의 1~2°C를 내외했다. 남부 곳곳에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 파라나 북부 지방과 마토그로소도술은 1~15mm의 비가 오는 등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계속된 비 후 더위는(최고 30°C) 작물생장에 도움이 되었다. 약간의 비(10mm)가 내려 상파울루와 미나스제라이스의 커피 재배 등 야외 작업에 방해가 되었으나 후에는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북부 해안 지역에서는 약한 비(10~25mm)가 계속되었다. 이에 브라질의 주 밀 생산지역의 겨울 재배 기대치가 높아졌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여름 재배에 도움을 주었으나 겨울 작물 생장에는 피해가 되었다. 유월 15~17일까지 영하 기온의 추운 날씨가 계속 되었으나 갑자기 평소보다 2~3°C 웃도는 기온으로 급상승했다. 6월의 가뭄은 중부 지방 여름 곡물과 지방종자의 재배에 도움이 되었지만 계속된 가뭄이 소맥 파종을 한정 시켰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때때로 비가 와 소맥 파종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외 지역은 정상적인 발아와 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북부 지방에서는 월말 많은 비(25~100mm)가 왔으며 차코의 목화 성숙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겨울 곡물과 목장에는 도움이 되었다.

IV

국내외 낙농 산업정보



낙농산업동향 Report by Country

1. 낙농핫이슈
2. 국내외 낙농 정보
3.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
4. IDF 동향



1. 낙농 핫이슈

호주 낙농산업의 혁신 고찰 - 규제철폐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윤 성식



1. 역사적으로 본 규제 철폐 과정

과거의 정부지원과 규제제도가 1990년 이후 다양한 계획과 연계하여 철폐

호주의 낙농산업은 농업분야 중 쇠고기, 밀 다음의 3번째 큰 산업으로, 젖소사육두수는 170만두, 호당 사육두수는 215두, 낙농가수는 약 8,000호 정도이며 생산되는 원유의 약 80%를 유제품으로 가공하고, 제조된 유제품의 약 70%를 해외에 수출하는 약 3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산업이다. 호주 연방에는 과거 1900년대부터 시행하였던 다양한 계획들과 연계된 오랜 규제의 역사가 있다. 1924년 “유제품 수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33년에는 “낙농생산법” 하에서 유제품의 판매경로별 판매량에 대한 수익균등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5개 주 정부로부터 음용유(drinking milk)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주(州)간, 주별 그리고 낙농제품의 수출에서 생긴 수익(returns)들을 공동관리하는 연방 평등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호주정부는 뉴질랜드와 양국의 긴밀한 경제 유대(CER: Closer Economic Relations)로 대표되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협상의 핵심은 고도로 효율적이며 수출주도형 뉴질랜드의 낙농산업이 자유롭게 호주시장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종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던 보조금을 1986년 켈린계획(Kerrin Plan)에 따라서 낙농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재원을 정부재정에서 농가분담금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시장지지도보조금(Market Support Payment)” 제도 등이 획기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골자는 정부의 보조수단을 점차 줄여가면서 호주의 낙농가공산업을 국제시장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단계별로 규제 철폐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낙농산업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좀더

경쟁력이 있는 생산자 내지는 수출업자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2. 음용유 규제의 점진적 철폐

90년대 이전에는 음용유에 대한 모든 가격마진 설정

음용유 규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철폐된 조항이다. 주립 낙농공사(State Dairy Authorities)는 농가수취가격에서부터 소매가격에 이르기까지 음용유에 대한 모든 가격 마진을 정하였으며, 일정 지역별로 음용유의 판매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농가수취가격은 물론 각종 유통규제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었다. 1999년에는 퀸스랜드주를 마지막으로 농가수취가격 이외의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으나 여타 규제들이 완전히 철폐된 이후에도 주립낙농공사를 통하여 낙농가에 지불되는 유대만은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낙농가로부터 원유공급(sourcing)방식은 공동 풀제(pooling system) 또는 쿼터할당 등을 통하여 조정되었다(표 1 참조).

〈표 1〉 주별 음용유용 우유의 조달과 규제철폐 시기(2000년 6월 현재)

	NSW	Victoria	Queensland	SA	WA	Tasmania
각 주별 유대규제 철폐	July 1998	Jan 1995	Jan 1999	Jan 1995	Jan 1990	July 1993
원유공급방식	Quota	Pool	Quota	Pool	Quota	Pool

1995년에는 국가경쟁정책(NCP: National Competition Policy)에 따라 각 주 정부는 그 동안 난제로 남아있었던 음용유 규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규제를 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규제가 통상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한 규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퀸즐랜드(Queensland),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웨스턴 오스트랄리아(Western Australia)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면 음용유에 대한 규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소비자 대중에게 이익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전국 우유생산량과 유가공제 조업의 2/3를 차지하는 최대의 낙농지역인 빅토리아주의 검토안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1999년 7월에 종료된 빅토리아주의 검토안에서는 1년 후 즉, 2000년 7월 1일부터 모든 음용유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당시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1999년 12월에 실시한 국민투표를 이용하여 빅토리아주에서 주장한 규제철폐 권고안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89%나 되는 압도적인 농가들이 규제철폐를 지지하였고, 따라서 빅토리아주는 2000년 7월 1일까지라는 한시적으로 규제철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빅토리아 이외의 주(州)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 음용 유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농가는 물론 가공업자들도 규제폐지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빅토리아산 우유가 제약받지 않은 싼 가격으로 타 주에서 유통될 경우 지방 우유공급업자들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빅토리아주가 규제 철폐로 강하게 밀고 나갈 경우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옳다는 가정하에서 각 주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되는 개척작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3. 가공용 우유 지원

**연방정부가 오랜기간에 걸쳐 유가공 부문 규제
1986년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점차 삭감**

호주 연방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유가공 부문을 규제하여왔다. 1986년 이후 시행된 일련의 산업조정안들은 낙농산업이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가지도록 격려하면서 가공용 우유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되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의 최종 조정안은 "내수시장 지원(DMS: Domestic Market Support)" 계획이었다. 이것은 1995년 제정되었고, 호주의 WTO 이행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Clean Plan과 동일한 수준의 유통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2가지 형태의

levy(과장금 성격의 부과금)를 부과함으로써 "DMS fund"를 적립하는 사업이었다. 그 첫째는 "가공용 우유 레비(manufacturing milk levy)"로서 가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유제품에 함유된 유지방 및 유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부과되었다. 둘째는 낙농가들이 부담하는 "시유 레비(market milk levy)"로서 음용유에 함유된 유지방 및 유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부과되었다. 가공용우유에 부과된 levy는 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DMS 자금으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시유 levy는 전적으로 시유 위주로 소비하는 주(州)로부터 돈이 내수시장지원(DMS) 기금을 경유하여 가공유제품을 제조하는 주(예컨대 Victoria주와 Tasmania주)로 기업간 금전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내수시장지원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빅토리아나 타스매니아처럼 가공용 우유 생산을 더 많이 하는 농가들에게 지불되는 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1995년 시작되어 2000년 6월 30일자로 끝났으며, 그 이후에는 내수용 유제품에 대한 levy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았다.

4. 규제 철폐를 향한 여정

이상에서 설명한 내수시장지원(DMS) 계획의 종료가 임박해지고 호주의 "국가경쟁정책"때문에 각 주에서는 음용유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빅토리아주에 소재하는 수출위주의 낙농가들이 소유한 조합들은 이구동성으로 연방 및 주의 법적 기초가 그들의 공정한 상거래 활동을 방해할뿐더러, 타 주에서 영업중인 낙농가와 가공업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도 가공용 우유를 생산하고 또한 수출 위주로 경영하는 한 DMS 계획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주에서는 음용유가 우유생산량의 43~44%나 점유하는데 반하여 당시 빅토리아주에서는 총생산량의 겨우 7~8%정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음용유 규제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늘어나는 생산량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였다. 빅토리아 낙농업계는 계속해서 음용유를 규제하면 타 주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생존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우유생산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단 빅토리아 주정부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의사를 비친 이상 빅토리아주 우유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수 시장 공략이 가능하였기에 타 주에서 마련한 자구책들은 살아남기 힘들어 보였다. 이러한 시장의 압력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호주 낙농업계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가공용 우유 및 시유에 대하여 완전한 규제철폐를 향하여 연방 및 주 정부들과 협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16억 3천만 호주달러(1조 7천억 정도)에 달하는 “낙농구조조정프로그램(DSAP: Dairy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 기금은 단기적으로 규제철폐 환경하에서 갑작스런 변화를 겪는 낙농가들에게 닥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낙농가들이 자본 투자를 늘리거나 목장 경영상의 체무를 감는 등 낙농가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호주 정부는 2001년 6월 1일자로 규제철폐 후 가격 때문에 가장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유생산자들과 DSAP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 기준에 비교의적으로 미달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 1억 4천만 호주달러(약 1천 5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5. 전면적인 산업재편계획 : 2000년의 DSAP

소비자가 낸 부담금으로 낙농산업 구조재편에 활용

호주의 낙농구조조정프로그램(DSAP)은 음용유 제품에 대하여 소매유통업체로부터 리터당 11 호주센트(120원 정도)의 레비(levy)를 부과하는 사업이다. 규제를 할 때와 비교하여 원유의 농가수취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결국 소비자가 내는 levy로 상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호주 경쟁력 및 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은 우유가격을 추적하는 한편 생겨날 수 있는 변화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규제철폐 후 첫해에는 우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6%나 내려갔으나 그 후 2000년에는 규제철폐 직전보다 평균 3%까지 회복되었다. 시유 소비자에게 levy의 형태로 부과해서 조성한 기금(낙농구조기금으로 통용됨)은 2008년까지 유자격 낙농생산자들에게 분기별로 주어지는

지불금으로 활용되었다. 호주 정부의 WTO 협약에 대한 이행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 자금의 운용을 8년으로 한정하였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농가들이 낙농산업을 떠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한 청구성 지불금(payment)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괄해서 총45,000 호주달러(4,600만원)의 “낙농퇴출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낙농구조조정프로그램이 발표된 1999년 9월 28일자로 낙농기업으로 참여의사를 제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유자격자는 소유자로서 경영자, sharefarmer(소유자가 아닌 실제 목장경영자) 및 조정자금을 차용하는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불금을 신청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규 단체인 낙농조정위원회(DAA: Dairy Adjustment Authority)에 지원서 제출해야 한다. DAA는 개인이 청구한 지불금의 자격요건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낙농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부터 인출되는 지불금은 낙농조정위원회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즉, 호주낙농단(DA: Dairy Australia)를 경유하여 지불금이 최종 조정된다.

6. 산업재편과 규제철폐의 효과

호주의 모든 낙농가들은 규제철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제품 중에서 음용유 비율이 높은 이른바 쿼타제주(Quota States)들은 소득감소가 가장 심했다. 호주농업자원경제국에서 실시한 피해평가에 따라서 추가적 낙농보충지원사업이 발표되었으며, 이 것은 상기 쿼타제 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분석 결과 농가들에 대한 피해 상태는 아주 다양하였으며 2000년 7월 이전에 체결된 쿼타의 양에 따라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규제철폐가 농가에 미친 영향은 수많은 인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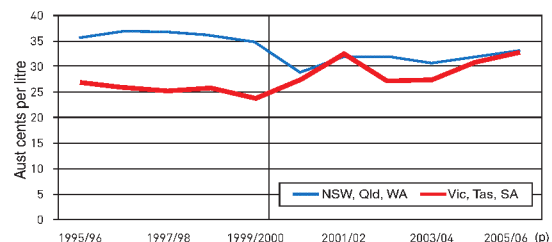


그림 1. 호주의 평균 농가수취 원유가격의 변화



규제철폐로 음용유생산농가와 가공용농가간의 유대가 근접

2000년 규제철폐는 음용유 위주로 생산하는 주들의 우유가 격이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주들의 가격에 근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음용유 위주의 주들에 있어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많은 기존 지역목장의 경영이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 철폐는 호주 낙농산업에 대해서 분수령을 이루었고, 한계 경영인들이 목장을 떠나거나(폐업)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하여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쿼타제를 시행하는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 주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농가수가 기존 2% 감소 수준에서 11~13%로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였다. 낙농가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호주 낙농업계의 전형적인 추세이고, 규제철폐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앞당긴 것에 불과하였다. 낙농구조조정프로그램 하에서 청구성 지불금은 80%이상의 농가들이 분기별 분납을 선불로 전환시키거나 목장경영개선,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소수인 135호 농가만이 낙농산업을 떠나는 데 사용하였다. 2001년 4월 호주 경쟁력 및 소비자위원회는 음용유 공급에 대한 규제 철폐 이후 첫해에 슈퍼마켓 판매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절약한 금액이 1억1천8백만 호주달러(1,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 규제 철폐 후 6개월 동안 우유 소비자 가격도 소매 levy를 감안하더라도 리터당 22%나 내려갔다. 규제 철폐 후 6개월 동안 슈퍼마켓 (유통)마진은 18% 감소하였으며 가공업자 마진 또한 19% 감소하였다. 농가수취가격도 음용유용 원유 공급 측면에서 리터당 약 19 호주센트(200원 정도) 인하되었다. 2004년 국가경쟁력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음용유 프리미엄의 폐지, 가공으로부터 발생한 이득 증가 그리고 산업구조조정패키지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였을 경우, 총 농가수익은 규제 철폐 직전 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약 3억 호주달러(3,100억원)만큼 증가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영향은 주요 낙농지역별로 차이가 났으며 거의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가뭄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졌다고 발표하였다. 퀸즐랜드 지방에서는 지속적으로 낙농을 포기하거나 점차적으로 우유 생산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규제 철폐 시점에서 생산량의

45%로부터 2005년 6월의 73%까지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년 중 신선한 우유의 생산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유제품의 생산을 향한 지역별 생산제품군의 재배열이 생겨나 농가수취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원유공급량을 늘리기 원하는 가공업자들이 많아져서 농장과 장기계약으로 유도되고 있다. 또한 장기 보존이 가능한 유제품의 생산은 점차 계절의존성 우유생산과 생산비용이 저렴한 빅토리아주와 같은 호주 남동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7. 호주낙농개혁 경험의 몇 가지 주목되는 특징

낙농산업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향후 장기발전의 토대 마련

1980년대 수출지향의 고효율 뉴질랜드 낙농제품이 호주의 유가공 시장에 자유롭게 밀려들어왔을 때, 호주의 낙농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종래의 정부 지원에서 농가분담금으로 전환하면서 음용유 규제를 풀기 시작하였다. 낙농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의 상당한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결국 규제철폐는 낙농산업이 시장의 여건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효율성도 높아졌다. 보조금으로부터 받은 이익만을 보면 지역별 농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낙농산업은 통합으로 이어졌고, 각 주와 정부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보는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낙농가들은 일반적으로 조정자금을 그들의 사업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였고 규제 철폐 환경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였다. 규제 개혁으로 말미암아 농가 수는 더욱 줄어들었으나, 젖소 수는 더 많은 목장이 생겨났으며, 우유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호주의 남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규제 철폐는 낙농산업이 안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동시에 향후 나아갈 장기적인 추세를 가속화시킨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의 낙농 정보



국내

학교우유급식 벽지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국회 농식품위, 추경예산 확보...상반기내 30만명에
무상 공급

우유소비확대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낙농육우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학교우유급식 지원 확대가 드디어 이뤄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4월 16일 추경예산안심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 등 총 3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소요예산은 178억원으로 확대됐다. <축산신문>

낙농업계 '문화마케팅' 이 뜬다

— 낙농업 인식 제고·우유소비 촉진 기여

낙농업계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며 낙농업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우유 가평축산계(계장 손정렬)는 지난 19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Love 乳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어 20일에는 경기도 포천소재 낙농체험목장인 아트팜(대표 이범석)에서는 '푸른 초지위에 희망의 무지개가 뜬다'란 주제로 제1회 아트팜목장 농촌사랑 열린문화제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경기도 파주소재 낙농체험목장인 모산목장(대표 문진섭)에서 '초여름 밤 목장의 꿈-아름다운 목장 음악회'를 개최했었다. 이와같은 낙농업계의 문화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낙농업의 중요성은 물론 우유소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평축산계의 'Love 乳 음악회'에서는 650석 규모의 공연장을 학생들과 시민들로 만석을 이뤘으며 음악회에 앞서 우유요리시식회를 개최했다.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한 낙농업계의 노력과 우유요리에 대해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는 것이 한결 같은 반응이었다. <축산신문>

낙농 쿼터값 하락

— 6월 들어 kg당 5만~ 6만원 ↓

FTA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며 낙농쿼터의 거래가격이 최근들어 kg당 5~6만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농가들에 따르면 6월 들어 낙농진흥회와 거래하고 있는 농가들의 쿼터가격은 kg당 21만~23만원선으로 지난 3월 27만~28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5만~6만원가량 떨어졌다. 또 B우유도 최고 26만원에서 거래되던 것이 요즘 23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S우유는 kg당 26만~27만원, M유업은 22만원선으로 예년 수준이다. 쿼터 거래가격이 하락한 것은 낙농선진국들과의 FTA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낙농산업의 불안한 상황을 지켜보자는 낙농가들의 태도가 쿼터 매매 감소와 가격하락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진흥회 유대체계가 지난 4월 1일부터 바뀌면서 계약량의 6%를 차지하던 버퍼물량(이전 유대체계에서 정상 계약량보다 초과 생산하더라도 생산원충부분으로 인정해 정상유대를 지급해왔다)이 기준쿼터에 포함돼 쿼터총량이 늘어나다보니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쿼터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어민신문>

한·EU FTA 사실상 타결, 돼지고기·낙농 '직격타'

축산업계 막대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가 2년 2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사실상 타결됐다. 스웨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스톡홀름에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유럽과의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정상간의 협상 타결 선언으로 앞으로 정부는 9월 말까지 가서명, 내년 2월까지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공산품 시장은 수출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돼지고기와 낙농 등 축산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낙농분야에선 36%인 치즈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관세할당물량을 내주고 매년 그 물량을 늘려주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15년 이후의 연간 최대 생산감소액을 3000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농수축산신문>



국산 우유 중국 수출 19배 급증

- 분유·요구르트도 물량 대폭 늘어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중국 엄마들의 '한국우유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 우유의 중국 수출은 76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만 달러에 비해 약 19배나 급증한 수치다. 중국은 냉장물류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멸균우유 시장이 강세였지만 최근에는 경제발전으로 신선우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음료신문>



오세아니아

호주 유제품가격, 안정유지

- 물가인상을 4.8%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세

호주 통계청은 올해 인플레이션은 4.8%인데 비해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월 분기로 0.9%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우유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지 않아 유제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치즈 가격은 올해 중 5% 가량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보도이다.

뉴질랜드가 OECD중 향후 10년간 가장 높은 우유 생산증가 전망

향후 10년간 개발도상국의 우유생산증가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선진낙농국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것이라고 최근 발간된 OECD/FAO 보고서가 밝혔다. '2009-2018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유생산증가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이 주도할 것이며, 우유가격은 연료비와 기름가격 인상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배제하더라도 1997-2006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농산품중 유제품이 높은

소비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분야는 전체 원유생산증 81%가 비OECD국가에서 생산되는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뉴질랜드는 이 기간중 OECD국중 가장 높은 생산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EU, 낙농시장 안정대책 골몰

- 최근의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부심

EU농업장관들은 지난 6월 권역내 낙농시장 안정대책 마련을 EU위원회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낙농가들은 시장 약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수입 보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EU는 버터와 탈지분유의 수매에 이어 2010년 2월까지 잉여버터의 민간창고 비축을 2010년 2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EU 권역내에는 총 110천톤 수준의 버터가 비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 비축량은 입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감으로 낙농가들이 지급받는 생산자 가격은 2008년 여름 이후 무려 50%이상 폭락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EU 위원회가 8만1천톤의 버터와 20만3천톤의 탈지분유를 수매하였으나 시장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EU 위원회, 쿼터 변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

- 쿼터제 폐지 계획, 예정대로 추진

EU위원회는 현재 최악 상황에 대한 농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쿼터제의 단계적 철폐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낙농청과 생산자 조합은 유럽 낙농 시장을 안정시켜 유가가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EU위원회는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 쿼터제의 단계적 철폐 계획은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원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힘들어 하고 있는 낙농가들을 돕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이 동원 될 것이다. 하지만 유럽 이사회에서 밝혔듯, 쿼터제의 단계적 철폐 계획을 무산할 계획은 없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은 현재 상황을 더 악화 시킬 뿐' 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원유값 삭감을 놓고 업체와 농가 대치

- 업체의 하반기 유대 30% 삭감방침에 농가들 맞서

프랑스 유업체들이 올 하반기 농가 유대를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농가들이 이에 반발했다. 5월 초 프랑스 유가공연합회 FNIL은 프랑스의 원유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낙농가와 유업체 연합들 사이의 유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제는 각 업체별로 원유 공급 농가들과 협상에 들어갔다. 프랑스 유수의 유업체 락탈리스(Lactalis)의 대변인은 분유와 버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하반기 농가 유대를 30%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전했다. 2008년 4월 농가 수취 유대는 1,000 리터당 309 유로였지만 2009년 4월에는 205~225 유로를 기록했다. FNPL은 더 이상의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유가공업체의 가격조작 행위 밝혀져

- 계획적 가격 조작, 전매 사업 방지 규정에 어긋나는 활동

러시아내 유가공업체인 다농, 원-발-덴과 캄피나 사가 가격 조작 혐의로 고발되었다. 모스크 독점방지국은 위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매입 가격을 낮추어 왔다는 농림부 지역 사무처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이 기업들은 동시에 원유 매입 가격을 25~26% 가량 낮추는데 성공한 바 있다.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새로운 생산자들과 매입 가격의 수정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독점방지국은 이 4개의 기업들이 모스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0%가량을 매입, 가공하고 있으나 이는 경쟁 방지 법규에 어긋나는 시장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日, 가격인상으로 우유 소비 침체

- 저가의 성분 조정우유 매출은 성장

지난 3월부터 우유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우유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낙농유업협회(Jミルク)에 의하면 4월 1주의 우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한다. 금년 평균 약 3% 감소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저가의 성분 조정우유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시유 판매량은 침체되고 있다. Jミルク는 우유소비는 성수기에 들어 가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기악화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관계자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 장기화를 염려하고 있다.

인도, 중국제 초콜릿 수입금지

2009년 7월 27일, 아난드 살마 인도 상공장관은 중국제 초콜릿 및 관련제품의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멜라민 혼입을 염려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중국 멜라민 분유 사건 후, 인도는 작년 9월부터 중국제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새롭게 초콜릿이 금지 제품에 포함되었다. 살마 상공장관은 인도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적인 식품 위생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제 장난감 수입이 금지된 것 외에도, 개별 IMEI(단말식별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복제 핸드폰도 올 7월 16일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다.

멜라민 사태 후폭풍...中 낙농업 '도산위기'

- 우유 재고증가로 재산성 악화...젖소가격 폭락에 도살 급증

멜라민 분유 파동의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중국 낙농가들이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바람에 수출이 막히고 재고가 쌓이면서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낙농



가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중국농업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우유 생산지인 헤이룽장성 낙농가들이 최근 채산성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젖소를 도살하는 농가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멜라민 분유 파동 여파에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급속히 감소한 데 따른 후유증을 중국의 낙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일본 호쿠렌, '롱라이프 우유' 아시아에 수출 확대 ~ 대만,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 시음회 열고 시장 확대에 노력

일본 북해도의 협동조합연합체인 호쿠렌은 지난 5월 28일 올해부터 홋카이도산 우유의 아시아 수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온살균후 포장한 뒤부터 60일간 음용이 가능한 '롱라이프 우유'의 시음회를 대만과 중국,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여 소비자를 확보하고, 수출량을 조기에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홋카이도산 롱라이프 우유는 대만 등에서 1ℓ 제품이 300~400엔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200엔 정도인 일본 국내 가격보다 비교적 높지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우유'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2008년도에는 수출을 시작한 1996년도의 거의 9배에 해당하는 798톤을 수출했다. 호쿠렌은 먼저 1,000톤의 수출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1,600톤 정도까지 수출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일본낙농유업협회, 올 상반기 우유 수요 9.3% 감소

일본낙농유업협회(J-Milk)는 23일, 올 상반기(4월~9월) 우유 수요량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162만 3천ℓ라고 전망 발표했다. 3월 이후 급격한 수요 감소로 5월에 공표한 전망치보다 3.7포인트 하향 수정되었다. J-Milk는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 이전에 사례를 볼 수 없는 침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분조정우유와 가공유, 유음료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97만 6천ℓ로, 5월 발표보다 8.6포인트 상향 수정되었다.

중국 낙농업 규모·계열화 시급

~ 젖소 사육 → 원유 가공 → 유제품 판매까지

중국유업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싼루(三鹿) 멜라민 분유 사태의 원인을 낙농업의 규모화 결여, 산업사슬 일체화 결여, 업종표준 결여 등으로 귀결했다. 또한 싼루사태는 중국 유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도 중국 유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산업사슬 일체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지적됐다고 최근 중국 산경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산업연구센터의 천천 식품산업 연구원은 "중국 유업은 비교적 늦게 발전하기 시작해 젖소 사육업의 규모가 작고 분산돼 있으며 수준이 낮은 상황이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 규모화, 집약화, 표준화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중국에서 유제품의 산업사슬 일체화(젖소 사육-원유 가공-유제품 판매) 실시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멜라민 사태 발발로 중국 유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미국

새로운 사료 급여로 온실가스 감축추진

~ 지방산을 함유한 사료급여로 트림발생 억제

유기농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미국의 한 기업은 최근 환경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15곳의 농장에 새로운 젖소 사료를 제공했다. 사료의 원료는 아마 열매, 클로버, 지방산을 함유하는 여물로서 젖소의 체내에서 만들어진 메탄가스를 줄여 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젖소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종전의 옥수수나 대두가 아닌 지방산을 함유한 사료다. 이 사료는 젖소가 반추하기 힘들어 트림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농장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 '기체 배출' 계획이 실시된 이후, 젖소가 트림을 할 확률은 적어도 13% 낮아졌으며, 한 농장에서는 18% 낮아졌다고 한다. 현재 이 기업은 이 사료의 공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깨끗한 우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보호 사업에도 공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젖소가 배출하는 기체의 총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젖소를 밀폐된 상태의 공간에 넣어 배출된

기체의 함유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매년 젖소 1두가 트림을 할 때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90~180킬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침체에 허덕이는 미국 낙농

~ 연이은 폐업으로 어쩔 수 없는 도태 시작

미국 낙농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분유 등 유제품의 소비침체로 유대가 대폭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쳐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최대 낙농지대로 대규모 목장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살하는 낙농가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6월은 '낙농의 달'로 지정되어 있으나, 역경의 돌파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태는 처음이다"라고 캘리포니아주 낙농가 더글러스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착유우 1두당 적자액은 하루 3달러, 한 달이면 100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올들어 두 번째 유용우 도태에 착수

원유생산자단체인 NMPF는 7월 10일, 동연맹이 운영하는 낙농협동동기금(Cooperative Working Together: CWT)에서 유용우 도태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CWT에 의한 유용우 도태사업은, 올 4월부터 7월까지 과거 최대의 규모로 통산 7회째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유가 침체로 힘들어하는 낙농가의 현상을 생각하여 올해 두 번째, 통산 8회째 사업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NMPF 코작크 회장은 '과거 최대 규모의 도태사업 직후, 다시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원유 생산을 감소시켜 수개월 후 유가는 회복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3.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

◎ 유제품 출시동향

매일유업, '프레시 뉴스' 캠페인

~ "천연색소도 'NO'"...과즙만 첨가

매일유업은 가공유 전제품에 색소 제외, 과즙 첨가, 수입원료 원산지 표기, 105가지 안전 검사 등을 철저히 지킨다는 4가지 선언을 골자로 하는 '매일 프레시 뉴스'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7월 7일부터 판매하는 전 가공유 제품에서 붉은색을 내는 코치닐, 노란색을 내는 치자황 등 천연 색소는 빠지고 실제 과즙이 첨가돼 가공유의 색깔이 원유의 색인 하얀색에 가깝게 바뀐다. 또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총 105가지에 달하는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GMO, 방사선, 멜라민, 중금속, 잔류 농약 등 다양한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해 철저히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매일유업은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제품 포장에 '매일 프레시 뉴스' 캠페인의 4가지 선언이 담긴 엠블럼을 부착하며, 신선한 가공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카톤 가공유 3종 제품의 패키지를 리뉴얼해 출시한다.



韓·日 합작 원두커피음료 출시

~ 서울우유-도토루 제휴



서울우유가 일본 커피브랜드 '도토루'와 손잡고 한-일합작 원두커피음료를 내놨다. 서울우유는 자사의 1급A 원유(原乳)와 도토루사의 최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주원료로 '서울우유 도토루 더 클래식' 3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토루사는 50년 가까이 정통 커피만을 만들어온 일본 커피 명가로 일본 내에 1400여 개 커피전문점을 보유하고 있다. 스타벅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서울우유는 그동안 동서식품과 스타벅스 컵커피를 제조·공동판매해온데 이어 이번 도토루와의 계약으로 세계 1, 2위 커피전문점의 컵커피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됐다.

요크림사, 임상실험 입증된 유산균이 들어간 아이스 요거트 출시

~ 최초 하와루 도필러스균 함유

미 요크림사는 대니스코유업과 합작으로 소화기능향상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하와루 도필러스 유산균이 들어간 요거트 빙과 제품을 미국 최초로 출시했다. 요크림은 사전에 자연발효법을 이용해 유산균이 들어간 요거트 빙과 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었지만, 임상실험으로 입증된 유산균을 사용하기는 이번 대니스코와의 협력 작이 처음이다. '하이 컬쳐 프로즌 요거트'라고 불리는 신제품은 저장 기간 동안에도 10만 억의 유산균 개체수가 유지되는 달콤한 크림 요거트 제품이다. 우유 제품에 많이 포함되는 유산균은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며, 소장의 세균 균형, 유제품의 소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유해균을 억제하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니스코사의 폐기 스틸은 "하와루 도필러스는 기록 된 중 세계 최고의 유산균이며, 유전체 분석이 완료된 유일한 유산균이기도 하다"며, "하와루 유산균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통해 효율과 안정성이 검증된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온켄, 한정판 오렌지 & 레몬 출시



외트거(Dr. Oetker)사의 유명 요구르트 브랜드 온켄(Onken)이 첫 번째 한정판을 출시했다. 바로 오렌지 & 레몬 맛이다. 이번 제품은 부드러운 버터와 달걀 그리고 톡 쏘는 오렌지와 레몬의 절묘한 조합

을 맛 보여준다. 또 온켄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신선한 원유에 살아있는 바이오 균주(bio culture)를 첨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온켄' 하면 떠오르는 살살 녹는 듯 부드럽고, 깊고, 고급스러운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회사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에 스타일리쉬한 검은색 옷을 입혔다. 오렌지 & 레몬 한 개의 용량은 450g이고 가격은 1,24 파운드다. 이 제품은 한정판이기 때문에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만 판매된다.

인도 몬텔사, 우유디저트 망고젤리 출시



몬텔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알폰소 망고 디저트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인도정부의 상공부격인 인도무역진흥국이 후원하고 있다. 몬텔사는 망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고품질의 인도산 알폰소 망고를 사용하여 망고맛 디저트 3가지(6~7월은 '망고 슈크림'과 '망고 젤리', 7월부터는 '망고 크레페')를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망고 젤리는 망고와 젤리를 섞어 만든 디저트제품으로 상큼한 망고와 저온살균 우유를 넣어 만든 우유젤리이며 가격은 189엔 수준이다.

우유를 넣어 맛있는 술을 만드는 밀믹스(MILMIX) 추가 출시

~ 일본 산토리 주류, 비터캐러멜 시판



일본 산토리 주류(주)는 '우유를 넣어 맛있는 술 밀믹스(MILMIX)'의 새로운 맛(비터 캐러멜)을 9월 1일부터 발매한다. 또 딸기맛과 맛치맛도 새단장하여 신발매한다. '우유를 넣어 맛있는 술 밀믹스'는 2007년 발매 이후, 우유에 넣는 것만으로

디지털처럼 즐길 수 있는 리큐르로 호평 받고 있는 상품이다. 이번에는 넓은 세대에서 사랑 받고 있는 맛인 비터 캐러멜을 추가했다. 또 이미 호평을 받고 있는 딸기와 맛차를 더 깊은 맛으로 재단장했다. '밀믹스'의 용량도 처음 마시는 사람들도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200ml 스몰 사이즈로 변경하여 브랜드 파워 강화와 카테일 수요 확대를 노렸다.

메이지유업, 방목우유 한정 발매

— 목초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방목한 젖소의 원유를 이용



메이지유업은 오는 6월15일부터 방목우유를 표방하는 '홋카이도 방목마을 아소로에서' (1000ml)를 일부 지역에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방목마을 아소로에서'는 일본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고, 홋카이도 토카치 지방의 깨끗한 자연환경에 위치한 아소로군 아소로초에서 목초 생육이 왕성한 6월부터 9월에 방목한 젖소의 원유를 가지고 생산한 기간한정판매 제품이다. 방목은 지역의 토지자원을 활용한 흙, 풀, 젖소가 연결된 자연순환형 낙농이다. 또 젖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초지에서 자라나 먹고, 변을 보는 환경 속에서 젖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육방식이다. 이 제품은 용량은 1000ml, 가격은 250엔 수준이다.

메그밀크, '하나 가득 요거트 7종류의 붉은 과일 믹스' 발매



일본 메그밀크는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하나 가득 요거트'를 오는 7월 7일부터 전국에 발매했다. '하나 가득 요거트 7종류의 붉은 과일 믹스'는 7종류의 붉은 과일을 넣은 큰 사이즈의 과일 요거트이다. 세 종류의 과육과 네 종류의 과즙을 넣고, 나타데코코도 넣었다. 과일 요거트 시장에서는 원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인상과 용량이 감소하여 많이 먹고 싶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용량이 큰 제품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많은 용량의 요거트'를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지방으로 칼로리에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대용량 사이즈 요거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3월에 발매하여 호평 받고 있는 시리즈의 제2탄이다. 용량은 180g이고 개당 가격은 150엔이다.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녹지 않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판매

— 비지를 40% 배합하여 상온에서 잘 녹지 않고 냉기도 계속 유지 가능



'일본 해초식품연구소'에서 직영하는 비지제품 판매점 '헬씨 랩 재팬'은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비지 식품 연구 중에 우연히 탄생한 제품인데,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비지가 40% 배합되어 있어 쉽게 녹지 않는다고 한다. 부드러운 느낌과 너무 달지 않은 맛, 시간이 흘러도 가운데 부분은 냉기를 유지하고 있다. 칼로리도 일반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약 절반으로 줄었다. 동사는 평소부터 비지를 이용한 빵과 도너츠 등의 식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녹지 않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우연히 탄생되었다. 동사의 시라이시 료조 회장이 쿠키를 만들고 남은 우유에 비지를 섞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이때 쉽게 녹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 낙농기술 동향

CJ제일제당, 탑드레싱 사료 'BCS' 출시

— 비유초기 체손실 보강

CJ제일제당은 최근 저하된 BCS(신체충실지수)을 높여줄 수 있는 탑드레싱 사료로 'BCS'를 출시했다. 이제품은 비유초기 체손실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비유중기 2개월간 2kg 급여 시 'BCS'를 0.5점 상승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존 원료평가시스템을 더 강화한 초정밀 에너지·단백질시스템과 고능력우의 미량영양소 요구량을 재설정해 BCS관리를 용이하게 한 제품이다. 이와 더불어 체내 칼슘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최근 국제목가상승과 환율여파로 농가들이 사료급여량을 줄이고 저가의 조사료와 TMR사료 공급을 확대하면서 에너지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체형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개발한 것이다.

일, 젖소의 곰팡이독소 제거하는 사료첨가제 '울칼' 특허등록

— 천연화식 산호를 이용하여 사료의 마이코톡신 제거



천연화식 산호를 이용한 영양제, 가족 사료 및 농업비료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한 업체가 지난 6월 낙농학원대학(후타카이도) 수의학부의 코이와 마사데루 교수와 공동 출원한 '마이코톡신 제거용 사료첨가제(울칼)'를 특허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천연

화식 산호를 이용하여 젖소의 곰팡이독소(마이코톡신)를 제거하는 사료첨가제이다. 화식 산호에는 칼슘과 70종류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첨가제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04년부터 코이와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화식 산호의 마이코톡신 제거효과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곰팡이 독소에 감염된 소와 돼지는 내장과 소화기관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며, 유량이 감소하고 번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동사는 "사료에 섞어서 소와 돼지에게 급여하면, 마이코톡신 제거뿐만 아니라 유량 증가, 번식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IDF 동향

1. IDF 주요행사 및 활동

IDF, '낙농지속가능성 구상' 발표

— 세계낙농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IDF가 주도

IDF는 지난 6월 18일-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전과정 분석 및 탄소발자국 워크숍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낙농업계 공동노력을 주도하고 나섰다. 이번에 IDF가 「낙농 지속가능성 구상」을 마련한 배경은 ▲식품생산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관심 고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낙농업계의 연합 필요성 대두, ▲세계 낙농을 대표하는 IDF가 낙농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수행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DF는 향후 2009년 9월 베를린 IDF 세계낙농연차총회에서 온실가스방출 감축에 대한 서명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세계 낙농업계의 계획을 선포하고, 총회 이전 수집된 자료의 배포 및 수집된 자료를 취합하여 Green Paper(환경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IDF-korea, '낙농지속가능성 구상' 지지 및 참여키로

IDF-Korea는 IDF가 마련한 「낙농 지속가능성 구상」에 관한 지지 및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31일 제출했다. 아울러 향후 환경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세계 낙농을 대표하는 IDF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7차 코덱스식품표시분과위원회 결과요약

— 2009년5월4-8일, 캐나다 켈거리

식이섬유의 정의

IDF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소화되지 않는 이당류를 현행 코덱스식이섬유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게하기위하여 각주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담아 2009년 코덱스총회에 제출한 바 있다.

코덱스분류명 및 국제번호 체계개정

코덱스식품표시분과위원회는 코덱스총회에서 개정승인된 코덱스분류명이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DF는 촉진제를 기능성치원에서 분류함에

따라 축진제가 식품첨가물로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정(안)이 코덱스식품첨가물규정 및 식품표시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내용은 코덱스총회에서 더 논의하기로했다.

WHO 국제다이어트전략

임의 또는 의무적 표시 영양성분: 코덱스식품표시분과위원회는 현재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의 의무적 표시사항에 포함지방 및 당의 표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트랜스지방, 나트륨 또는 염분, 가당 및 식이섬유는 차기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나트륨 또는 염분에 관한 표시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자실무작업반이 신설될 계획이다. IDF는 이 업무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영양성분 표시사항의 규격화: IDF는 신설전자실무작업반에 참여하여 영양성분표시사항에 관한 원칙 및 규격조안마련에 적극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다이어트전략의 성분표시 규정

전자실무작업반은 회의결과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IDF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작업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명칭규격 개정관련회의의 결과

WHO 국제다이어트전략에는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의 변경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규격의 변경목적은 상품규격이 건강에 더 유익한 제품의 생산을 규정한다는 제조업체의 의식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다만 코덱스 유및유제품 규격의 유제품관련사항은 IDF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어 이번 변경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코덱스 식품표시분과위원회가 제공한 변경된 일반명칭 규격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승인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덱스식품표시분과위원회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관한 관련성고에 따른 예상결과에 대한 조안을 구하기 위하여 코덱스상품규격위원회와FAO/WHO 조정위원회에조안을 구하기로했다. IDF는 이에 관한업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차기회의는 2010년 5월 3-7일 퀘벡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낙농경영분과 워크샵. 지난 5월 성료

낙농진흥회는 지난 5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 학계

및 각 유업체 등 총 32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IDF-Korea 낙농경영분과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국제낙농동향과 IDF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IDF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세계 낙농동향과 IDF의 역할(낙농진흥회 손병갑 팀장 - IDF-Korea간사),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리포트(상지대학교 최석호 교수), △낙농분야 지구온난화 대응전략(국립수의과학검역원 문진산 연구관), △낙농사료의 마이코톡신 발생과 관리(국립축산과학원 정완태 박사), △IDF 유방염용어정리 프로젝트(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이석 과장) 등 총 6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참석자들간에 IDF 낙농경영분과 현안, 우리나라의 우유가격산정체계 문제점 및 IDF의 각종 낙농관련 정보의 국내 전파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주요 행사 및 소식

IDF-Korea 분과위원장단 상견례 개최

IDF-Korea 4개 분과위원장단 상견례가 지난 6월 18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상견례에서는 기존의 유가공분과 및 낙농경영분과 이외에 이번에 운영진이 구성된 영양건강분과 및 목장경영분과의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는 등 총 4개 분과의 위원장단과 낙농진흥회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IDF-Korea는 총 4개의 분과가 적극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신규 구성된 영양건강분과는 위원장에 정승환 남양유업 연구소장, 간사에 김원섭 한경대학교 교수가 그리고 목장경영분과는 위원장에 안종호 한경대학교 교수, 간사에 함준상 국립축산과학원 박사가 각각 분과의 운영을 맡게 됐다.

안장혁 및 박재우 위원, IDF 전문위원으로 정식위촉

IDF-Korea의 안장혁(남양유업 부장) 및 박재우(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무관) 분과위원이 지난 6월 4일 IDF가 주관하는 「유제품의 멜라민 및 시아누르산 측정지침 개발」실무팀 전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됐다. 상기 지침개발의 목적은 최근 식품의 멜라민 혼입문제로 인해 검사와 관련한 국제규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DF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멜라민 및 시아누르산 측정에 관한 국제규격 마련 및 오염물질의 혼입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스크린 방법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버터오일의 지방함량 측정규격에 관한 한국 의견제출

IDF-Korea는 지난 4월 30일 IDF 규격 「버터오일의 지방함량 측정」에 관한 의견을 IDF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국립수역과학검역원의 검토를 거쳐 제출한 것으로, 상기 규격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을 직접 측정하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고로 상기 규격은 각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개정, 폐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의 대체 등을 을 강구하게 된다.

2009 IDF 세계낙농현황 발간을 위한 한국측 자료 제출

IDF-Korea는 지난 4월 30일 「2009 IDF 세계낙농현황」 발간을 위한 한국측 자료를 IDF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함께 IDF Bulletin 「2009 세계낙농현황」 출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낙농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황 : ①경제여건 및 통상정책, ②소비동향 및 우유가격동향, ③낙농정책, 식품, ④건강 및 환경에 관한 법률, ▲2005년~2009년 낙농통계관련 실적 및 예상 : ①낙농가수 및 원유생산량, ②시유 및 유제품 생산량, ③농가 평균 원유가격(유지방 3.7% 기준), ④버터, 치즈 및 분유가격, ⑤유제품 수출입 현황, ⑥시유 및 유제품 소비현황

IDF, 「유당 중심의 유제품 탄수화물 공동연구」 추진키로

IDF는 지난 5월 13일 「유당 중심의 유제품 탄수화물 공동연구」에 대한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의견조회 결과 투표에 참여한 19개국 중 18개국이 찬성하여 IDF 신규업무로 승인했다. 향후 이 사업은 영양건강분과위원회의 탄수화물실무팀이 담당하며, 곧 실무팀 구성하고 2009년말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관련 학회지에 유당을 중심으로 한 유제품의 탄수화물 관련논문을 게재

할 예정이다. 참고로 관련 논문주제는 치아 부식, 혈당부하, 유당과 난소암, 유제품의 탄수화물, 유당이 박테리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식이섬유, 프레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유당불내증, 유당을 제거한 제품의 선호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IDF 인트라넷에 환경분야 전과정분석 관련 논문 게재

IDF는 지난 3월 16일부터 환경분야 전과정분석 관련 논문을 IDF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있다. 이는 IDF의 낙농분야 탄소배출 분석·관리방안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게재하게 됐다. IDF는 향후 관련 논문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DF-Korea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관련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료를 제공하니 활용하기 바란다.

▲ 국제협력활동

IDF, 코덱스에 측정의 불확실성 가이드라인 초안에 관한 의견제출

IDF는 지난 7월 13일 코덱스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위원회 전자실무팀에 측정의 불확실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은 검사시 발생하는 측정오차와 시료채취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내용이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DF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첨부했다. “IDF는 코덱스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위원회가 측정의 불확실성 및 시료채취의 불확실성을 따로 분리하여 지침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 동의하고 있지만, 측정의 불확실성과 시료채취의 불확실성을 함께 다루어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통합된 방식은 독립적인 기술이 아니다. 기술적인 그리고 비기술적인 문맥에서 정확한 적용과 설명을 위해서는 충분한고 근거가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IDF, 국제양모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IDF는 지난 6월 16일~1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양모

기구(WTO)의 연차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WTO도 IDF와 같이 각 국의 산업 이해관계자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IDF 기술국장은 '낙농업과 양모업의 유사한 문제점, 공동된 접근방식'이란 주제 강연으로 낙농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양모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해결방안들을 강조했다. IDF의 동물복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해결 사례, FAQ, OIE 및 UNEP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관들과의 성공적 협력 관계는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IDF의 면양 및 산양 유제품의 상품개발 및 시장 확대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2011년 5월 아테네 심포지엄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WTO는 FAO가 신설한 '동물복지 입문' 인터넷 포털의 파트너로 OIE의 동물복지 규정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산양 및 면양 업계는 공동 관심사와 문제점에 관한 협력을 위해 IDF의 관계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IDF, FAO와 공동으로 동물복지웹사이트 신설

FAO는 IDF에 동물복지웹사이트개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이트의 개발목적은 가축위생, 동물복지및 생산성을 개선하는것이다. 이 웹사이트에 수록될 주요내용은 가축운반, 도살, 도살전관리와 관련한 동물복지, 질병관리를 위한 가축취급과선별, 국제교역에 관한 OIE 국제규격및 동물복지규격개발 등이다. 이 업무는 낙농가, 정부, 입법기관, 연구, 축산및식품업계 그리고 비정부기관들이 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DF는 과학자로서의 전공자로서 신뢰성유지를 위해 IDF기술부장을 포함해 교류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이 담당기로 했다.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fao.org/ag/againfo/programmes/animal-welfare/en/>로 현재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2. 학술자료 발간동향

IDF Bulletin 발간

「낙농산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Bulletin No. 436」
「화학적발광법에 의한 역상 유제품의 염기성 포스포타아제 검출 방법 표준화 : Bulletin No. 435」
「구제역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 Bulletin No. 437」

IDF/ISO 공동규격 발행

「우유 - 어는점 측정방법(서미스터 크라이오스코프법) : IDF 108/ISO 5764」
「연속 pH 측정에 의한 발효유의 산성도 측정 규격 : IDF 213/ISO 26323」

IDF-Korea 뉴스레터

「2009년 2/4분기(통권 5호)」

3. 향후 주요행사 활동

- 「IDF 세계낙농연차총회전 분과위원회」, 9월17일~19일 독일 베를린
- 「IDF 세계낙농연차총회」, 9월 20일~24일 독일 베를린
-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10월 12일~16일 한국 서울
-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위원회」, 11월 2일~6일 독일
- 「CODEX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위원회」, 11월 9일~13일 호주
-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 11월 16일~21일 미국 워싱턴
- 「IDF 세계낙농연차총회전 분과위원회」, 9월 17일~19일 독일 베를린
- 「IDF 세계낙농연차총회」, 9월 20일~24일 독일 베를린
- 「IDF 낙농 미생물의 안전 및 기능성 실무팀」, 9월 25일 독일 베를린
- 「IDF 락토페룩시다아제 및 포스포타아제 프로젝트 그룹」, 9월 25일 프랑스 파리
-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10월 12일~16일 한국 서울
-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위원회」, 11월 2일~6일 독일 뒤셀도르프
-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 11월 16일~20일 미국

[V 부록 / 통계]



낙농산업동향 | Korea Dairy Committee

국내통계

1. 젖소 사육현황
2.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3. 젖소 산지가격
4. 원유생산 및 생산자 가격
5. 유질현황
6. 원유수급현황
7. 분유재고현황
8. 유제품 수입현황
9. 유제품별 생산현황
10. 유제품 유통가격
11. 가구소득대비 낙농품 소비액
12. 가구소득별 낙농품 소비 비중
13. 제조업 가동률 지수
14. 유가공 및 연관산업 출하 동향
15. 배합사료 생산현황
16. 주요 사료 수입현황

해외통계

1. 주요국 젖소사육현황
2. 세계 우유생산현황
가. 대륙별 우유생산량 나. 국가별 우유생산량
3. 주요국 유제품 생산현황
가. 시유 나. 치즈 다. 전지분유 라. 탈지분유
4. 국제 유제품 수출입동향
가. 수출 나. 수입
5. 주요국 원유 생산자 가격(평균)
6. 국제 유제품 가격
가. 수출가격
나. 주요국 유제품 도매가격
- 탈지분유 - 전지분유 - 치즈 - 버터
다. 곡류 및 축산물 선물시세
7. 미국 낙농산업 통계
8. EU 낙농산업 통계
9. 일본 낙농산업 통계
10. 호주 낙농산업 통계

국내통계

1. 젖소 사육현황

(호, 두)	목장수		50두이상	사육두수		착유우	호당사육두수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6	8,260	-7.4	4,388	464,056	-3.1	220,170	56.2	3.7
2007	7,657	-7.3	4,360	453,403	-2.3	215,666	59.2	5.3
2008	7,000	-8.6	4,278	445,754	-1.7		63.7	7.6
2006 06	8,641	-3.1	4,425	471,414	-2.2	224,677	54.6	1.9
2006 09	8,508	-1.5	4,353	467,602	-0.8	221,497	55.0	-
2006 12	8,260	-2.9	4,388	464,056	-0.8	220,170	56.2	1.8
2007 03	8,138	-1.5	4,380	460,578	-0.7	226,303	56.6	1.8
2007 06	7,949	-2.3	4,399	456,386	-0.9	220,013	57.4	-
2007 09	7,810	-1.7	4,323	455,179	-0.3	216,559	58.3	1.8
2007 12	7,657	-2.0	4,360	453,403	-0.4	215,666	59.2	1.7
2008 03	7,407	-3.3	4,314	449,561	-0.8	218,691	60.7	3.4
2008 06	7,219	-2.5	4,237	445,213	-1.0	214,338	61.7	1.6
2008 09	7,159	-0.8	4,229	444,748	-0.1	210,355	62.1	0.6
2008 12	7,000	-2.2	4,278	445,754	0.2	209,124	63.7	2.6
2009 03	7,010	0.1	4,364	447,793	0.5	216,263	63.9	0.3
2009 06	6,874	-1.9	4,266	439,191	-1.9	210,112	63.9	-

출처: 통계청

2.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호)	1~19두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합계	증감		50두이상비율
2006	786	3,086	3,677	711	8,260	-7.4		53.1
2007	608	2,689	3,596	764	7,657	-7.3		56.9
2008	371	2,351	3,433	845	7,000	-8.6		61.1
2006 06	946	3,270	3,781	644	8,641	-3.1		51.2
2006 09	942	3,213	3,691	662	8,508	-1.5		51.2
2006 12	786	3,086	3,677	711	8,260	-2.9		53.1
2007 03	757	3,001	3,677	703	8,138	-1.5		53.8
2007 06	614	2,936	3,679	720	7,949	-2.3		55.3
2007 09	632	2,855	3,578	745	7,810	-1.7		55.4
2007 12	608	2,689	3,596	764	7,657	-2.0		56.9
2008 03	449	2,644	3,533	781	7,407	-3.3		58.2
2008 06	377	2,605	3,444	793	7,219	-2.5		58.7
2008 09	464	2,466	3,413	816	7,159	-0.8		59.1
2008 12	371	2,351	3,433	845	7,000	-2.2		61.1
2009 03	376	2,270	3,486	878	7,010	0.1		62.3
2009 06	401	2,207	3,383	883	6,874	-1.9		62.1

출처: 통계청



3. 젖소 산지가격

(천원)	초유폐기		분유폐기		수정단계	초임만삭	초산우	4산우	노폐우	숫소(600kg)
	암	수	암	수						
2006	378	489	575	739	1,386	2,597	2,391	1,454	771	2,636
2007	338	458	539	731	1,312	2,624	2,411	1,496	784	2,605
2008	147	211	322	443	1,091	2,433	2,236	1,335	651	2,161
2008 06	195	280	396	537	1,154	2,562	2,301	1,381	711	2,285
2008 07	147	201	317	438	1,124	2,529	2,262	1,331	661	2,125
2008 08	73	109	229	336	1,048	2,418	2,229	1,294	582	1,933
2008 09	57	93	213	311	990	2,313	2,154	1,241	549	1,905
2008 10	52	79	191	290	963	2,275	2,138	1,266	568	1,891
2008 11	44	59	173	254	925	2,224	2,075	1,262	597	1,880
2008 12	33	47	156	216	889	2,204	2,037	1,208	560	1,863
2009 01	48	60	181	243	921	2,226	2,064	1,242	620	1,926
2009 02	76	99	208	280	961	2,304	2,100	1,284	666	1,937
2009 03	83	117	218	309	934	2,332	2,117	1,380	719	-
2009 04	86	127	205	301	929	2,351	2,122	1,389	687	-
2009 05	87	138	211	317	951	2,369	2,135	1,397	691	-
2009 06	92	156	219	326	960	2,364	2,157	1,425	716	-

출처 : 농협중앙회

4. 원유생산 및 생산자 가격

(톤, kg, 호)	원유생산량			호당생산량			낙농가수	생산자가격(원/L)
		일평균	증감율			증감율		
2006	2,176,340	5,963	-2.4	722	5.4	8,260	722.4	
2007	2,187,824	5,994	0.5	783	8.4	7,657	728.5	
2008	2,276,818	6,221	3.8	889	13.5	7,000	770.1	
2008 06	179,144	5,971	-4.2	788	-3.7	7,576	717.6	
2008 07	175,213	5,652	-5.3	750	-4.8	7,535	710.5	
2008 08	173,328	5,591	-1.1	746	-0.5	7,492	767.3	
2008 09	167,955	5,599	0.1	748	0.3	7,480	834.9	
2008 10	174,006	5,613	0.3	758	1.3	7,402	846.5	
2008 11	166,857	5,562	-0.9	757	-0.1	7,345	854.9	
2008 12	174,509	5,629	0.7	769	3.0	7,323	856.9	
2009 01	177,384	5,722	2.2	785	4.9	7,289	857.5	
2009 02	164,440	5,873	4.6	808	6.5	7,270	853.2	
2009 03	184,257	5,944	6.9	821	8.4	7,240	854.0	
2009 04	180,549	6,018	7.5	838	12.0	7,180	852.3	
2009 05	184,210	5,942	5.9	833	9.9	7,133	843.3	
2009 06	174,966	5,832	4.9	822	8.5	7,098	836.9	

주) 생산자가격은 낙농진흥회 소속낙농가의 정상유대 수취 가격임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회

5. 유질현황

(%, 천개/ml)	세균수 등급별 점유비					체세포수 등급별 점유비					평균성적		
	1A	1B	2	3	4	1	2	3	4	5	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2006	86.7	10.7	2.0	0.4	0.2	50.3	33.9	10.8	4.2	0.8	3.98	235	24
2007	88.5	9.2	1.8	0.4	0.1	58.0	30.3	8.4	2.8	0.5	4.01	210	22
2008	88.4	9.4	1.7	0.4	0.1	57.6	30.6	8.5	2.9	0.4	4.00	207	21
2008 06	87.1	10.2	2.1	0.4	0.2	58.0	31.1	7.9	2.7	0.3	3.86	205	21
2008 07	84.0	12.6	2.8	0.4	0.2	51.4	33.6	10.7	3.7	0.6	3.84	230	28
2008 08	86.6	10.8	2.1	0.4	0.1	46.5	36.7	11.7	4.4	0.7	3.81	240	21
2008 09	86.4	11.0	2.0	0.5	0.1	53.2	33.4	9.9	3.1	0.4	3.89	222	21
2008 10	88.8	8.9	1.8	0.4	0.1	57.1	31.9	8.5	2.2	0.3	3.96	210	19
2008 11	90.5	7.6	1.5	0.3	0.1	60.7	29.9	7.3	1.9	0.2	4.09	199	20
2008 12	89.8	8.4	1.4	0.3	0.1	60.9	29.1	7.5	2.2	0.3	4.15	202	20
2009 01	87.3	10.6	1.7	0.3	0.1	57.3	30.3	9.0	3.0	0.4	4.19	208	20
2009 02	87.6	10.6	1.3	0.3	0.2	54.6	31.7	9.6	3.6	0.5	4.12	215	20
2009 03	89.8	8.4	1.3	0.3	0.2	57.7	30.2	8.7	3.1	0.3	4.09	203	20
2009 04	92.0	6.4	1.3	0.2	0.1	61.5	28.9	7.2	2.2	0.2	4.02	190	16
2009 05	91.1	7.0	1.5	0.3	0.1	63.4	27.9	6.6	2.0	0.1	3.90	183	19
2009 06	88.2	9.6	1.8	0.3	0.1	61.5	29.6	6.7	2.0	0.2	3.86	191	22

주) 등급별 점유비, 유지방성적은 전국기준. 체세포수, 세균수 평균성적은 낙농진흥회 소속낙농가 기준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회

6. 원유수급현황

(톤)	이 월	공 급			소 비			재 고
		국내생산	수 입	계	국내소비	수 출	계	
2006	116,479	2,176,340	882,332	3,058,672	3,070,140	51,536	3,121,676	53,475
2007	53,475	2,187,824	967,525	3,155,349	3,054,290	47,209	3,101,499	107,325
2008	107,325	2,138,802	885,114	3,023,916	2,980,089	54,810	3,034,899	96,342
2008 06	154,613	179,144	78,978	258,122	268,104	3,623	271,727	141,008
2008 07	141,008	175,213	81,852	257,065	268,118	2,805	270,923	127,150
2008 08	127,150	173,328	66,996	240,324	248,138	3,553	251,691	115,783
2008 09	115,783	167,955	68,594	236,549	246,240	5,604	251,844	100,488
2008 10	100,488	174,006	73,599	247,605	243,573	7,241	250,814	97,279
2008 11	97,279	166,857	65,042	231,899	228,417	3,978	232,395	96,783
2008 12	96,783	174,509	82,015	256,524	253,203	3,762	256,965	96,342
2009 01	96,342	177,384	67,617	341,343	218,604	7,935	226,539	114,804
2009 02	114,804	164,440	65,885	345,129	212,977	7,585	220,562	124,567
2009 03	124,567	184,257	65,862	374,686	246,817	4,969	251,786	122,900
2009 04	122,900	180,549	87,663	391,112	269,608	4,558	274,166	116,946
2009 05	116,946	184,210	71,197	372,353	257,491	2,445	259,936	112,417
2009 06	112,417	174,966	81,865	369,248	269,239	6,046	275,285	93,963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7. 분유재고현황

(톤, %)	분유재고량				원유환산량		
	전지분유	탈지분유	계	증감(전년)	전지분유	탈지분유	계
2006	471	3,964	4,435	-53	3,925	49,550	53,475
2007	525	8,236	8,761	98	4,375	102,950	107,325
2008	259	6,162	6,421	-27	2,158	77,025	79,183
2008 06	1,144	10,518	11,662	22	9,533	131,475	141,008
2008 07	873	9,590	10,463	14	7,275	119,875	127,150
2008 08	601	8,862	9,463	11	5,008	110,775	115,783
2008 09	450	7,739	8,189	0	3,750	96,738	100,488
2008 10	305	7,579	7,884	3	2,542	94,738	97,280
2008 11	232	7,588	7,820	-3	1,933	94,850	96,783
2008 12	259	6,162	6,421	-27	2,158	77,025	79,183
2009 01	365	8,941	9,306	-13	3,042	111,762	114,804
2009 02	407	9,694	10,101	-17	3,392	121,175	124,567
2009 03	486	9,508	9,994	-14	4,050	118,850	122,900
2009 04	484	9,033	9,517	-11	4,033	112,913	116,946
2009 05	473	8,678	9,151	-25	3,942	108,475	112,417
2009 06	360	7,277	7,637	38	3,000	90,963	93,963

주) 환산율 전지분유 : 12%, 탈지분유 : 8%

출처 : 한국유가공협회

8. 유제품 수입현황

(톤)	크림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	혼합분유	버터	치즈	유당	조제분유 (19류)	조제분유 (18류)	버터기제 조제품
2006	2,159	6,735	1,992	52,511	26,527	3,206	44,032	14,296	2,684	532	19,397
2007	2,589	4,994	1,136	46,792	31,723	4,096	49,471	13,857	2,372	699	21,393
2008	1,687	5,022	1,261	29,596	26,039	3,092	47,371	14,073	1,991	472	20,270
2008 06	167	283	84	2,565	2,532	159	4,147	1,325	420	14	1,809
2008 07	101	337	104	3,505	3,018	229	3,991	917	55	0	2,002
2008 08	110	518	129	2,595	2,284	206	3,083	1,052	215	8	1,534
2008 09	169	554	35	2,095	2,397	203	3,186	803	107	40	1,745
2008 10	237	827	89	3,593	1,698	231	3,943	810	166	49	1,777
2008 11	207	628	132	816	1,186	153	3,876	1,101	101	70	1,287
2008 12	293	529	83	23	2,260	177	4,542	1,835	42	77	1,751
2009 01	408	900	53	1,801	1,670	238	3,396	705	94	56	841
2009 02	583	689	168	2,223	1,443	175	3,610	549	96	40	1,175
2009 03	542	629	133	3,349	1,397	453	3,739	969	112	45	1,773
2009 04	704	570	67	2,196	2,548	360	4,679	921	194	17	2,318
2009 05	685	664	51	2,689	1,735	192	3,893	844	144	14	1,586
2009 06	948	820	91	2,801	2,443	838	3,984	1,566	101	1	3,105

출처 : 관세청

9. 유제품별 생산현황

(톤)	시유	발효유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2006	1,683,582	504,260	27,929	18,318	4,020	3,891
2007	1,696,546	485,218	24,366	22,158	3,565	3,948
2008	1,702,295	454,930	25,016	19,885	3,430	3,512
2008 06	149,168	41,774	2,010	1,020	247	146
2008 07	152,244	41,305	2,051	880	128	161
2008 08	145,487	36,842	1,963	1,446	80	299
2008 09	149,154	38,742	1,936	742	156	157
2008 10	147,340	37,540	2,460	1,280	163	214
2008 11	134,403	31,638	1,975	1,522	160	268
2008 12	135,952	33,953	2,257	1,756	351	304
2009 01	119,015	32,361	2,297	2,526	486	571
2009 02	116,653	32,454	1,997	1,873	335	482
2009 03	146,972	40,903	2,191	1,357	455	332
2009 04	147,556	42,528	1,903	1,574	319	273
2009 05	150,136	41,699	1,834	967	313	202
2009 06	152,969	41,314	1,875	498	40	18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10. 유제품 유통가격

(원)	유제품 소비자 가격						원료용 유제품 거래 시세	
	시판우유 200ml	분유 800g	치즈슬라이스 100g	유산균발효유 65ml	농후발효유 150ml	원우유 1L	전지분유 kg	탈지분유 kg
2006	465	17,989	1,385	130	1,000	1,725	3,401	2,781
2007	464	21,542	1,441	130	1,083	1,733	3,957	3,943
2008	528	21,528	1,786	147	1,133	1,916	7,286	5,676
2008 06	464	21,452	1,706	160	1,100	1,793	7,260	5,650
2008 07	515	21,364	1,708	150	1,100	1,847	7,220	5,560
2008 08	520	22,101	1,708	150	1,100	1,889	7,190	5,360
2008 09	624	21,307	1,922	150	1,200	2,000	7,290	5,170
2008 10	628	21,739	1,939	150	1,200	2,163	8,040	5,550
2008 11	628	21,767	1,993	150	1,200	2,170	8,870	5,750
2008 12	628	21,767	1,993	150	1,200	2,170	9,060	5,970
2009 01	600	20,920	3,432	524	960	2,169	9,030	5,780
2009 02	600	20,983	3,439	524	965	2,173	9,450	5,430
2009 03	599	21,076	3,432	523	963	2,163	8,940	5,200
2009 04	596	21,413	3,435	523	961	2,157	8,330	4,570
2009 05	598	21,375	3,440	520	961	2,139	7,030	4,020
2009 06	597	21,775	3,438	518	959	2,132	5,240	3,470

주) 1. 2009년부터 유제품소비자가격은 대형온라인쇼핑몰 가격임

2. 2009년부터 치즈용량 200g으로 변경, 유산균발효유는 호상발효유 100ml로 변경

출처 :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진흥회



11. 가구소득대비 낙농품 소비액

(원)	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낙농품 및 비주류음료						식료품이외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유제품 및 알	그외 식료품	
2006	3,068,275	2,494,561	1,945,375	282,581	23,422	37,458	38,499	22,680	160,522	1,662,794
2007	3,221,400	2,595,115	2,016,711	285,170	22,377	38,298	39,175	22,384	162,936	1,731,541
2008	3,415,589	2,731,271	2,115,130	306,604	23,812	42,038	41,429	25,447	173,878	1,808,526
2006 1/4	3,055,231	2,560,109	2,009,769	280,988	20,040	40,415	40,897	22,522	157,114	1,728,781
2006 2/4	2,989,626	2,392,916	1,865,333	260,012	19,179	32,860	33,759	22,979	151,235	1,605,321
2006 3/4	3,052,157	2,471,931	1,932,476	275,366	21,734	35,389	37,161	23,387	157,695	1,657,110
2006 4/4	3,176,085	2,553,290	1,973,922	313,956	32,736	41,170	42,179	21,831	176,040	1,659,966
2007 1/4	3,239,146	2,661,394	2,082,575	279,677	19,056	40,944	42,263	22,064	155,350	1,802,898
2007 2/4	3,091,388	2,475,093	1,926,620	258,454	18,565	32,948	35,148	22,233	149,560	1,668,166
2007 3/4	3,273,441	2,638,021	2,037,014	305,116	21,849	43,800	46,121	22,696	170,650	1,731,898
2007 4/4	3,281,623	2,605,955	2,020,633	297,432	30,039	35,501	33,169	22,542	176,181	1,723,201
2008 1/4	3,450,145	2,846,775	2,214,331	295,814	19,231	45,166	41,916	24,269	165,232	1,918,517
2008 2/4	3,301,486	2,618,531	2,042,446	281,268	19,968	35,170	37,334	24,876	163,920	1,761,178
2008 3/4	3,506,351	2,778,431	2,133,856	328,663	23,210	46,675	49,893	26,299	182,586	1,805,193
2008 4/4	3,404,375	2,681,347	2,069,886	320,672	32,839	41,141	36,574	26,342	183,776	1,749,214
2009 1/4	3,476,178	2,784,828	2,137,933	285,595	18,648	45,038	36,038	27,592	158,279	1,852,338

자료 : 통계청

12. 가구소득별 낙농품 소비 비중

(원,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유제품 및 알						유제품 및 알/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06	199,799	248,154	278,667	311,378	374,889	282,581	12,949	19,607	22,222	25,190	27,434	21,481	6.5	7.9	8.0	8.1	7.3	7.6
2007	203,759	248,664	283,314	312,609	377,468	285,170	12,548	18,365	22,280	24,723	28,037	21,191	6.2	7.4	7.9	7.9	7.4	7.4
2008	222,240	271,569	303,746	336,326	399,119	306,604	14,576	21,143	24,705	27,545	31,010	23,797	6.6	7.8	8.1	8.2	7.8	7.8
2006 1/4	190,039	240,176	276,867	310,475	387,355	280,988	13,416	20,456	23,490	26,211	29,036	22,522	7.1	8.5	8.5	8.4	7.5	8.0
2006 2/4	181,880	232,261	258,779	288,604	338,501	260,012	14,134	21,134	23,819	26,703	29,103	22,979	7.8	9.1	9.2	9.3	8.6	8.8
2006 3/4	200,111	244,882	272,136	301,042	358,632	275,366	14,505	21,438	23,936	27,468	29,584	23,367	7.2	8.8	8.8	9.1	8.2	8.5
2006 4/4	227,167	275,297	306,846	345,391	415,070	313,956	13,975	19,322	22,431	25,890	27,537	21,831	6.2	7.0	7.3	7.5	6.6	7.0
2007 1/4	194,989	235,965	274,329	303,218	389,839	279,677	13,205	18,653	23,405	25,909	29,143	22,064	6.8	7.9	8.5	8.5	7.5	7.9
2007 2/4	182,928	226,258	260,499	284,029	338,508	258,454	14,050	18,792	23,734	24,994	29,589	22,233	7.7	8.3	9.1	8.8	8.7	8.6
2007 3/4	218,766	266,539	301,683	335,482	403,088	305,116	13,969	19,855	23,689	26,536	29,430	22,696	6.4	7.4	7.9	7.9	7.3	7.4
2007 4/4	218,353	265,895	296,747	327,706	378,438	297,432	13,194	19,682	23,263	26,699	29,866	22,542	6.0	7.4	7.8	8.1	7.9	7.6
2008 1/4	210,489	260,883	291,715	324,438	391,511	295,814	15,532	21,888	24,584	27,732	31,608	24,269	7.4	8.4	8.4	8.5	8.1	8.2
2008 2/4	200,106	249,010	278,663	313,255	365,299	281,268	15,940	22,120	25,833	28,514	31,972	24,876	8.0	8.9	9.3	9.1	8.8	8.8
2008 3/4	240,824	292,358	328,425	352,942	428,750	328,663	16,871	23,264	27,864	29,685	33,810	26,299	7.0	8.0	8.5	8.4	7.9	8.0
2008 4/4	237,540	284,027	316,182	354,670	410,916	320,672	15,969	23,719	27,736	30,082	34,203	26,342	6.7	8.4	8.8	8.5	8.3	8.2
2009 1/4	202,813	246,508	283,041	319,627	375,966	285,595	16,841	23,984	28,855	32,727	35,549	27,592	8.3	9.7	10.2	10.2	9.5	9.7

출처 : 통계청

13. 제조업 가동률 지수

(%)	제조업	식료품	낙농제품 및 빙과류	곡물가공, 전분	도축, 육류가공	음료	알코올음료	비알콜음료 및 얼음
2006	100.3	98.5	97.8	95.8	111.5	99.0	100.6	96.6
2007	100.4	98.2	95.9	93.0	120.0	99.2	103.6	92.7
2008	96.8	98.8	88.5	88.4	139.2	102.7	106.0	97.9
2008 06	100.6	100.0	88.5	81.9	156.8	99.8	109.8	87.6
2008 07	99.3	100.7	90.7	88.3	153.6	111.4	115.4	105.0
2008 08	98.3	98.3	86.6	78.9	150.0	99.2	101.0	98.3
2008 09	97.0	94.8	89.2	78.5	112.7	103.6	105.7	100.5
2008 10	96.9	94.9	86.3	82.8	131.0	101.2	101.0	99.9
2008 11	85.8	93.0	85.1	83.0	122.0	100.2	104.1	95.1
2008 12	78.1	95.7	85.5	88.5	125.2	100.6	103.9	96.2
2009 01	77.0	94.7	84.5	94.7	120.8	97.9	93.5	104.3
2009 02	83.9	91.7	85.9	84.3	123.4	97.3	96.8	97.8
2009 03	86.8	95.2	87.4	94.0	120.7	89.8	95.2	82.3
2009 04	89.7	97.4	88.7	96.4	122.2	95.4	94.2	90.7
2009 05	91.4	95.0	86.2	93.1	118.7	91.7	97.6	84.1
2009 06	95.9	100.5	88.4	98.3	139.7	94.6	101.8	84.2

주) 가동률지수는 계절조정지수로 2005=100 임

출처 : 통계청

14. 유가공 및 연관산업 출하 동향

(kl, 톤)	낙농제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시유	유산균발효	치즈	탄산음료	혼합음료	과즙음료	커피음료	두유
2006	1,679,629	592,619	37,118	1,189,598	652,292	645,821	166,503	193,367
2007	1,645,667	557,297	43,539	1,107,193	697,469	661,930	172,840	194,980
2008	1,655,240	509,336	46,379	1,177,682	729,566	693,549	175,158	187,911
2008 06	144,705	46,173	3,980	112,415	63,451	66,990	15,477	15,250
2008 07	149,706	46,547	3,868	108,328	76,731	64,474	18,644	13,768
2008 08	140,736	43,594	3,674	105,411	74,972	67,473	18,424	15,840
2008 09	145,795	42,888	3,806	94,543	75,216	72,131	16,872	16,689
2008 10	145,447	42,157	4,036	100,065	65,805	59,624	18,511	17,117
2008 11	131,061	35,178	3,684	78,724	44,207	45,881	13,938	16,085
2008 12	134,611	37,045	4,163	90,672	37,786	39,647	12,435	12,676
2009 01	120,370	36,602	4,095	95,774	40,848	48,749	12,286	15,857
2009 02	120,630	36,187	3,801	98,628	45,747	52,449	13,217	12,335
2009 03	144,902	45,032	4,092	93,079	47,512	52,838	12,405	14,586
2009 04	143,882	47,311	4,102	102,032	57,797	58,166	14,441	15,942
2009 05	146,340	45,810	3,843	106,542	66,028	61,870	15,218	15,071
2009 06	148,938	46,063	3,995	102,502	65,012	69,771	16,971	14,931

주) 치즈는 톤, 다른제품은 kl

출처 : 통계청



15. 배합사료 생산현황

(톤, kg)	생산량						비유초기 사료	
		양계	양돈	낙농	비육우	기타	생산량	가격
2006	15,474,981	4,267,345	5,175,067	1,539,243	3,573,731	919,595	585,356	292.0
2007	16,148,214	4,403,051	5,409,210	1,449,231	3,880,384	1,006,338	550,622	331.2
2008	16,322,936	4,285,756	5,306,987	1,370,319	4,164,606	1,003,272	542,613	429.6
2008 06	1,310,661	374,009	413,588	111,451	329,752	81,861	44,714	412.8
2008 07	1,309,179	373,838	415,059	107,162	333,148	79,972	42,392	431.5
2008 08	1,222,666	321,034	418,445	104,286	308,725	70,176	40,944	450.8
2008 09	1,328,005	338,937	456,090	112,087	345,871	75,020	44,755	461.7
2008 10	1,416,972	348,971	490,042	118,268	380,960	78,731	46,348	489.1
2008 11	1,265,356	318,881	451,962	102,909	320,538	71,066	40,364	504.1
2008 12	1,437,141	361,371	479,065	120,283	395,347	81,075	48,241	508.2
2009 01	1,308,764	338,227	447,241	113,391	338,303	71,602	46,351	517.9
2009 02	1,186,697	310,968	403,006	99,151	302,987	70,585	40,427	527.5
2009 03	1,346,459	367,031	432,022	112,964	351,796	82,646	45,611	517.3
2009 04	1,382,769	386,563	435,413	114,685	358,574	87,534	45,648	517.5
2009 05	1,345,884	396,408	416,194	105,862	336,287	91,133	40,642	506.3
2009 06	1,398,453	429,803	415,962	106,610	349,873	96,205	39,197	517.5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16. 주요 사료 수입현황

(톤)	옥수수	밀	면실	대두박	야자박	배합사료	사료용 근채류
2006	6,756,785	1,279,735	133,607	1,709,150	406,814	79,841	673,430
2007	6,747,602	1,042,010	127,843	1,914,472	387,479	99,890	879,246
2008	7,468,643	372,369	103,279	1,830,427	517,946	160,844	856,009
2008 06	710,166	-	6,525	157,813	48,483	15,229	53,797
2008 07	697,107	-	6,226	171,314	38,831	16,821	81,221
2008 08	556,037	-	7,293	119,286	44,785	21,182	51,197
2008 09	580,966	14,798	6,468	146,701	32,213	19,924	79,210
2008 10	493,444	97,611	9,097	194,612	27,385	13,379	82,176
2008 11	389,616	49,420	6,692	182,628	34,100	13,246	54,121
2008 12	536,021	201,397	10,191	170,265	52,710	8,313	49,846
2009 01	413,802	111,722	8,079	128,152	21,180	7,753	25,002
2009 02	317,603	119,775	5,730	131,342	18,572	8,113	41,832
2009 03	255,582	63,856	7,403	116,516	27,635	4,291	56,516
2009 04	548,486	185,525	5,378	93,927	23,189	10,196	72,348
2009 05	696,544	121,300	5,765	181,996	32,588	7,617	64,969
2009 06	601,194	188,261	9,443	341,369	27,189	7,778	75,816

출처 : 무역협회

해외통계

1. 주요국 젖소사육현황

(천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측)
독일	4,448	4,373	4,338	4,287	4,164	4,054	4,087	4,050
프랑스	4,195	4,128	4,026	3,947	3,958	3,878	3,846	3,800
이탈리아	2,169	1,911	1,913	1,838	1,842	1,814	1,839	
네덜란드	1,546	1,486	1,478	1,471	1,433	1,420	1,413	1,406
영국	2,208	2,229	2,207	2,152	2,007	2,005	1,977	1,960
EU-27	26,956	26,240	2,569	25,183	24,701	24,357	24,098	23,900
러시아	12,700	12,200	11,100	11,000	9,647	9,647	9,405	9,210
캐나다	1,091	1,084	1,065	1,055	1,041	1,019	1,005	989
미국	9,114	9,139	9,083	9,012	9,043	9,112	9,158	9,270
호주	2,123	2,048	2,038	2,010	1,870	1,786	1,700	1,700
뉴질랜드	3,682	3,750	3,851	3,867	4,100	4,140	4,167	
아르헨티나	2,400	2,200	2,100	2,200	2,300	2,150	2,150	
브라질	15,900	15,600	15,300	15,200	15,100	15,290	15,925	
중국	5,662	6,873	8,932	11,080	12,161	13,632	12,180	
일본	1,124	1,126	1,121	1,088	1,055	1,046	1,011	
인도	64,494	65,526	65,135	68,256	69,759			

주) 인도는 몰소 포함

출처 : ZMP, IDF, EUROSTAT, FAOSTAT, USDA.

2. 세계 우유생산현황

가. 대륙별 우유생산량

(백만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잠정)
아프리카	41.9	43.3	44.7	45.6	46.1	46.3	46.5	47.5
북미	83.2	85.2	85.3	85.7	88.3	90.3	90.5	94.6
중미	14.2	15.7	15.7	15.8	15.8	15.9	16.2	16.2
남미	44.8	46.0	46.5	46.7	48.3	49.5	50.5	50.5
아시아	74.3	79.0	84.2	90.7	97.3	104.6	110.9	116.0
EU 27	149.1	150.3	150.9	149.9	150.1	148.5	148.6	150.1
유럽기타국	61.6	61.8	61.5	61.7	61.4	61.3	61.9	61.9
오세아니아	24.9	24.5	25.0	25.0	25.6	25.4	24.6	25.8
세계전체	497.6	507.8	517.1	525.5	541.3	555.7	563.7	576.0

주) 오세아니아는 6월-익년5월기준

나. 국가별 우유생산량

(천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잠정)	2008(예측)
독일	28,191	27,874	28,533	28,245	28,453	27,955	28,403	28,700
프랑스	24,678	25,254	24,667	24,452	24,885	24,195	24,200	25,200
이탈리아	11,108	10,743	10,750	10,869	10,897	10,821	10,840	11,000
네덜란드	11,079	10,797	11,075	10,905	10,827	10,994	11,134	11,200
영국	14,707	14,870	15,013	14,552	14,470	14,348	14,066	14,004
EU 27	149,112	150,343	150,853	149,896	150,067	148,514	148,616	150,070
러시아	33,000	33,467	33,300	30,600	31,440	32,161	32,680	32,700
호주	11,609	10,636	10,377	10,428	10,392	9,658	9,373	9,475
뉴질랜드	13,300	13,900	14,599	14,530	15,200	15,700	15,200	16,300
캐나다	8,148	8,017	8,013	8,137	8,001	7,856	8,096	8,209
미국	75,068	77,139	77,289	77,534	80,254	82,462	84,188	86,400
브라질	21,125	22,292	22,922	24,202	25,384	26,185	25,377	26,000
중국	10,255	12,998	17,463	22,606	27,534	31,934	35,250	38,000
일본	8,300	8,385	8,400	8,329	8,285	8,138	8,007	8,000
인도	34,160	34,960	34,973	36,018	37,344	39,760	41,150	42,000
세계전체	497,570	507,763	517,067	525,543	541,340	555,704	563,704	576,000

주)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는 우유생산회계가 각각 다름

출처 : ZMP, IDF, EUROSTAT, FAOSTAT, USDA.



3. 주요국 유제품 생산현황

가. 시유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U 27	33,146	33,603	33,584	33,700	33,701	33,838	33,800	33,737
미국	24,979	24,533	24,650	24,939	24,661	24,740	25,010	24,987
캐나다	2,699	2,792	2,694	2,709	2,741	2,717	2,730	2,753
브라질	12,690	12,670	12,295	12,391	12,743	13,175	13,300	
러시아		6,724	7,747	8,473	9,023	9,394	9,999	10,048
일본	4,571	4,451	4,399	4,362	4,454	4,290	4,150	4,039
중국	1,230	2,380	3,551	5,829	8,067	9,748	10,330	11,960
호주	1,978	1,966	1,924	1,961	1,960	2,127	2,227	2,271

주) 1. 버터밀크 포함. 2. 호주 등 일부국가는 회계연도가 익년 6월임.

출처 : ZMP, IDF, EUROSTAT.

나. 치즈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U 27	7,249	7,504	7,657	7,724	7,877	8,034	8,166	8,264
미국	4,079	4,084	4,217	4,231	4,378	4,506	4,677	4,745
캐나다	358	330	359	366	372	421	430	443
브라질	445	460	470	460	468	495	528	580
아르헨티나	453	431	380	332	378	414	467	487
러시아	221	255	309	335	348	371	405	434
호주	376	413	370	384	388	373	364	352
뉴질랜드	289	311	285	321	290	280	340	290
일본	126	123	123	119	120	123	125	125

주) 1. 일부 추정치임. 2. 미국, 캐나다는 커티지치즈 포함 3. 오세아니아는 6월-익년5월 기준

출처 : ZMP, IDF, EUROSTAT, FAOSTAT, USDA.

다. 전지분유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U 25	971	927	868	870	856	851	779	764
브라질	256	345	355	390	420	440	505	535
아르헨티나	202	203	204	198	260	254	260	185
멕시코	151	143	144	151	171	166	184	202
칠레	52	63	59	53	54	51	54	51
중국	615	610	680	830	900	900	1,100	1,300
호주	205	239	194	187	189	158	135	133
뉴질랜드	515	500	615	650	670	675	675	660

출처 : ZMP, IDF, EUROSTAT, FAOSTAT, USDA.

라. 탈지분유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U 25	1,240	1,182	1,314	1,292	1,018	1,034	947	982
미국	661	644	727	721	641	698	689	685
브라질	62	103	107	108	110	113	117	128
캐나다	69	90	82	91	88	73	72	75
아르헨티나	45	41	34	31	36	32	30	24
러시아	97	108	92	110	110	110	123	132
우크라이나	61	72	43	71	83	83	81	95
뉴질랜드	251	245	300	275	235	250	350	280
호주	265	257	218	199	207	228	209	174
일본	194	175	183	183	183	187	181	173

출처 : ZMP, IDF, EUROSTAT, FAOSTAT, USDA.

4. 국제 유제품 수출입동향

가. 수출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버터 및 버터오일								
세계 전체	700	700	800	850	880	840	840	800
뉴질랜드	329	332	386	378	330	320	391	364
EU	175	172	208	301	333	311	243	211
호주	109	109	110	83	74	72	78	66
탈지분유								
세계 전체	1,230	1,100	1,080	1,080	1,180	1,100	1,150	1,100
뉴질랜드	251	245	345	287	250	220	316	281
미국	113	110	112	147	270	289	292	257
호주	218	244	217	161	152	165	184	134
전지분유								
세계 전체	1,415	1,494	1,600	1,600	1,730	1,680	1,700	1,580
뉴질랜드	474	476	540	657	629	576	645	680
EU	575	477	495	481	509	486	434	364
아르헨티나	104	83	140	106	182	166	215	115
치즈								
세계 전체	1,227	1,200	1,250	1,350	1,450	1,450	1,480	1,530
EU	458	470	484	509	576	546	582	594
뉴질랜드	262	262	290	308	277	283	309	309
호주	223	217	207	212	237	202	209	217

주) 호주 및 뉴질랜드는 익년 6월말 기준임.

나. 수입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버터 및 버터오일								
세계 전체	700	700	800	850	880	840	840	800
러시아	54	109	120	133	101	83	112	75
EU	104	114	116	115	93	82	85	85
멕시코	34	37	46	46	63	71	49	59
전지분유								
세계 전체	1,415	1,494	1,600	1,600	1,730	1,680	1,700	1,580
알제리	110	110	116	130	161	167	182	160
중국	29	23	26	89	90	64	67	58
필리핀	56	49	39	44	50	42	40	42
탈지분유								
세계 전체	1,230	1,100	1,080	1,080	1,180	1,100	1,150	1,100
인도네시아		74	72	72	85	87	86	91
멕시코	129	141	132	173	168	155	111	121
알제리	92	98	114	81	91	84	68	91
치즈								
세계 전체	1,227	1,200	1,250	1,350	1,450	1,450	1,480	1,530
러시아	36	112	98	176	213	260	218	234
일본	205	202	204	194	219	212	207	225
미국	189	215	216	216	214	209	206	198
EU	148	174	156	175	112	102	105	94

출처 : ZMP, IDF, EUROSTAT, USDA, GTA.



5. 주요국 원유 생산자 가격(평균)

	통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USD/ 100kg	2007 EUR/ 100kg
		자국화폐/100kg								
벨기에	EUR	30.06	27.50	27.51	27.82	26.40	25.84	32.54	44.61	32.54
덴마크	DKK	242.0	243.0	238.0	225.0	217.0	212.0	235.0	43.24	31.54
독일	EUR	32.82	29.98	28.49	27.95	27.60	27.35	33.46	45.87	33.46
스페인	EUR	30.68	29.22	30.19	31.94	30.29	30.19	36.21	49.64	36.21
프랑스	EUR	30.20	29.22	28.70	27.81	27.00	25.94	27.96	38.33	27.96
아일랜드	EUR	29.60	27.30	26.80	26.89	26.30	25.44	32.52	44.58	32.52
이탈리아	EUR	34.50	32.80	32.90	32.00	33.24	32.35	35.10	48.12	35.10
네덜란드	EUR	32.58	33.68	32.00	31.00	31.00	30.00	35.00	47.98	35.00
오스트리아	EUR	33.32	31.54	29.68	29.50	29.45	29.90	33.75	46.27	33.75
포르투갈	EUR	32.17	32.27	32.28	31.71	31.05	29.74	32.90	44.69	32.60
핀란드(유지방4.3%기준)	EUR	32.50	32.00	32.50	30.70	30.62	29.79	31.83	43.63	31.82
스웨덴(유지방4.2%기준)	SEK	293.0	299.0	301.0	283.0	275.0	271.0	295.0	43.72	31.89
영국	GBP	18.70	16.61	17.51	17.93	17.93	17.44	20.06	40.18	29.31
EU15국평균	EUR	31.40	29.65	28.99	28.70	28.20	27.60	31.80	43.60	31.80
체코	CZK	753	788	756	780	790	750	810	39.99	29.17
에스토니아	EEK	319.7	280.0	288.2	383.8	397.5	380.5	420.2	36.82	26.86
라트비아	LVL	9.31	9.41	9.61	13.10	15.52	16.26	18.30	35.84	26.14
리투아니아	LTL	50.60	45.70	40.90	48.80	56.60	61.00	68.40	27.15	19.80
헝가리(유지방3.68%기준)	HUF	68.50	72.30	72.09	60.28	60.95	60.53	70.60	38.53	28.10
폴란드	PLN	76.19	69.71	69.76	84.19	90.21	90.17	103.93	37.66	27.47
슬로베니아	EUR	28.90	28.17	27.45	26.59	26.34	26.65	27.83	38.15	27.83
슬로바키아(유지방3.6%)	SKK	855.0	900.0	895.0	917.0	947.0	931.0	975.0	39.58	28.87
아이슬란드	ISK	36.50	39.06	41.71	42.71	44.17	45.45	48.64	76.10	55.51
노르웨이	NOK	329	336	344	348	353	361	380	64.99	47.40
스위스(유지방3.8%)	CHF	79.96	78.44	75.54	74.63	72.41	71.82	70.04	58.46	42.64
크로아티아	HRK	278	285	285	285	204	205	212	38.53	28.10
러시아	RUB					630	654	853	33.39	24.36
러시아	USD	15.21	13.81	15.93	20.00	23.62	21.90	33.39	33.39	24.36
우크라이나	UAH			71.00	83.53	112.69	107.02	172.79	35.36	25.85
우크라이나	USD	11.24	10.16	13.07	15.70	22.00	16.45	35.36	35.36	25.85
미국	USD	33.15	26.85	27.67	35.56	33.36	28.44	42.17	42.17	30.76
캐나다(유지방3.6%)	CAD	55.38	56.21	59.63	60.08	64.18	65.50	68.68	64.15	46.79
멕시코	MXN	311	306	313	340	365	379	417	34.66	25.28
호주	AUD	32.03	26.31	27.09	30.58	32.04	32.23	47.00	42.13	28.67
뉴질랜드	NZD	42.70	30.00	35.00	39.00	33.50	36.80	64.10	49.23	33.95
아르헨티나	USD	14.50	8.50	16.50	16.00	17.70	18.00	25.00	25.00	18.23
칠레	USD	13.00	15.00	17.00	22.00	25.00	23.21	34.00	34.00	24.80
중국(유지방3.4%)										
도시지역	CNY	190	210	220	210	220	230	280	36.84	26.87
농촌지역	CNY	140	150	155	150	150	170	250	32.90	24.00
인도	INR	825	840	894	915	966	1,018	1,151	26.32	19.20
일본	JPY	8,220	8,220	8,320	8,270	8,190	8,000	7,890	67.08	48.93
한국	KRW			67,100	67,100	67,100	67,100	67,100	71.81	52.38

주) 1. 별도 표시외에는 유지방 3.7%기준 2. Kg 대 리터 환산율 0.971 3. EU/달러 환율환산 : 2004년 기준

출처 : IDF, ZMP, EUROSTAT

6. 국제 유제품 가격

가. 수출가격

(USD/톤)	오세아니아				서유럽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2006	1,700 - 2,000	2,600 - 3,100	2,600 - 3,000	2,700 - 2,900	1,950 - 2,100	2,950 - 3,150	2,950 - 3,100
2007	3,700 - 4,400	4,000 - 5,000	4,600 - 5,000	5,200 - 5,800	4,200 - 4,500	3,600 - 3,800	4,350 - 4,700
2008	1,800 - 2,500	1,800 - 2,100	1,900 - 2,300	2,800 - 3,500	2,850 - 3,150	2,150 - 2,350	2,750 - 2,925
2008 06	3,750 - 4,200	3,300 - 3,700	4,200 - 4,600	4,900 - 5,200	4,275 - 4,400	3,700 - 4,000	4,400 - 4,700
2008 07	3,800 - 4,300	3,400 - 3,800	4,200 - 4,500	4,800 - 5,200	4,100 - 4,575	3,500 - 3,850	4,025 - 4,575
2008 08	3,400 - 3,800	3,100 - 3,500	3,400 - 3,800	4,400 - 4,800	3,900 - 4,050	3,100 - 3,250	3,800 - 3,950
2008 09	3,000 - 3,500	2,600 - 3,100	2,900 - 3,200	4,000 - 4,500	3,500 - 3,700	2,525 - 3,000	3,200 - 3,600
2008 10	2,700 - 3,000	2,200 - 2,600	2,700 - 3,000	3,750 - 4,000	2,850 - 3,100	2,225 - 2,450	2,925 - 3,100
2008 11	2,500 - 3,000	2,000 - 2,300	2,200 - 2,700	3,000 - 3,600	2,675 - 2,900	1,975 - 2,150	2,575 - 2,800
2008 12	1,800 - 2,500	1,800 - 2,100	1,900 - 2,300	2,800 - 3,500	2,850 - 3,150	2,150 - 2,350	2,750 - 2,925
2009 01	1,600 - 2,100	1,600 - 1,900	1,700 - 2,000	2,200 - 2,700	2,500 - 2,750	1,975 - 2,250	2,262 - 2,325
2009 02	1,600 - 2,100	1,600 - 2,000	1,700 - 2,100	2,200 - 2,700	2,200 - 2,725	1,900 - 2,150	2,100 - 2,250
2009 03	1,600 - 2,050	1,800 - 2,200	1,900 - 2,200	2,200 - 2,600	2,600 - 2,900	2,025 - 2,250	2,000 - 2,450
2009 04	1,675 - 2,050	1,800 - 2,150	2,050 - 2,275	2,300 - 2,700	2,700 - 2,900	2,033 - 2,400	2,250 - 2,450
2009 05	1,700 - 2,000	1,900 - 2,100	2,100 - 2,300	2,425 - 2,750	2,825 - 3,038	2,163 - 2,325	2,488 - 2,675
2009 06	1,700 - 2,050	1,900 - 2,125	1,800 - 2,300	2,400 - 2,750	2,850 - 3,138	2,288 - 2,400	2,575 - 2,700

주) 년도는 년도말 기준, 월은 매월 마지막주 기준임

출처 : USDA, International Dairy Markets News

나. 주요국 유제품 도매가격

- 탈지분유

(\$/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	뉴질랜드
2006	2,062	3,144	3,153	3,104	2,887	2,320	3,013
2007	3,425	4,286	4,043	3,773	4,114	3,732	4,475
2008	2,352	2,285	2,088	1,872	2,098	1,812	1,988
2008 06	3,297	3,959	3,735	3,579	3,436	3,156	3,425
2008 07	3,343	4,052	3,626	3,279	3,721	3,178	3,560
2008 08	3,181	3,585	3,300	3,015	3,319	3,084	3,400
2008 09	2,873	2,669	2,879	2,591	2,989	2,774	2,800
2008 10	2,539	2,266	2,398	2,225	2,505	2,188	2,675
2008 11	2,292	2,260	2,036	1,845	2,218	1,900	2,213
2008 12	2,352	2,285	2,088	1,872	2,098	1,812	1,988
2009 01	2,255	2,148	2,000	1,867	1,904	1,791	1,820
2009 02	1,982	2,109	1,984	1,741	1,759	1,758	1,753
2009 03	2,020	2,167	2,087	1,800	1,884	1,756	1,803
2009 04	1,971	2,201	-	1,814	2,060	1,781	1,953
2009 05	2,054	2,294	-	1,931	2,134	1,837	2,000
2009 06	2,032	2,347	-	2,060	2,151	1,834	2,020

주) 년도 가격은 년도말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월평균 환율 적용

출처 : ZMP



– 전지분유

(\$/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2006	3,434	3,441	3,245	3,315	2,825
2007	4,779	4,869	4,553	4,706	4,675
2008	-	2,609	-	-	2,223
2008 06	4,622	4,378	4,736	4,513	4,463
2008 07	4,619	4,556	4,698	4,471	4,395
2008 08	4,215	4,069	4,219	4,065	3,843
2008 09	3,700	3,546	3,690	3,611	3,306
2008 10	3,224	3,084	3,115	3,112	2,917
2008 11	2,876	2,712	2,774	2,765	2,585
2008 12	-	2,609	-	-	2,223
2009 01	-	2,322	-	-	2,017
2009 02	-	2,205	-	-	1,851
2009 03	-	2,280	-	-	2,158
2009 04	-	2,359	-	-	2,235
2009 05	-	2,602	-	-	2,144
2009 06	-	2,697	-	-	1,886

주) 년도 가격은 년도말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월평균 환율 적용

출처 : ZMP

– 치즈

(\$/톤)	독일 에담	독일 에멘탈	이탈리아 그라나파다노	영국 체다(마일드)	영국 체다(숙성)	미국 체다
2006	-	4,240	-	2,510	3,170	-
2007	6,097	6,265	9,616	4,152	4,808	4,480
2008	3,645	5,253	7,920	3,704	4,445	3,068
2008 06	4,950	5,914	9,600	4,435	5,135	4,471
2008 07	5,777	6,306	9,814	4,493	5,203	4,369
2008 08	5,232	6,300	9,187	4,275	4,950	3,841
2008 09	4,562	6,046	8,789	3,959	4,751	4,178
2008 10	4,024	5,329	7,994	3,664	4,397	3,872
2008 11	3,580	5,090	7,508	3,499	4,199	3,844
2008 12	3,645	5,253	7,920	3,704	4,445	3,068
2009 01	3,484	5,067	7,733	3,333	3,933	2,433
2009 02	3,144	4,353	7,426	3,201	3,777	2,695
2009 03	3,148	4,305	7,566	3,261	3,848	2,751
2009 04	3,154	4,337	7,557	3,286	3,877	2,665
2009 05	3,225	4,520	7,807	3,424	4,040	2,545
2009 06	3,279	4,624	7,986	3,503	4,133	2,505

주) 년도 가격은 년도말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월평균 환율 적용

출처 : 영국 MDC

- 버터

(\$/톤)	영국 무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퀵른	폴란드	미국 Grade AA	이탈리아
2006	2,272	3,381	3,355	-	-	-	-
2007	3,059	4,371	5,099	4,771	4,704	2,895	3,569
2008	2,357	2,828	2,896	2,977	3,005	2,527	1,872
2008 06	3,579	4,295	4,171	4,273	4,037	3,321	2,801
2008 07	3,705	4,556	4,367	4,664	4,400	3,404	2,917
2008 08	3,450	4,185	4,110	4,216	4,074	3,543	2,587
2008 09	3,095	3,484	3,657	3,759	3,707	3,742	2,419
2008 10	2,398	2,998	3,064	3,223	3,120	3,786	2,116
2008 11	2,227	2,698	2,800	2,895	2,773	3,524	1,877
2008 12	2,357	2,828	2,896	2,977	3,005	2,527	1,872
2009 01	2,533	2,733	2,867	2,851	2,807	2,465	1,733
2009 02	2,497	2,714	2,753	2,778	2,484	2,459	1,664
2009 03	2,544	2,791	2,804	2,837	2,596	2,584	1,644
2009 04	2,563	2,865	2,826	2,856	2,781	2,636	1,643
2009 05	2,773	2,986	2,945	2,969	2,838	2,790	1,712
2009 06	2,837	3,124	3,054	3,165	2,928	2,701	1,765

주) 년도 가격은 년도말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월평균 환율 적용

출처 : ZMP

다. 곡류 및 축산물 선물시세

(센트/부셀, 센트/파운드)	곡물			축산물				
	옥수수	소맥	대두	생우	돼지고기	버터	탈지분유	3등급우유
2006	390.25	501.00	683.50	92.500	62.48	128.50	104.50	13.46
2007	455.50	885.00	1214.20	98.500	59.98	140.00	176.00	20.49
2008	407.00	610.75	972.20	86.050	60.88	135.00	87.00	15.14
2008 06	737.75	858.75	1605.00	103.430	70.9	155.75	144.50	20.29
2008 07	587.00	783.00	1394.00	98.400	74.35	155.75	142.50	18.18
2008 08	568.25	779.25	1332.00	101.800	68.43	161.00	139.00	17.28
2008 09	487.50	680.00	1045.00	98.900	68.57	168.00	118.00	16.24
2008 10	401.50	536.25	925.20	84.780	54.8	149.00	99.87	17.06
2008 11	349.50	542.50	883.00	87.400	59.5	149.00	88.50	15.5
2008 12	407.00	610.75	972.20	86.050	60.88	135.00	87.00	15.14
2009 01	379.00	568.00	980.00	82.00	58.55	134.00	84.00	10.78
2009 02	350.75	510.50	874.40	85.92	60.9	116.00	82.00	9.31
2009 03	404.75	532.75	952.00	83.92	60.35	123.00	82.00	10.46
2009 04	396.25	524.25	1,070.00	82.50	58.1	123.00	82.45	10.77
2009 05	436.25	637.25	1,184.00	81.33	63.92	127.00	83.50	9.83
2009 06	347.75	511.25	1,226.20	85.25	58.67	122.00	84.50	9.93
2009 07	339.50	528.25	1,134.00	8,470.00	56.02	127.00	88.00	

주) 곡물은 센트/부셀, 축산물은 센트/파운드

출처 : CBOT, CME



7. 미국 낙농산업 통계

(천두, 천톤 \$/pound)	착유두수	우유생산량	유제품 생산량				유제품 가격		
			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체더치즈	버터	탈지분유
2006	9,073	82,461	4,320	657	686.7	13.8	1.31	1.21	1.04
2007	9,129	84,211	4,400	695	680.8	14.4	1.99	1.31	1.64
2008	9,254	89,179	4,463	749	857.3	22.7	1.65	1.15	0.83
2008 05	9,318	7,578	377	64.7	79.1	2.2	2.07	1.48	1.34
2008 06	9,321	7,231	367	54.3	76.3	2.2	2.06	1.47	1.36
2008 07	9,335	7,255	369	51.8	73.8	2.3	1.93	1.52	1.41
2008 08	9,331	7,147	372	52.5	64.3	1.7	1.75	1.59	1.37
2008 09	9,323	6,862	361	54.9	56.4	2.1	1.85	1.68	1.17
2008 10	9,324	7,083	383	59.0	62.8	2.2	1.86	1.72	0.93
2008 11	9,333	6,900	374	60.7	68.6	1.7	1.69	1.54	0.87
2008 12	9,334	7,212	390	70.9	78.5	1.5	1.65	1.15	0.83
2009 01	9,312	7,320	374	79.2	78.2	1.5	1.09	1.07	0.83
2009 02	9,289	6,693	349	66.1	66.0	1.4	1.23	1.09	0.82
2009 03	9,283	7,470	395	66.8	72.4	1.5	1.24	1.17	0.82
2009 04	9,281	7,317	383	64.6	74.0	0.9	1.25	1.16	0.82
2009 05	9,269	7,612	390	63.2	79.8	2.1	1.14	1.25	0.84

주) 1. 유제품 가격은 매월 마지막주 가격기준 2. 체더치즈는 40파운드 블록 체더치즈 기준임

출처 : NASS, USDA

8. EU 낙농산업 통계

(천톤)	우유생산량	유제품 생산량				
		음용유	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2006	132,605.9	33,314.9	8,002.3	1,864.8	822.4	595.5
2007	132,842.8	33,347.2	8,108.5	1,882.7	868.1	592.8
2008	133,847.8	31,010.6	8,217.3	1,933.0	848.5	573.1
2008 05	12,273.2	2,650.5	716.3	174.1	89.8	62.7
2008 06	11,372.6	2,491.0	679.0	150.3	73.9	48.3
2008 07	11,478.6	2,538.3	715.8	157.2	72.7	45.8
2008 08	11,040.9	2,448.9	682.2	142.4	65.3	40.8
2008 09	10,513.7	2,513.8	683.2	144.6	55.2	35.7
2008 10	10,710.0	2,654.4	690.0	158.6	57.5	41.5
2008 11	10,221.0	2,533.6	636.3	141.6	46.7	41.0
2008 12	10,801.1	2,676.5	653.5	170.9	80.4	51.4
2009 01	11,093.8	2,595.2	663.7	174.1	72.6	41.3
2009 02	10,349.7	2,443.1	620.3	168.4	72.6	30.4
2009 03	11,689.1	2,662.4	692.0	176.6	83.2	34.5
2009 04	11,865.6	2,581.7	687.3	172.2	92.3	39.4
2009 05	12,020.3	2,444.8	654.7	158.7	97.4	31.7

출처 : ZMP, EUROSTAT

9. 일본 낙농산업 통계

(톤, yen/10kg)	원유생산	유제품 생산량					우유생산자가격
		음용유(kl)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치즈	
2006	8,133,907	4,141,443	13,794	180,644	80,477	124,888	798
2007	8,001,092	4,033,570	14,027	172,533	75,061	125,285	789
2008	7,981,942	3,952,875	13,543	158,085	71,696	118,349	822
2008 05	710,339	338,960	1,496	15,030	7,207	9,576	822
2008 06	675,879	339,381	1,325	12,376	6,058	9,446	824
2008 07	669,026	344,935	936	11,336	5,187	9,721	847
2008 08	653,837	320,985	1,067	11,007	5,057	8,237	859
2008 09	628,952	352,717	371	7,975	3,712	9,756	849
2008 10	649,811	346,261	758	10,484	4,421	10,475	877
2008 11	627,331	323,032	927	10,977	4,434	10,220	861
2008 12	661,462	314,949	798	15,695	6,311	10,505	853
2009 01	675,086	310,106	1,753	15,619	7,865	8,760	834
2009 02	618,183	298,691	1,291	13,091	6,322	9,098	831
2009 03	690,670	307,997	1,351	16,575	8,087	9,869	837
2009 04	675,069	311,284	1,363	15,213	7,626	11,137	878
2009 05	701,772	327,730	1,223	15,321	7,604	9,345	894

주) 우유 생산자 가격은 전국 평균 판매 가격임

출처 : 일본 농림수산통계청, 총무성

10. 호주 낙농산업 통계

(백만리터, 톤)	원유생산	유제품 생산량						
		버터	버터오일	탈지분유	버터밀크	치즈	전지분유	유청분말
2006	10,028	87,156	31,408	205,891	15,446	380,389	157,290	97,238
2007	9,185	78,518	25,318	172,158	12,346	334,646	130,147	78,982
2008	9,355	91,677	25,856	188,709	14,319	343,037	135,839	84,926
2008 05	610	4,878	1,534	6,161	820	24,052	6,856	6,069
2008 06	607	6,263	1,156	8,766	931	23,928	11,613	5,956
2008 07	633	4,409	1,528	12,070	780	19,469	12,322	3,923
2008 08	756	6,326	1,795	16,348	1,103	23,102	9,767	6,604
2008 09	951	9,280	2,638	25,714	1,624	34,845	15,723	8,715
2008 10	1,100	12,792	2,811	31,099	1,944	34,539	18,261	8,615
2008 11	1,022	11,870	3,488	29,513	1,729	33,425	16,452	8,643
2008 12	976	12,059	3,296	26,925	1,826	35,868	14,345	9,193
2009 01	867	9,609	2,532	17,927	1,455	31,035	13,285	8,349
2009 02	646	4,550	3,365	10,692	1,032	25,274	8,103	6,178
2009 03	640	6,316	2,350	9,423	1,048	28,186	7,255	7,005
2009 04	593	6,110	2,322	9,786	1,050	18,089	9,736	4,153
2009 05	614	5,329	2,007	10,403	854	19,282	12,574	5,097

출처 : Dairy Australia

◆ 『낙농산업동향』은 낙농진흥회가 농림수산물부 및 유관기관, 자체분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매분기(1, 4, 7, 10월)별로 발행하는 자료로서 낙농관련 기관 및 단체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 본 책자의 자료 및 통계에 대한 문의 사항은 낙농진흥회 낙농정보실 국내조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02) 6007-5593

E-mail. webmaster@dairy.or.kr

Fax. (02) 573-7824

2009 3/4분기 낙농산업동향 (통권7호)

발행일 2009년 8월

발행처 낙농진흥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 B/D 4F)

발행인 강 명 구

편집처 낙농진흥회 낙농정보실 국내조사팀

인쇄처 한라인쇄(☎ 02-503-3011)

